21세기 태양

1

대학시절



6.15주간 편집부



대학시절

6.15주간 편집부

노작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아 너를 빛내리



해 솟는 용남산 마루에 서니
삼천리 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햇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 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에 대하여 밝혀주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



김일성종합대학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까지지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급중학교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고급중학교를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주체49(1960)년 9월1일부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학시절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문에 대한 강의는 근 50회분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4년간을 보내신 **김일성**종합대학에 대해서 사료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해방직후인 주체35(1946)년 10월에 창립됐습니다. 그러니 올해로써 쉰 두 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학에는 오늘 열 여섯 개 학부와 아홉 개의 연구소, 예순 다섯 개의 학과와 수백 개의 학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만2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는 200여 개의 강좌와 연구실이 있고 저명한 교수 박사들을 비롯한 교직원 연구사들이 5천5백여 명이나 있습니다. 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용남산 마루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이 높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학에는 훌륭한 교육시설을 갖춘 본청사와 제1호교사, 제2호교사를 비롯한 여러 교사들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진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2백여 만 권의 장서와 1,200석의 열람실을 가진 과학도서관이 있고 이밖에 자연박물관, 체육관, 출판사와 인쇄공장, 실습공장들이 있습니다. 또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숙사들과 식당, 병원, 종합편의시설 등 교직원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고 그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랑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자기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또 어떤 대학은 그 규모를 자랑하며 또 어떤 대학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인물인 누구누구가 공부한 대학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대학이란 어디까지나 교육의 전당인 것만큼 그 자랑은 응당 교육의 수준, 민족간부양성의 질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그 나라의 발전수준과 문명의 척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대학이 과학과 기술, 문화와 군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일할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최고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김일성**종합대학은 투쟁 속에서 혁명인재를 키워온 혁명적인 대학,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히 복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대학으로서 세계에 자랑 떨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국민회의 상임고문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고문 그리고 남조선 천도교 중앙총부 전교령으로 있던 오익제선생이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했었습니다. 선생은 대학이 교육의 내용과 질은 물론 그 물질기술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그쯘히 갖춘 굴지의 대학으로 전변된 데 대해서 해설도 듣고 또 직접 과학도서관, 체육관과 넓은 부지에 펼쳐진 대학구내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참관 후 그는 자기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그 소감의 일부를 인용해 드립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또 부럽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인간자원의 시대 다시 말하여 인재가 많은 것을 결정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인재양성 측면에서 일찍이 **김일성**수령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방 후 그 어려운 시기에 최초로 이 대학을 설립해 주시고 또 끝없이 배려하여 주신 그 은덕에 대하여 깊은 감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을 모시고 **김정일**영도자님의 사적이 어려 있는 것으로 하여 더욱 뜻깊고 이름 높은 대학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피력했습니다. 참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은 세계에 그 이름을 빛내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학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 ≪**김일성**종합대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고 수령님의 손길 아래 태어나고 자라난 영광스러운 대학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종합대학이 세상에 자랑 떨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학이 인류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세워졌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북반부지역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개밖에 안되는 중학교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8.15직후 종합대학을 연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운영에 필요한 인재가 걸렸습니다. 대학을 운영하자면 교원이 있어야겠는데 이것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학창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몸소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회를 친히 무어주시고 교원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존함으로 된 위촉장까지 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 흩어졌던 학자들로 교원대열이 꾸려지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 일꾼들이 학생들에게 읽힐 책이 없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 국내뿐 아니라 멀리 외국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셔서 수십 만 권의 과학서적을 구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사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농민들이 수령님께 올린 충성의 애국미로 웅장한 대학교사를 짓도록 해 주셨습니다. 해방직후 아무 것도 없는 빈터 위에 시급히 건설해야 할 공장이나 시설들은 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자금이라고는 농민들이 바친 애국미밖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재가 있어야 건국도, 민족의 장래도 있다고 하시며 수많은 건설대상들을 다 뒤로 미루시고 종합대학부터 일떠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건물이 종합대학 본청사인데 오늘도 룡남산 마루에 무게있게 서 있습니다. 대학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학

은 명실공히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을 위한 대학인 것만큼 인민의 종합대학이라고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합대학은 응당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함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이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하나와 같은 이 지향을 담아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처럼 종합대학은 창립취지로 보나 그리고 창립과정으로 보나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대학으로 출발했습니다.

종합대학이 그 이름을 세상에 떨치고 있는 것은 또한 이 대학에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광의 사적이 뜨겁게 어려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합대학의 강화발전을 위해서 현지지도만도 무려 100여 차례에 걸쳐 하셨고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단계마다 강령적인 교시를 주셨는데 그 횟수만도 500여 차례나 됩니다. 특히 대학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면서부터 더욱 그 이름을 빛내이는 대학으로 전변되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그분께서는 당시 비록 대학생의 신분으로 계셨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그분은 대학의 사상리론계를 이끄신 탁월한 스승이시었고 대학생들을 주체위업의 계승자로 키워내신 청년지도자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에 입학하신 1960년대 초로 말하면 교육내용에서 볼 때 아직 주체가 튼튼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육내용에서는 맑스나 레닌이 전개한 고전들을 많이 우상화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민족간부의 골간을 키워낼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만큼 이 대학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나라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예리하게 판단하신 그분께서는 대학기간에 한편으로는 교육내용에서 교조주의와 사대주의, 수정주의를 극복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주체적 립장에서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그 근본원리로부터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탐구를 진행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러한 사상리론활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대학의 교육내용을 일색화하는 데서 전환적인 계기로 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처럼 교육내용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시는 것과 함께 또한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이 순결하게 고수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원래 종합대학은 창립 첫날부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국해방전쟁 때나 전후복구건설 때나 이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앞장에서 풀어나갔습니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인민군입대를 탄원해서 전선으로 달려나간 것도 바로 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충성심을 새로운 기초 위에서 튼튼히 다져나가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김일성**종합대학의 제1생명으로 확고히 뿌리내리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사상정신적 양식으로 삼고 수령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관점에 기초해서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료들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사료에 기초해서 어떤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다른 나라에 유학을 하시지 않은 리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김일성**종합대학은 분명 세계적인 대학, 사회주의대학의 본보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 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용남산마루에서의 맹세



박상욱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영광스러운 대학시절에 대한 첫 강의로서 그분께서 공부하신 **김일성**종합대학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그분께서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세상에 내놓으신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한 편의 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이 오늘 노래로 시로 언제나 즐겨 부르며 읊고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주체85(1996)년 10월에 창립 쉰 돌을 맞이했는데 이 뜻깊은 날을 맞으면서 그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큼직한 화강석비에다 새겨 용남산에 정중히 세웠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그 시를 몹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그 시에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겠는가.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 정치가들의 약력을 보면 그들 대부분이 유학을 했습니다. 흔히 크고 발전된 나라에 유학을 해야만 정치가로서의 권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로부터 동방사람들인 경우에는 서방을 우상화한 데로부터 그곳으로 많이 유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크고 발전된 나라나 서방나라들에서는 자기들의 대학을 자랑하면서 유학초청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고중을 마치실 무렵 어느 한 사회주의나라에서는 그분께서 자기네 종합대학에 유학하시도록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모든 권고를 다 거절하시고 조국의 대학 평양에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실 결심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참으로 사색도 실천도 어버이 수령님과 꼭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 국제당에서부터 모스크바유학을 권고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스크바에는 국제당이 운영하는 공산대학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봉암과 같은 사람들이 조선공산당의 추천을 받아 그곳에 다녔습니다. 당시 만주지방 청년들 속에서는 ≪모스크바유학가≫라는 노래까지 불리워질 정도로 모스크바유학에 대한 동경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위해 외국유학이 아니라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도 그 어떤 남의 나라 대학이 아니라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실 결심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이께서는 왜 기어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실 결심을 내리셨겠는가. 여기에 바로 그분의 원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분께서 1960년 9월1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던 날 대학이 자리잡고 있는 용남산마루에서 읊으신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해 솟는 용남산 마루에 서니삼천리 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대를 이어 햇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공산주의 그 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시는 모두 세 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왜 조국에 있는 대학,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종합대학에서 기어이 공부하시려는가 하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다지신 그이의 견결한 맹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 시를 읊으신 자리에서 학우들에게,

≪나는 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즉흥적인 감정에서 이 시를 읊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늘 가슴 속 깊이 간직하여 오던 심정을 뜻깊은 오늘 이 산정에서 터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이께서 늘 가슴 깊이 간직해 오신 것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우신 나라 사회주의조선을 만대에 길이 빛내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구상이였습니다. 바로 그 구상을 이 시에다 담으신 것입니다.

이 시의 첫째 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도 대학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배워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계승해나가실 결심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된 리상사회를 이 땅 위에다 일떠세우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숭고한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 10대의 시절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던 것이고 항일혁명투쟁 초시기에 쏘련에 유학하실 것을 바라는 동지들의 권고도 마다하시고 조선혁명의 준엄한 실천 속에서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며 항일혁명투쟁을 영도하셨습니다. 조선에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자면 조선을 알아야 하고 조선의 현실에 발을 붙여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좌우명이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좌우명 그대로 조선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것이 구현된 조선의 현실을 배우고 체득해야 된다는 철석같은 의지를 간직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지로부터 그이께서는 조국에 있는 대학에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배워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으로 준비하기 위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실 결심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음 이 시의 두 번째 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고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실 것을 형상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음과 같은 표현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라는 것은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태양의 나라 **김일성**민족이 사는 조선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는 이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님을 각오하셨던 것입니다. 즉 전진도상에서 뜻하지 않게 사나운 풍랑과 폭풍에 맞아들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진 풍랑과 폭풍이 앞을 가로막아도 그것을 헤치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한길로만 나가야 하고 그래서 조선을 온 세상에 빛내시고야 말겠다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경애하는 장군님의 예견과 의지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처럼 견결한 의지와 함께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선견지명을 지니고 계심으로 해서 오늘과 같이 우리 혁명의 주체인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 위력한 힘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민은 역사의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신심 드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의 셋째 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에 첫 발자국을 옮기시던 그때 위대한 주체사상의 세계사적 승리를 가져오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셨습니다. 이 련에 있는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을 앞당겨오리≫ 라는 표현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체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 속에는 언제나 주체사상의 발원지, 주체의 조국인 조선이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조선에서 주체사상이 빛을 뿌리게 하고 그 빛발로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다그쳐 나가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드팀없는 신념입니다. 조선을 통해서 세계를 보시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통해서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시려는 것은 어리신 시절부터 간직하신 그분의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그분의 어린 시절에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섯 살 되시던 때의 일입니다.

가볍게 돌아가는 지구의를 신기한 듯 유심히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갑자기 손뼉을 치시며 어머님에게,

≪이것 보세요. 우리나라가 도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 돌아요. 온 세상이 다 우리나라를 따라 돌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조선을 따라서 온 세계가 돈다고 하신 그이의 유년시절의 말씀은 참으로 하나의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오늘날 엄연한 현실로 됐습니다. 하기에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인 비슈와나쓰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영도자의 믿음과 사랑의 정치는 조선을 인간사랑의 대화원으로, 1억4천만 평방키로메터의 광대한 세계의 중심에 세워놓았다. 어젯날 예루살렘과 부타가야를 찾던 종교인들이 조선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며 주체의 복음을 찾고 있으며 사회주의에 뜻을 품고 모스크바를 찾아가던 사람들이 향방을 바꾸어 평양으로 달려가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비슈와나쓰의 이 말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신 원대한 구상이 참말로 과학적이고 현명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휘황한 미래를 낙관하게 하는것입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종합대학에 첫 등교를 하시던 날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혁명활동에 큰 걸음을 내딛으시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보여주신 창조적인 학습기풍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창조적인 학습기풍

박상욱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인가 한 해외교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에 여러가지 혁명활동을 벌리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군님께서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럴 좀 들려줄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였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계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걸출한 사상리론가, 정치원로로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그이께서 대학시절에 공부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몹시 알고 싶어하리라고 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발휘하신 학습기풍,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견주지 못할 독학가의 위대한 모범입니다. 그분께서는 그 어떤 문제든 파고들어 정력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고 착실하게 꾸준히 학습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공과목인 정치경제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은 물론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그분께서 대학시절에 쌓으신 지식의 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보여주신 학습기풍과 관련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그이의 창조적인 학습태도에 중점을 두고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간의 장점 중에서 제일가는 장점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진두에서 이끌어나가십니다. 창조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그분의 위인상을 우리는 대학시절에 보여주신 그이의 학습태도를 통해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창조적인 학습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창조적인 학습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기성의 리론을 기계적으로 받아물지 말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여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창조적인 학습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기성의 리론을 기계적으로 받아물지 않는다는 것, 자기 머리로 사고해서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학습을 하는 데서 제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 정신을 가지지 못하면 남의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숭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머저리가 되고 맙니다. 원래 과학연구사업이나 혁명실천은 다 창조적인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에 맞게 주위세계를 개조하고 새 것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혁명하는 사람들은 학습을 하는 데서도 그렇고 사업실천에서도 그렇고 창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리신 시절부터 무엇이든 창조적으로 대하시였고 학습에서도 창조적 태도를 견지하셨습니다. 어리신 시절 그분께서 사물현상을 창조적인 안목에서 대하신 례는 하나에다 하나를 더해도 하나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신 유치원시절의 일화에서 잘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수학적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인류의 유년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움직

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유치원연령기에 벌써 생활 속에서 자신의 체험으로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더 큰 하나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확고하게 제기하시었습니다. 이것은 사물현상을 고찰하시는 그분의 창조적인 안목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분의 창조적인 학습태도는 중학시절에 있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중학교 지리교과서에는 조선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조선은 중국의 동쪽과 쏘련의 동남쪽, 일본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고 서술돼 있었습니다. 중학교시기의 나이라면 교과서에 씌여진 내용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그것을 강의하는 교원들도 그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이 교과서에 씌여진 대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서술은 주체적 립장에 서지 못한 서술이라고 하시면서 교과서에서 다른 나라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가 자리잡고 있는 대륙을 기준으로 해서 구라파의 동북 또는 아시아의 중부 및 북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쓰면서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치를 서술해야 하겠는가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하는 기준도 응당 우리가 자리잡고 있는 아시아대륙으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어떻게 되어 이와 같이 남달리 일찍부터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대하셨고 학습에서 창조적 태도를 견지하셨겠습니까.그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첫째로는 위대한 가정에서 받으신 애국애족의 혁명적 교양이며 둘째로는 남달리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누구보다도 심오히 체득하신 데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교문에 들어서시기 전부터 벌써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시고 모든 문제를 주체의 방법론으로 풀어나가시는 높은 자질을 소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기간 기성의 리론들을 연구학습하고 분석하시면서 철저히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실례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철학강의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강의에서는 모순의 법칙,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모순에 의해 발전한다는 데 대해서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사물발전의 원인과 동력이 모순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철학이야말로 세계의 비밀을 밝혀내는 과학의 과학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철학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끌려 학생들은 거기에 취급되는 일체의 문제들을 더 론의할 여지없이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날도 흥분해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그분께서는 그들이 창조적인 학습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서 학생들을 몸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열정에 넘치신 음성으로 오늘 배운 모순의 법칙이 중요한 철학의 법칙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물현상이 반드시 모순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보는 데는 일련의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뜻의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요컨대 모든 사물과 현상이 서로 상반되는 대립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만큼 다 일정한 모순을 가지고 있고 이 모순으로 하여 대립물들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며 이 투쟁을 통해서 사물이 변화발전되어 온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모순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서로 상반되는 대립물들의 투쟁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아야 옳겠는가. 사실상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당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서 혁명과 건설이 추진되고 사회가 발전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현실을 모순이자 투쟁이요 투



쟁이자 발전이라는 기성의 리론으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제시하신 문제의 요점은 바로 이런 것이였습니다. 학생들은 오랜 세월 움직일 수 없는 진리로 공인되온 기성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대하시는 경애하는 그분의 학습태도에서 실로 경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성의 리론이 모순의 법칙을 발견한 것은 불멸의 의의를 가지는 거대한 과학리론적 업적이지만 그 법칙을 사회발전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이 쉽게 리해할 수 있게 례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착취사회에서 노동계급과 착취계급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고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지만 그러나 그 투쟁을 일으키고 승리에로 나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모순에 찬 사회를 변혁하고 선진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 로동계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주의사회를 놓고 보더라도 온갖 낡은 것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인민대중의 높은 요구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실천적 투쟁, 즉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셔서 사회발전의 원인과 동력은 바로 사회발전의 담당자이며 사회적 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발전의 원인과 동력은 발전하려고 하는 운동의 주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로 운동의 주체를 사회발전의 원인과 동력으로 보시는 그이의 론단은 사회발전법칙에 대한 심오한 고찰이였고 하나의 새로운 발견이였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창조적인 학습태도는 선행이론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 인민의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분석평가하신 데서 찾아보게 됩니다.

다른 실례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집필한 것은 1916년 봄이였습니다. 여기에서 레닌은 제국주의의 기본특징과 제국주의의 역사적 지위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레닌의 이러한 정식화들은 자본주의가 방금 제국주의에로 이행한 당시의 제국주의를 분석한 기초 위에서 내려진 것이였습니다. 따라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명제들을 가지고서는 현대제국주의를 옳게 분석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학생들 속에서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교조적으로 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의 제국주의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농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기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창조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레닌이 분석한 지난날의 제국주의와 오늘날의 제국주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전면적으로 밝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유명한 론문인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론문에는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그분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돼 있습니다. 하기에 인도 델리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현대제국주의론의 창조자는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그분의 현대제국주의론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강의에서 자세히 언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창조적인 학습태도의 숭고한 모범으로 과학연구분야나 교육사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던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극복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창조하신 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만페이지읽기운동

박상욱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던 당시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발기하시고 대학생들의 학습을 정력적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현대과학과 인류지성의 상상봉에 오르실 높은 목표와 숭고한 리상을 내세우시고 학습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분의 정력적이고도 창조적인 학습태도는 뭇사람들의 존경과 감탄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시 다른 대학생들의 학습에도 세심한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대학생들 속에서 학습열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발기하게 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운동을 발기하시게 된 데는 몇 가지 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 맑스나 레닌의 리론을 절대시하면서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전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사실이지만 조선민족의 형성문제에 대한 학과토론에서 많은 학생들이 고전의 명제에 맞추어 그것을 풀려고 하던 나머지 나중에는 황당한 론의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고전에 대한 맹목적인 숭상은 사람들을 자기 머리로 사고할 줄 모르는 머저리로 만든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우자면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우리 나라 혁명을 잘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혁명을 잘 하자면 다른 나라의 것보다 자체의 것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데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든 대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체득하는데 선차적 힘을 넣도록 불을 지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리유는 그때 일부 학생들 속에서 강의에서 배운 내용에만 매달려 학습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사실이였습니다.

이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에 오신 지 반년이 지난 주체50(1961)년 3월에 학생초급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나는 요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더욱 높이며 대학기간에 모든 동무들이 보다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겠는가 하는 데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벌려야 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이 한 해 동안에 책을 1만 페이지 읽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동안 내가 몇 동무들과 짜고 들어 책을 읽어 보았는데 한 해에 얼마든지 1만 페이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에 300



일 동안 학습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책을 하루에 한 30 페이지씩 읽으면 1만 페이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의 봉화를 지펴 올리시게 된 것은 말씀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그분께서 지펴 올리신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 책읽기운동은 이미 전에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독서운동이라 해가지구 고전이요, 소설이요 하면서 아무 책이나 많이 읽거나 또 옛날 선비들처럼 서재에서 명문구들을 따로 외워내기를 하는 것과 같은 독서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은 그전에 있었던 이런 단순한 독서운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이 어떤 운동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학습하기 위한 충성의 운동이며 여러 분야의 책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깊이 읽기 위한 운동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학습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께서는 대학생들 속에서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벌리시면서 그 첫 자리에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학습을 내세우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그렇게 해야 대학생들을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수 있고 조선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키워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하신 보고와 연설, 결론과 담화들에는 조선혁명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데 대한 지침이 명시돼 있구 구체적인 방도가 다 밝혀져 있습니다. 아무리 맑스나 레닌이 써놓은 책들을 살펴봐도 거기에는 조선혁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학생들은 덮어놓고 선행고전가들이 쓴 책을 우상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자면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벌려서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하겠다고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벌리시면서 그 첫 자리에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학습을 내세우신 이유는 또한 대학생들을 백과전서적인 지식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키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은 물론 사회와 인간생활의 모든 부문에 걸친 풍부한 지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백과전서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래서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벌리심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학습을 전면에 내세우신 것 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발기하시면서 이 운동은 다음으로 여러 분야의 책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깊이 읽기 위한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망탕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튼튼한 기초가 없이 짓는 집이 종당에는 기울어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하셨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목적지향성 있게 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정치서적, 기술서적, 문예서적들을 옳게 배합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기의 수준에 맞게 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욕망만 앞세우면서 리해하기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 안됩니다. 요컨대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은 모든 학생들이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전공분야에서 과학의 상상봉에 올라서며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되게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발기하신 다음 그것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이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주셨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의 학습정형을 친히 요해하시고 구체적인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때 일부 대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원문을 가지구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로작의 내용을 풀이한 해설서를 학습하거나 흥미본위로 읽으면서 페이지 수나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런 실태를 헤아려보시고 대학생들의 가슴에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안겨주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만들자면 로작의 구절구절에 담긴 사상을 깊이 새기면서 그 진수를 파악할 때까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읽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의 요구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학생들의 심장 속에 뜨거운 충성심과 열정을 북돋아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후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은 새로운 궤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학생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철두철미 원문에 기초해서 깊이 파고들어 착실히 학습하는 기풍이 서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도서관에 가서도 공원을 거닐면서도 기숙사, 식당이나 회관에서 짬시간을 이용해서도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학습했습니다. 학생들은 수령님의 로작에서 심오한 철학을 체득했고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범주와 법칙들을 리해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모든 진리를 리해했습니다. 이것은 참말이지 혁명적인 학풍을 세우는 데서 하나의 거대한 전환이었고 혁명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활기있게 벌어지고 있는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면서 그것을 더욱 줄기차게 이끌어 나가시기 위해서 친히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의 노래를 만들 것을 발기하시고 그 창작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노래제목도 잡아주시고 가사에 담아야 할 내용도 자세히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다 된 다음에는 한구절한구절씩 수정 가필하셔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서 발기하신 만페이지책읽기운동, 그것은 단순한 독서나 학습운동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배우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체득하기 위한 충성의 책읽기운동이라는 것,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높은 학습목표에로 치달아 오르기 위한 집단적인 책읽기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 힘있게 벌어져서 대학생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배우는 새로운 학풍이 확고히 서게 됐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이끌어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혁명적 세계관

박상욱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 있은 강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는 날 용남산 마루에 오르셔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 라는 시를 읊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시에서 우리 조선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시려는 위대한 맹세를 천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원대한 구상을 실현해 나가실 결심을 지니시고 무엇보다도 자신께서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열중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대학생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사업에 큰 힘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대학생들을 당과 수령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시키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하셨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고 보시고 이 문제해결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문제, 즉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벌리셨는가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51(1962)년 2월 경제학부 학생초급일꾼들과 하신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수령님의 존함을 지닌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누구보다도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참다운 혁명인재로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 장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는가 못 하는가 하는 것은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가 세우지 못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 문제를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관건적인 문제로 보셨습니다. 세계관이란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입니다. 사람이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구 어떤 립장을 가지고 대하는가 하는 것이 곧 세계관입니다. 종래의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에서는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유물론의 원리와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변증법의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원래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은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철학적 세계관이 자기의 사명을 다 하려면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구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것을 해명하는 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인간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밝혀야 합니다. 바로 이 문제까지 다 밝혀놓은 세계관이 바로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생들 속에서 이러한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워나갈 것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신 것이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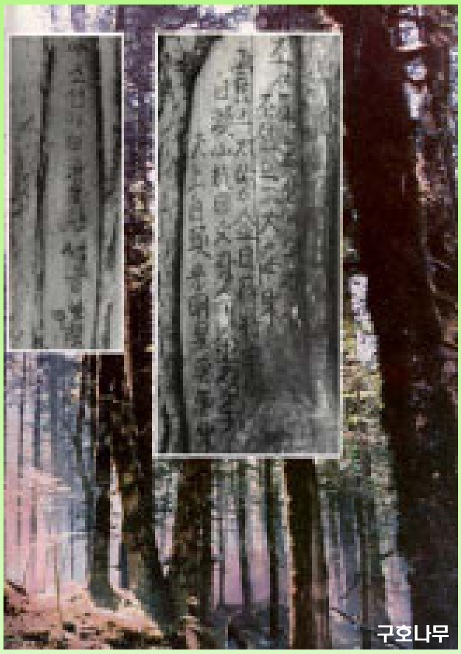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시 대학생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서는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갈 수 없습니다. 물질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을 중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체사상이 가르키는 길로 혁명을 전진시킬 수 없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조선 운동권에서 어떤 사람들은 괴뢰군 사병들을 다 반혁명세력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군대는 조직특성상 사병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장교의 명령이 군대집단의 행동을 규정하기 때문에 군대는 도대체 혁명의 동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군대의 명령지휘체계만을 일면적으로 보는 데서 오는 그릇된 분석입니다. 괴뢰군 사병들은 일상생활에서 민족적 억압과 멸시, 계급적 착취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자주성을 옹호하는 혁명의 길에 나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혁명의 동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체의 세계관이 서면 이렇게 보고 그런 입장에서 괴뢰군 안에서의 의식화 조직화 사업도 벌려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그분께서 지난 60년대 초시기 대학생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고전에 매달려 물질위주의 세계관으로 흐르고 있는 실태를 예리하게 포착하시고 주체의 세계관 확립문제를 우리 혁명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관건적 문제로 내세우신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청봉숙영지 기념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때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인 세계관확립에 깊은 주의를 돌리신 이유의 또 하나는 대학시절이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람들은 대학생시절에 인격과 풍모가 완성되고 세계관이 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새 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합니다. 특히 과학을 탐구하는 대학생들은 새로운 사상에 민감하고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무엇을 하나 보고두 스쳐 지나지 않고 그것을 분석평가해서 자기의 주견을 세우게 됩니다.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높은 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학생시절에 자기가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하며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결심을 굳게 가지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생시절의 바로 이러한 연령, 심리적 특성과 높은 교육단계를 거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의식발전의 특성들을 깊이 분석하시어 대학생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잘 준비시키자면 무엇보다 먼저 그들 속에서 혁명적인 세계관, 주체의 세계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든 대학생들이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첫째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체사상을 떠나 주체의 세계관 형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과학지식을 넓고 깊게 체득하도록 하신 것입니





다. 세째로는 혁명실천을 강화하게 하신 것입니다. 혁명적 세계관이 옳게 섰는가 안 섰는가 하는 것은 혁명적 실천에 의해 검증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상의 사업을 다같이 밀고 나가시면서도 특히 대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대학생들을 튼튼히 무장시키자면 무엇보다도 그들 속에서 수령님의 로작학습을 첫 자리에 놓고 연구학습하는 기풍을 세워야 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적으로 내려오시면서 하신 연설들과 교시들을 구체적으로 깊이 연구학습하는 것이 혁명인재로 자라나기 위한 첫째가는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1,2학년기간에 **김일성**선집에 있는 로작들을 다 연구하고 3,4학년에 가서는 그것을 전공학습과 결부해서 다시 한 번 폭넓고 깊이 있게 학습할 데 대한 뚜렷한 학습목표를 세워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계획서와 수령님의 로작학습정형을 수시로 요해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령님의 로작학습은 원문을 여러번 읽으면서 매문구에 담겨져 있는 사상을 깊이 파악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 명제차트를 만드는 경우에도 로작원문을 여러 번 읽고 내용을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옮겨 써야 한다는 것을 차근차근 일깨워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몸소 발기하신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통해서 수령님의 로작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그분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서 대학생들 속에서는 수령님의 로작학습을 첫 자리에 놓고 연구학습하는 기풍이 철저히 서게 됐습니다. 이것은 모든 대학생들이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게 하는 데서 커다란 성과로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든 대학생들이 실천투쟁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나가도록 하는 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셨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을 잘 리용하게 하셨습니다. 방학 때면 학생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 강연사업도 하게 하고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는 사업을 적극 벌리게 하셨습니다. 방학이 아닌 때에는 평양시의 인민반들에 나가 사회정치활동을 벌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학생들은 우리 당정책이 얼마나 정당하고 현명한가 하는 것을 더욱 깊이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밖에 생산실습기간 공장에서 직접 기계를 다루며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나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건설에 적극 참가하는 기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혁명적 세계관확립을 적극 추진시키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육성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 속에서 혁명적 조직생활을 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혁명적 조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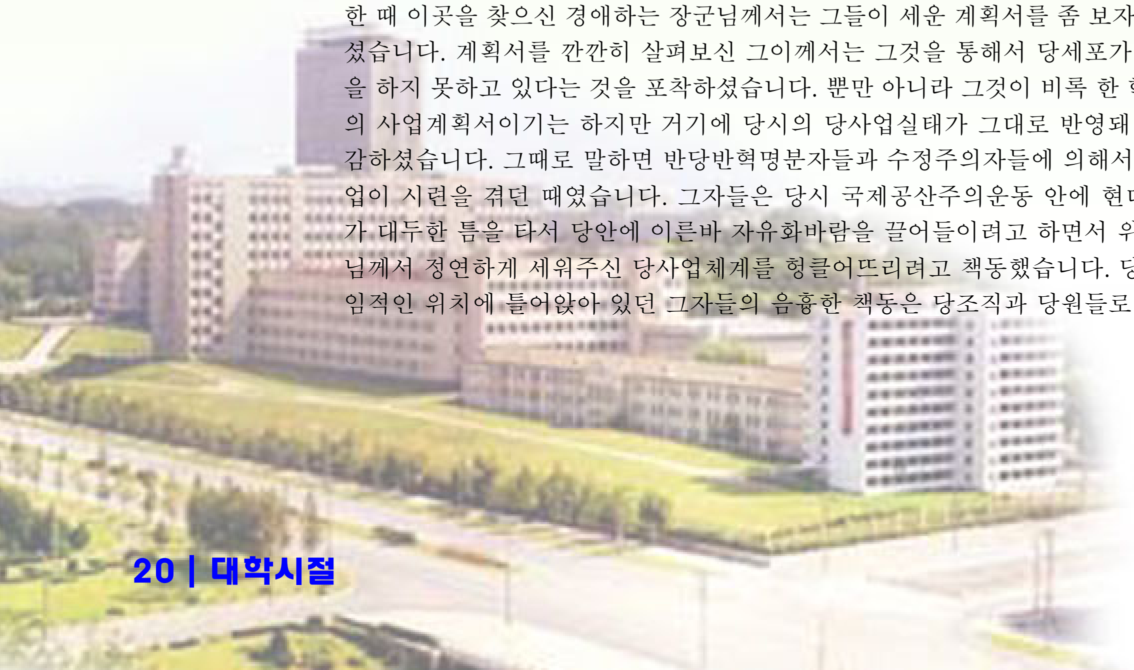
이 시간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던 시기 대학생들을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데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조직생활은 사람들이 자주적인 조직에 소속돼서 그 지도와 통제를 받으면서 조직이 맡겨주는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정치활동입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조직에 망라돼서 조직생활을 합니다. 당원들은 당조직에, 청소년들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소년단 조직에, 근로자들은 직맹과 농근맹 조직에, 그리고 여성들은 여맹 조직에 망라돼서 조직생활을 합니다. 조직생활을 떠나서는 사람들이 혁명가로 자랄 수 없고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육체적 생명을 받고 태어나지만 정치적 생명은 조직생활을 통해 지니게 되고 빛내어 나가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직생활은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강철이 불 속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 사상적으로 단련되고 수양되게 됩니다. 역사적 경험은 조직생활을 게을리하고 조직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를 물론하고 교만해지고 나중에는 사상적으로 변질돼서 혁명의 길에서 떨어져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직생활이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 데서 그토록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사람들의 조직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셨습니다.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던 시기 대학생들의 민청조직생활과 당조직생활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생들의 당조직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히 보살펴주신 데 대해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을 강화하자면 무엇보다도 그 기층조직인 세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학생당세포사업에 늘 심중한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자기 임무를 옳게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돼서 얼마 안되던 때인 1961년 초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세포위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그해의 세포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급당에서 하라는 사업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것저것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학습규률을 강화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당원증보관관리를 잘 할 데 대한 문제, 모범호실을 꾸리는 문제, 관람조직을 잘 할 데 대한 문제와 그밖에 잡다한 사업들, 심지어 기숙사호실에 임자 없는 구둣방을 차려놓고 운영할 데 대한 문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세포위원들은 그만하면 계획서가 원만히 꾸려졌다고 일치하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세운 계획서를 좀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서를 깐깐히 살펴보신 그이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세포가 아직 제곬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비록 한 학생당세포의 사업계획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당시의 당사업실태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직감하셨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반당반혁명분자들과 수정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 당사업이 시련을 겪던 때였습니다. 그자들은 당시 국제공산주의운동 안에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한 틈을 타서 당안에 이른바 자유화바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연하게 세워주신 당사업체계를 헝클어뜨리려고 책동했습니다. 당안에서 책임적인 위치에 틀어앉아 있던 그자들의 음흉한 책동은 당조직과 당원들로 하여금 당





사업과 당활동의 기본이 무엇인지 모르게 모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세포사업을 이끌어나갈 세포위원들이 제곬을 알아야 당세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보시고 당세포의 기본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당의 기층조직으로서의 당세포의 임무는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를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모든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이끌어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학내 당세포의 기본임무는 모든 학생당원들이 중요한 당적과업인 학습을 잘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세포사업계획의 중심을 명확히 그어주셨습니다. 세포위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당세포의 기본임무가 과연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게 됐고 자신들이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당세포사업계획을 실무적으로 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처럼 당세포가 과녁을 옳게 정하고 사업을 바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당생활총화를 발기하셔서 오늘 우리 전당에 일반화된 ..주당생활총화제도의 원형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생활총화는 당원들의 당생활에서 기본형식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사상적으로 단련해서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하는 힘있는 수단입니다. 당생활총화회의가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여기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었습니다.

주체52(1963)년 초 어느 날 경애하는 그분께서는 세포위원회에 참석하셨다가 어느 한 당원이 결함을 고치지 못하고 반복하고 있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이께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포착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선 당생활총화기간이 한 달이라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결함을 발로시킨 당원들을 제때에 깨우쳐주지 못하고 결함을 눅여두었다가 비판하게 된다는 것, 다음은 한 달 동안의 생활자료를 한번에 다 내놓고 총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세포의 모든 당원들이 다 당생활총화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달 당생활에서 나타난 몇 가지 두드러진 결함에 토론이 집중되면서 그 그늘 아래서 적지 않은 당원들이 당생활을 심도 있게 총화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이러

한 문제점들을 발견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종래의 관례를 대담하게 허물어버리고 당생활총화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지체없이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운 주당생활총화제도를 세워주심으로써 모든 학생당원들은 당생활의 순간순간을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때에 쌓으신 귀중한 경험에 기초하셔서 후날 전당에 주당생활총화제도를 일반화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시에 또한 당원들 속에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시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당원들은 당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며 조직규률에 복종하고 조직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는 조직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당원들은 누구의 강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당생활을 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자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원들이 혁명을 위해 한 생을 바칠 것을 결심하고 당에 스스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각적인 조직생활기풍이 없으면 그러한 사람은 사실상 당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조직생활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는 참다운 혁명가, 당원들의 중요한 품성으로 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원대학생들 속에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세워주시기 위해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에서 언제나 자신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고귀한 모범들 가운데서 한 두 가지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조직규률을 엄격히 지켜나가신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체50(1961)년 9월 어느 날 그이께서는 세포위원장을 찾으시어 세포총회를 몇 시에 하겠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사실 그날 세포총회를 하기로 예견돼 있었는데 다른 일이 제기돼서 하루 앞당겨 했었습니다. 세포위원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런데 왜 자신께는 알리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었습니다. 그분께서 바쁘신 것 같아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다는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도 당세포에 소속된 당원의 한 사람인 것만큼 당세포총회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당생활을 하는 데서는 높고 낮은 당원이 있을 수 없으며 누구나 다 당규약상의 요구대로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평범한 당원들 속에 세우시고 당생활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시면서 언제나 당생활에서 이신작칙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당적분공을 언제나 자진해서 맡으셨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서도 남달리 성실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학급의 전체 학생들 앞에 출연하시어 시사문제를 해설해주시는 일로부터 천리마영예등록장에 꽃장식을 만드는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일감을 찾아내시어 조직에 보고하시고는 그것을 책임적으로 집행하곤 하시었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그분께서는 로동신문에 실린 중요기사의 내용을 대학생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한 두 달이나 한 두 해가 아니라 대학 전기간 하루도 번지는 날이 없이 일과처럼 집행하셨습니다. 조직의 분공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당생활풍모는 모든 대학생들의 조직생활에서 참다운 귀감으로 됐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신작칙 1

박상욱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청년대학생들을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시켜나가는 데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은 대학기간 강의와 책을 통해 많은 지식을 이론적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리론이 공고한 것으로 되자면 그리고 실지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이 되자면 그것은 반드시 실천과 결부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론만 알고 실천할 줄 모르는 글뒤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10년 동안을 방안에 들어앉아 글만 외우던 한 선비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붙은 불을 어떻게 꺼야할 지 몰라서 쩔쩔매다가 동네 아낙네들이 물동이로 물을 길어다 끼얹어 끄는 것을 보고서야 ≪수화상극≫이라는 말의 뜻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미 고중시절에 학생들에게 실천을 떠난 이론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시면서 하신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일찍부터 학생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 실지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체득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청년대학생들을 리론과 실천을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준비시켜나가셨습니다. 당시 대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찍이 내놓으신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킬 데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대학생들을 생산실습과 수도건설을 비롯한 실천활동에 적극 참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기에 적극 참가하시어 로동속에서 귀중한 현실체험을 쌓아나가시는 한편,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청년대학생들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실로서 경애하는 그분께서 생산실습에 참가하신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생산실습은 주체50(1961)년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약 20일간 평양방직기계제작소(오늘의 평양방직기계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시에 진행된 생산실습의 목적은 우선 기술공학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해 공고히 하고 선반, 볼반과 같은 한 가지 이상의 공작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목적의 다른 하나는 공장관리운영방법과 노동계급의 혁명정신을 체득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실습기간 우선 노동생활을 하시면서 귀중한 현실체험을 쌓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실습의 첫날부터 자신을 기대공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로동자들과 꼭같이 생활하시었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출근하셔서 작업장과 주변 뜨락을 말끔히 청소하곤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작업이 시작되면 담당기대공과 함께 분초를 아껴가시며 긴장하게 기대를 돌리셨구 점심시간이 돌아오면 노동자들과 함께 작업장휴게실에 있는 긴 의자에 앉으시어 허물없이 밥곽을 풀어놓으시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퇴근길에 오른 노동자들 속에 스스럼없이 어울리시어 시내뻐스 정류소에서 뻐스를 기다려 타시고 댁으로 향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찌나 겸허하고 소탈하게 생활하셨던지 노동자들은 그분과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함께 뻐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얼마 동안은 그이가 누구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지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26호선반을 맡으셨는데 담당기대공을 돕고 이끌어 주셔서 그를 모범기대창조의 앞장에 내세우시였습니다. 26호선반은 당시 공장에 들여온지 5년밖에 안된 기대였지만 매우 낡아 보였습니다. 주축함은 도색이 벗겨져 얼룩덜룩 했고 면판과 배트는 쇠망치로 두드려서 흠집이 크게 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남 먼저 출근하시어 기름걸레를 들고 기대를 알른알른하게 닦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싸리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꼬챙이를 깎으시어 그것으로 볼트홈과 자그마한 구멍에 낀 먼지들까지 깨끗이 파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시까지 기대의 겉면이나 대충 닦아내는 것으로 청소를 대치해 온 기대공에게



≪병사들이 자기 무기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무기가 고장나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계급도 설비가 불비하면 생산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사들이 무기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설비를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선반을 새 기대처럼 만들어봅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몸소 칠감을 얻어다 벗겨진 곳들에 색칠을 하셨구 면판과 배트에 난 흠집들은 줄칼로 갈구어 연마기로 완성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6호선반은 불비하던 모든 개소들이 새 모습으로 변모됐습니다. 한 점의 흠집, 한 점의 티도 없는 새 기대로 됐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반을 원상복구하신 다음에는 나사틀개며 각종 스빠나와 뻰찌, 포금망치와 같은 각종 공구들을 하나하나 손수 만드시어 텅 비어 있던 공구함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26호선반에 지펴주신 원상복구를 위한 혁신의 불길은 공장의 모든 기대들에 번져져 새 것처럼 만들어지게 됐고 대중적인 공구갖추기운동이 세차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기대를 새 것처럼 만들고 공구를 그쯘하게 갖추어 놓으니 생산은 날마다 쑥쑥 올라갔습니다. 모범기대창조운동은 바로 이렇게 발단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펴 올리신 모범기대창조운동은 로동자들로 하여금 기대관리에서 주인된 자각을 높이고 일본새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운동은 그후 전국적으로 힘있게 벌어진 ≪26호선반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의 시원으로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편 공장의 관리운영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구 개선

대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이 공장에서는 오래 전에 제정한 노동기준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능수준이 높아진 노동자들의 창발성을 오히려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실례로 한 개의 제품을 가공하는 데 몇 분밖에 안걸리는 것을 20분이라는 기준시간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전반실태를 요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일꾼들에게 노동자들의 평균기능수준을 고려해서 노동정량을 다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계기로 공장관리운영사업 전반을 구체적으로 요해 연구하시고 작업반장과 직장장, 공장관리일꾼들의 임무와 공장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를 세세히 가르쳐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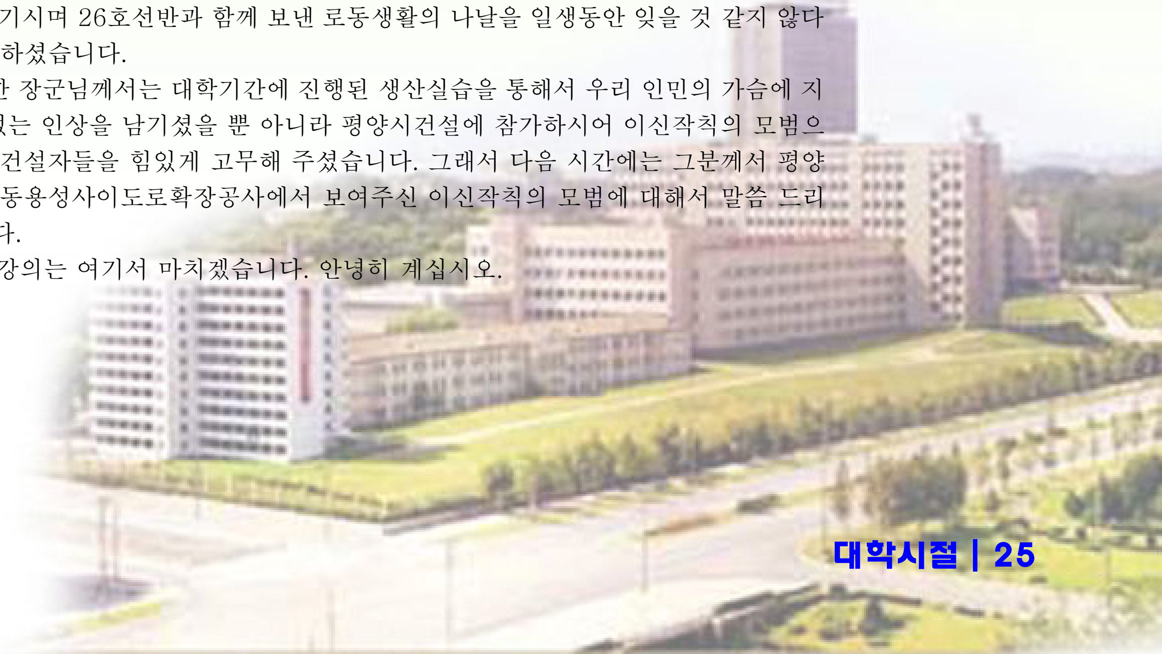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또한 몸소 기술혁신의 앞장에 서시어 노동자들의 가슴에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셨습니다. 당시 26호선반을 가지고서는 고속도강력절삭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칼날같이 뻗어나가는 절삭밥이 뒤엉키면서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몸소 그 위험한 고속도강력절삭을 해 보시면서 바이트를 개조해서 위험도 없애고 생산도 높일 수 있는 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묘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이트의 절삭날 각도를 크게 하고 안내홈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안에 따라 바이트를 개조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처럼 사납게 날뛰던 절삭밥들이 순한 양처럼 길들여져서 안내홈을 따라 고르롭게 밀려나왔고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기대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6호선반에서는 그것이 생겨서 처음으로 최고의 실적을 내게 됐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기대공들에게 자기 맡은 기대에 정통하며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해서 자동화해야 하겠다는 열의를 북돋아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산실습기간에 또한 노동자들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다심하고 인정 깊은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로동자들의 합숙을 찾으시어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5.1절에는 온 공장이 양각도에서 즐거운 야유회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배구경기를 조직하시어 온 공장이 떠나갈 듯이 분위기도 높여 주셨구 노래가 있어야 일터가 흥성거린다고 하시면서 노동자들의 예술소조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공장에는 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에게 부모형제를 다 잃은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헤아려보시고 그들의 혈육을 찾아주시기 위해 무척 애를 쓰셨습니다. 전쟁 때 형과 헤어진 한나 어린 선반공에게 형을 찾아주시려고 하루일을 마치고 댁으로 오시어서는 여러 곳에 전화를 거시어 이름밖에 모르는 사람을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밤이 깊도록 그와 마주앉아 편지초안을 만들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의 형을 찾아주신데 이어 불과 며칠 사이에 또다시 다섯 명의 로동자들에게 잃었던 혈육을 찾아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인품과 뜨거운 사랑에 감동된 노동자들은 그분을 친형제와 같이 따르고 존경해 마지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이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깊은 감회에 잠기시며 26호선반과 함께 보낸 로동생활의 나날을 일생동안 잊을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기간에 진행된 생산실습을 통해서 우리 인민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기셨을 뿐 아니라 평양시건설에 참가하시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학생건설자들을 힘있게 고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분께서 평양시 와산동용성사이도로확장공사에서 보여주신 이신작칙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작칙 2

박상욱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기 들끓는 현실 속에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청년대학생들을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주체50(1961)년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약 20일간 당시의 평양방직기계제작소에서 진행된 생산실습에 참가하신 데 대해서 보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생산실습에 이어 그해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평양시 와산동용성사이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공사에 참가하신 첫날부터 마지막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청년대학생들의 앞장에 서시어 그들을 힘있게 이끌어주셨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산동용성사이도로확장공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0(1961)년 9월에 있게 될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를 앞두고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아름답고 웅장하게 꾸리기 위해 선정해 주신 공사대상의 하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전체 학생들을 궐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공사 전기간 학생건설자들 속에서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고 기계화를 적극 받아들여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사 전반을 지휘하시면서두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시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청년대학생들을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 나가시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사 첫날부터 어려운 작업에 한 몸을 잠그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웃동을 벗어제끼시고 하루종일 메질도 하시고 목고채가 휘도록 흙을 가득히 퍼담아 메시고는 쉼없이 달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으시어 작업에 착수한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3인2조목고를 발기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네 사람 몫을 감당하는 이 방법은 여간만 힘겹지 않았으나 그이께서는 단 한 번도 목고채를 어깨에서 내려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 학생건설자들이 한 두 삽이라도 흙을 적게 담으려고 하면 어서 더 담으라고 이르곤 하셨습니다. 그이의 부어오른 어깨를 보며 동무들이 근심스런 낯색을 지으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이 목고를 할 때는 그래도 목고채를 몇 개씩 꺾어먹을 생각을 해야지 어깨가 아프다고 갑살하게 메고 달랑달랑 다닐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목고하다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라고 롱담을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생건설자들과 함께 로동의 기쁨과 보람을 한껏 느끼시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학생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온 건설장에 희열과 랑만이 차 넘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댁에 찾아간 대학의 한 일꾼이 어버이 수령님께 **김정일**동지의 어깨가 붓고 여러 번 벗겨졌다고 걱정스럽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를 미덥게 바라보시며 젊은 시절의 고생은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단단히 단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고 솔선수범을 보이시면서 학생건설자들을 계속 힘있게 떠밀어나가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도 작업의 능률을 높이면서도 일은 헐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을 적극 추동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작업 첫 시기에 통나무로 기중기를 만들어 등짐을 대신하게 하시는 수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이께서는 공사 전반을 언제나 깊이 헤아려보시고 가장 걸리고 있는 부문에 찾아가시어 그를 해결해 주시어 공사가 전반적으로 빨리 진척되어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당시 도로공사전반을 다그치는 데서 선차적으로 해야 할 것이 오수관공사였습니다. 이 오수관공사를 위해서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굴착기를 가지고 나와 대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굴착기로 구뎅이를 얼마나 빨리 파는가에 전반적인 공사를 계획대로 내미는가 못 미는가 하는 문제가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뎅이를 파나가던 굴착기가 진탕에 빠져 일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사 전반을 헤아려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곧 그곳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무한궤도 밑을 이러저리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맥을 놓고 앉아있는 군인들에게 굴착기가 멈춰서면 공사 전반이 지장을 받게 되는 데 이렇게 맥놓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함께 대책을 세워보자고 하셨습니다. 군인들로부터 무한궤도 밑에 침목을 깔면 된다는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침목을 깔고 작업하면 굴착기가 빠지는 일도 없구 운전하기에도 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가서 침목을 가져오겠다는 군인들을 만류하시고 자신께서 구해보겠다고 하시며 곧 자리를 뜨셨습니다. 군인들은 아마도 그이께서 현장지휘부에 들려 침목이 있음직한 데다 전화로 부탁을 하시고 그러느라면 적어도 반나절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경적소리를 울리며 침목을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운전칸 문이 열리며 작업복이 한 소나기를 맞은 듯 땀에 푹 젖으신 장군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군인들의 가슴은 크나큰 감동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마음의 충격으로 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군인들의 등을 밀어 곧 침목을 부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어린 군인을 도와 침목을 함께 메어 나르셨습니다. 군인들은 침목을 까는 일은 저희들끼리 하겠으니 장군님께서 어서 떠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굳이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시며

≪이러지들 마시오, 동무들이 하는 일을 나라고 못하겠습니까. 사람은 무슨 일이나 다 해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모두 달라붙어 제꺽 끝내고 다 함께 쉬자고, 그



래야 쉬는 재미도 더 있다고 하시면서 발목까지 빠지는 진창 속에 들어가셔서 침목을 깔아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굴착기는 침목 위에서 다시금 용을 쓰며 땅을 파제끼게 됐습니다. 굴착기의 작업모습을 보시고서야 그곳을 떠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곧 잠시의 휴식도 없이 다른 작업장으로 향하셨습니다. 군인들과 학생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숭고한 모습을 보면서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혁명적 신념을 더욱 굳히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시 보여주신 이신작칙의 모범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간혹 먼 화물역에 가서 급히 물동을 운반해와야 할 일이 생기면 점심밥곽을 열으셨다가도 수저를 놓으신 채 남먼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서슴없이 오르셨습니다. 또 굴착기가 고장나 돌아가지 못할 때에는 그 육중한 부속품을 기계공장에 손수 가지고 가시어 수리해 오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분께서 보여주신 이신작칙의 모범은 도로공사에서 언제나 학생건설자들을 위훈에로 이끄는 투쟁의 기치로, 깃발로 됐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더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는데 갑자기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파놓은 오수관선에 눈 깜짝할 사이에 물이 절반이상 차 올랐습니다. 당장 물길을 내지 않으면 한 길 이상 파놓은 오수관선이 다 허물어지고 작업 중에 있던 굴착기도 물 속에 잠기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일하던 다른 사람들은 비가 쏟아진다고 다 철수했고 작업장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몇 몇 인원만 남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남은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까지 들어가면 지금까지 파놓은 오수관선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게 되니 여기에 물길을 내자고 하시면서 자신의 뒤를 따르라고 하시고는 곡괭이를 쳐드시고 물 속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사람들도 연달아 물 속에 들어섰습니다. 그분께서는 얼굴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손으로 훔치시며 세차게 곡괭이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은 자꾸 불어나 허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일손을 멈추시고 기운들을 내라고, 이런 때엔 노래를 불러야 힘이 난다고 하시며 혁명가요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공사장에는 힘찬 혁명가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비를 피해 작업장을 떴던 다른 사람들이 공사장에서 난데없이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에 큰 충격을 받고 모두 작업장으로 달려와 일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건설자들은 몇 시간 동안의 긴장한 작업 끝에 물길을 열고 마침내 오수관선을 빗물의 피해로부터 구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이신작칙의 모범과 정력적인 지도로 학생건설자들을 이끌어주시어 공사장에서는 날에 날마다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됐습니다.

이상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와산동용성사이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여 보여주신 이신작칙의 모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이께서 보여주신 이신작칙의 모범적인 사실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그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어드시고 어깨가 붓고 잔등이 햇볕에 타서 몇 번이나 벗어지면서도 손에서 곡괭이나 목고채를 놓지 않으신 그 소행의 기초에 무엇이 놓여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인간이시고 그토록 힘겹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누가 탓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이께서 어버이 수령님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를 절대성의 정신으로 받들어나가시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계신 데 기인됩니다. 이미 말씀 드렸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젊은 시절의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고, 제일 힘든 일을 하라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말씀을 명심하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에나 어버이 수령님의 말씀을 철의 의지로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을 이끄시기에 우리 조국은 모진 광풍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한 길로 굳세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사야영훈련에 참가하여 보여주신 이신작칙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작칙 3

박상욱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1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청년학생들을 사회주의건설의 현실 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되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신 데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주로 평양방직기계제작소에서의 생산실습과 평양시 와산동용성사이도로확장공사에 참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떻게 청년대학생들을 이끌어주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시에 또한 군사야영훈련에도 적극 참가하셔서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숭고한 모범으로 야영생들을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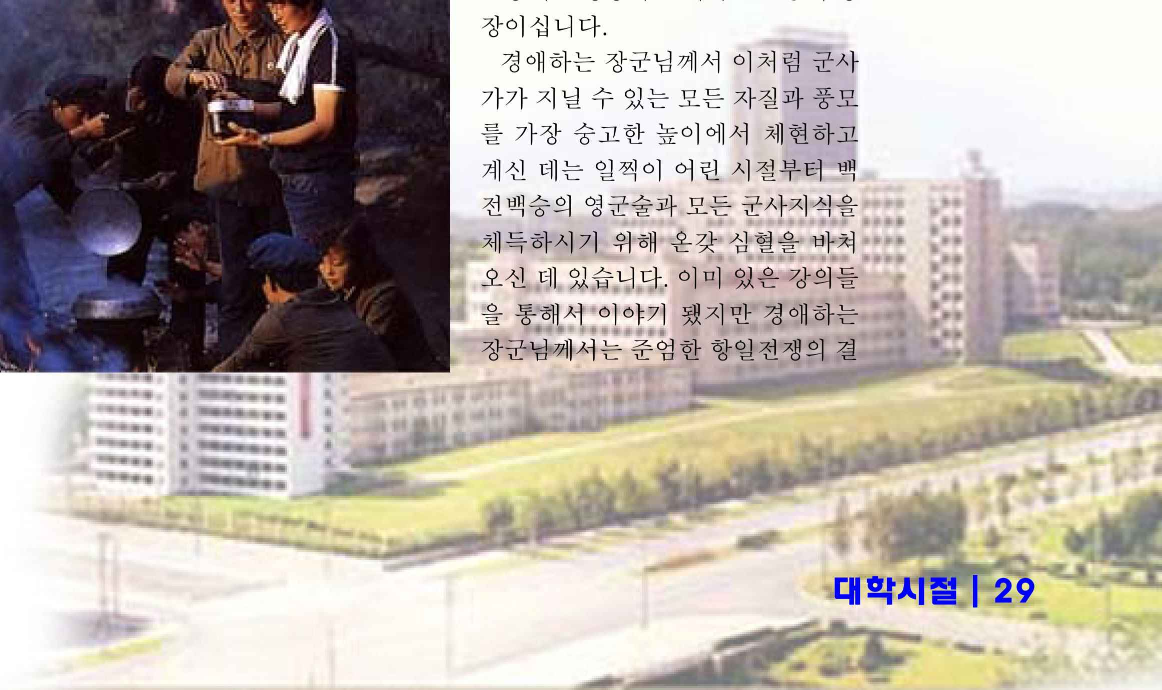
≪혁명을 하자면 군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현시대의 정치가는 문무를 겸비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군사가가 지닐 수 있는 모든 자질과 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위대한 영장으로 명성을 떨치고 계십니다. 군사지략이나 전법이 비범하심은 더 이를 데 없고 뛰어난 지휘력과 전투기술기재에 능통하심은 그 어느 명장에 비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의 지적능력과 활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장군들을 보더라도 보병을 잘 알면 땅크를 잘 모르고 땅크에 박식하면 비행기에 무식하고 비행기에 능통하면 함선에는 어두웠습니다. 그렇지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그 한계를 모르는 분이십니다. 실례로 비행사들이나 항공지휘관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신화에 나오는 신통력을 지니신 위인이시라고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위급한 정황 속에서도 하늘의 조화를 꿰뚫어보시고 비행지휘를 능숙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땅크병들은 그들대로 땅크에 정통하고 계시는 그이의 비범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격장에 가시면 그분의 사격술이 놀랍다 못해 너무도 신기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대포면 대포, 함선이면 함선, 통신이면 통신, 그분께서는 그 어느 병종이나 군종에도 정통하고 계시는 만능의 영장이십니다.


군사야영훈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처럼 군사가가 지닐 수 있는 모든 자질과 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신 데는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백전백승의 영군술과 모든 군사지식을 체득하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바쳐오신 데 있습니다. 이미 있은 강의들을 통해서 이야기 됐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항일전쟁의 결



전장에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례없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첨예한 사변들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에 장군님께서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전쟁의 온상은 존재하며 따라서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처해서 군사적으로도 튼튼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런 확신에 기초하셔서 일찍부터 비범한 예지로 군사지식을 습득하시어 대학시절에 이르러서는 군사전문가들도 따를 수 없는 상상봉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사야영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그이께서 당시에 보여주신 이신작칙의 모범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시에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법 그리고 군사행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정통하도록 대학생들과 군사교관들을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군사야영기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사교관들과 야영생들에게 노동계급의 혁명무력건설원칙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전법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사적 식견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동서고금에 이름난 격전들과 전법들 그리고 수많은 요새들을 비롯한 군사시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그 우단점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군사교관들과 야영생들은 모든 전쟁과 전투들 그리고 현대전의 모든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내리시는 그분의 뛰어난 군사사상에 모두 경탄을 금치 못해 했습니다. 그이께서 지니고 계시는 군사사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의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전개하지 않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때 대학생들과 군사교관들을 끊임없이 깨우쳐주시고 이끌어주신 많은 사실들 가운데서 한 가지 사실만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영훈련이 계속되던 어느 날 휴식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야영생들 가운데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들은 휴식시간을 리용해서 전쟁승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화제에 올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군사리론에 밝다고 하는 한 야영생이 선행고전가들이 내놓은 리론을 잘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반드시 공고한 후방과 잘 갖추어진 무장을 가져야 하고 군대의 도덕적 품성과 사단의 질이 좋아야 하며 지휘관의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요인들 가운데서 공고한 후방은 항구적인 요인인데 바로 그것이 전쟁승리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덧붙였습니다. 모두들 그의 이야기가 그럴 듯 하다고 공감해 나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시기 고전가들은 전쟁승리의 요인을 항구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항구적인 것을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했는데 오늘의 견지에서 보면 그 견해는 제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선행고전가들은 전쟁승리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따라서 전쟁승리에서 노는 내적요인의 결정적 역할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셔서 전쟁에는 내적요인과 함께 외적인 요인도 작용한다, 그러나 전쟁승리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전쟁을 수행하는 나라의 내부역량이며 외부의 지원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인인 내부역량 가운데서도 사람이 전쟁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전쟁법칙에 적용하시어 승리의 요인을 명철하게 분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위에서 실례를 든 전쟁승리의 요인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든 군사문제들을 기성리론에 구애됨이 없이 그리고 세계전쟁역사에 기록된 모든 것들에 대한 해박한 군사적 식견에 기초하시어 독창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당시 그분께서 밝혀



주신 군사사상과 리론, 주체전법들은 노동계급의 당의 군사리론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됐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야영훈련 전 기간 전술과 사격훈련에서도 언제나 야영생들의 앞장에 서시였습니다. 그분의 사격술이 매우 비상하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격술은 능숙하다든가 신기하다든가 하는 말로써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신비의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야영훈련을 총화하는 실탄사격에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신묘한 사격술을 보여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야영훈련을 진행하시는 나날에 군사규정의 요구대로 훈련에 참가하시고 제정된 일과대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느 야영생들과 다름없는 꼭같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사실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야영훈련초기 일꾼들과 야영생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조용한 병실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군사야영기간에는 자신도 훈련소의 한 훈련생이라고 하시면서 이 기간에 아침기상으로부터 저녁취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과생활을 일과표대로 동무들과 함께 하면서 보초도 서고 식당근무에도 나가 밥을 지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야영생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꼭같이 일과생활에 참가하셨습니다. 일꾼들과 야영생들은 그분을 딴 방에 모시지 못해 몹시 죄송스러워 하다가 식사만이라도 따로 보장해 드리기로 의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따로 차려 가져간 식사를 감기 때문에 입맛을 잃은 동무에게 돌리시구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야영생이 해야 할 일이라면 궂은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찾아하셨습니다. 소대 앞에 식당근무가 차려지면 선참으로 위생복을 입고 나서시어서는 국거리를 다듬는 일,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일, 부엌 아궁이에서 석탄재를 파내는 일 등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밥물을 보시면 밥이 질지도 되지도 않아 먹기 좋다고 평판이 자자했고 국을 엄청나게 많이 끓여도 덧국을 요청했고 그래서 국가마의 취사성원들의 몫이 남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이께서는 야영훈련 전 기간 평범한 야영생이 되시어 오직 하나의 규률 속에 소박하게 생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야영훈련 나날 생활을 락천적으로 하도록 야영생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셨습니다. 그 실례의 하나가 악기를 자체로 만들어 오언동 골 안을 노래소리로 차 넘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던 항일투사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적탄이 우박치는 고지에서 화선악기를 만들던 전쟁시기 우리 인민군 용사들의 혁명적인 락관주의정신을 본받아 야영생활기간 자체의 힘으로 악기를 만들어보자고 야영생들을 적극 고무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피리와 단소를 만들도록 하시고 이어서 현악기도 만들게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점심시간에 쉬지 않으시고 몸소 산에 오르셔서 오동나무 박달나무 홍송같은 나무들을 찍어오셨고 그 나무를 켜서 말리우고 다듬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보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 대피호로 쓰던 갱도에 가셔서 마구 떨어지는 석수 속에서 통신선을 걷어오셔서는 그것으로 악기줄을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우리식의 독특한 민족악기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오언금으로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군사야영훈련기간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전법을 심오히 연구체득하시고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전투구분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훌륭히 갖추신 나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은 숭고한 영장의 풍모를 남김 없이 보여주신 뜻깊은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생들의 학습과 대학교육내용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에 힘을 다하신 높은 뜻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학교육에서의 주체확립



박상욱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인가 한 청강생으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청년지도자로서 활동하신 내용을 좀더 많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이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위인은 그 누가 내세우거나 만들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인은 자신이 갖추고 있는 뛰어난 자질과 풍모로 하여 만사람이 공인하고 위인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은 대학시절에 벌써 청년지도자로서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장군님께서 그 시기 벌써 비범한 사상리론으로 사상리론계를 크게 뒤흔들어 놓으시고 뛰어난 조직력으로 청년운동을 이끄셨을 뿐 아니라 고매한 덕망으로 만사람을 매혹시키신 걸출한 위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분의 대학시절은 매 하루하루가 청년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빛내이신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벌리신 그분의 활동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그리고 청강생들의 부탁도 있고 해서 우리 강좌에서는 이 시기에 대한 강의를 근 50회라는 비교적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시기에 보여주신 청년지도자로서의 걸출한 영도풍모 가운데서 대학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신 이 부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어떻게 이끄셨으며 그를 통해서 청년지도자로서의 위인상이 어떻게 발현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열 번에 걸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대학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 추신시키신 그분의 높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교육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운다고 할 때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것처럼 교육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을 하나 가르쳐도 우리나라의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리론을 가르치며 자연과학을 가르쳐도 우리나라의 자연을 리용해서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를 가르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혹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 데 교육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자기나라의 것만 배워주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맑스레닌주의 고전보다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 당정책을 많이 가르쳐주며 다른나라의 역사나 지리 보다 우리나라의 역사나 지리를 많이 가르쳐준다는 것이지 다른나라의 것을 가르쳐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더

잘 리해하자면 그 반대의 경우 다시 말해서 교육에서 주체가 서지 않은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대비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것은 배워주지 않으면서 다른나라의 것만 배워주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실례로 강의에서 다른나라의 종파에 대해서는 실례를 들면서도 우리 나라 종파에 대한 실례는 들지 않는다든가 다른나라의 화강석이나 대리석은 알려주면서도 조선의 화강석과 대리석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지 조선혁명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주체가 서지 않는 교육입니다.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혁명을 잘 하자면 교육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사람들을 우리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높은 자질과 능력의 소유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게 된 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연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에 오신 1960년대 초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1950년대 후반기 주체47(1958)년에 이르러 우리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졌습니다. 북반부에서는 1961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이 다그쳐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은 그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더 빨리 키워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육실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교원들과 학자들은 낡은 교육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결과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데서 기성의 리론에 적지 않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든 기성의 리론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성의 리론이나 다른나라의 경험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사회주의공업화 이전에 농업협동화를 먼저 하는 독창적인 노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실현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행이론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를 한 다음 사회주의농업협동화를 해야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 리론을 절대화한 결과 대학의 정치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선행이론의 공식대로 사회주의공업화를 먼저 하고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한 가지 사실을 말씀 드렸지만 그때 교원들과 학자들은 많은 경우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우리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로 해서 선행이론을 해석하고 교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론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풀려고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에 오시어 강의를 받으시는 처음부터 이러한 실태를 환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실태는 학생들의 창조성을 마비시키고 나아가서 그들의 주체적인 세계관확립을 각방으로 저해한다고 인정하시고 곧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시키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다음 강의들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다하신 그 높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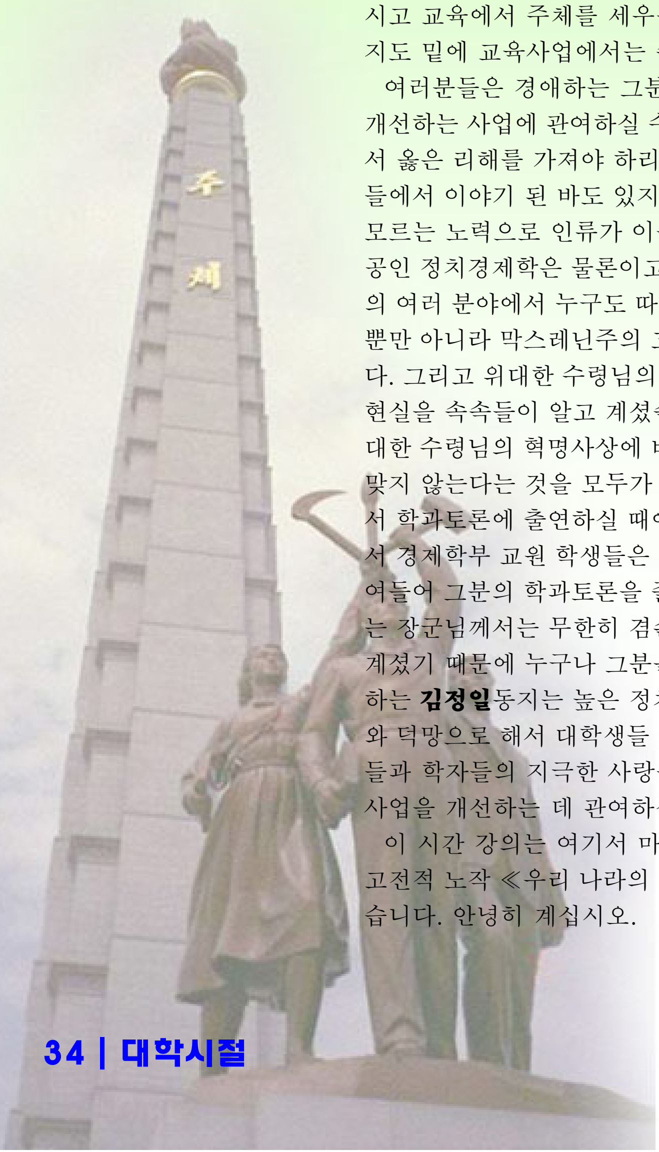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다하시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리념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린 시절에 아버님을 따라 자주 만경대로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어버이 수령님으로부터 만경대 혁명적 가정의 높은 뜻을 배우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어리신 자제분에게 한 걸음을 걸어도 나라를 생각하고 두 걸음을 걸어도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이 땅 위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만경대 고향집의 근본이고 살아가는 목적이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처럼 어리신 시절부터 만경대혁명일가의 고결한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교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중학시절에는 ≪조선혁명을 위하여 배우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드셨습니다. 고중을 졸업하신 다음에는 외국유학을 권고하는 사람들의 권유도 마다하시고 조국에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셔서 조선을 세계의 만방에 빛내일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독학가의 정열로 학습에 열중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이처럼 애국애족의 숭고한 이념을 일찍부터 지니셨기에 대학에 입학하신 처음부터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되셨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신 데는 또한 교육일군들과 대학생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된 자주성이 강한 인간으로 키우시려는 높은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목적은 그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데 있습니다. 위에서도 실례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교육실태는 우리 교육의 목적과 사명으로 볼 때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훗날 당시의 이러한 교육실태를 두고 노동계급적 선이 뚜렷하지 못하고 새 것과 낡은 것이 혼탕된 범벅교육이었다고 가슴 아프게 회상하시었습니다. 범벅교육의 후과, 특히 기성의 리론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가르치는 교육의 실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학생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키워낼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교육실태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깨달으신 분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보시고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셨습니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교육사업에서는 주체를 세우기 위한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애하는 그분께서 대학시절에 학생의 몸이셨는데 어떻게 대학교육을 개선하는 사업에 관여하실 수 있었는가 하고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옳은 리해를 가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미 앞의 강의들에서 이야기 된 바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학업에 열중하셨고 불타는 정열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인류가 이룩한 과학의 상상봉을 점령해 오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전공인 정치경제학은 물론이고 철학과 역사학,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누구도 따르기 어려울 만큼 넓고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스레닌주의 고전에도 정통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환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 변화발전하는 우리의 현실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기에 그분께서는 고전에 나오는 어느 명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비추어 볼 때 그릇된 견해이며 또 어떤 명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리해할 수 있게 하나하나 일깨워주곤 하셨습니다. 그이께서 학과토론에 출연하실 때에는 그 심오한 리론과 풍부한 례증, 해박한 지식에 탄복해서 경제학부 교원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학부의 교원 학생들도 토론회장에 모여들어 그분의 학과토론을 즐겨듣곤 했습니다. 실력면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한히 겸손하시고 인정미가 흘러넘치는 고결한 인간풍모를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나 그분을 따르고 존경해 마지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높은 정치적 식견과 무비의 과학리론적 실력, 고결한 인간적 풍모와 덕망으로 해서 대학생들 속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계셨으며 교수들과 학자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권위는 그이께서 대학교육 사업을 개선하는 데 관여하실 수 있는 주되는 조건으로 됐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 노작 ≪우리 나라의 것을 더 잘 알아야 한다≫를 발표하신 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체의 정치경제학

박상욱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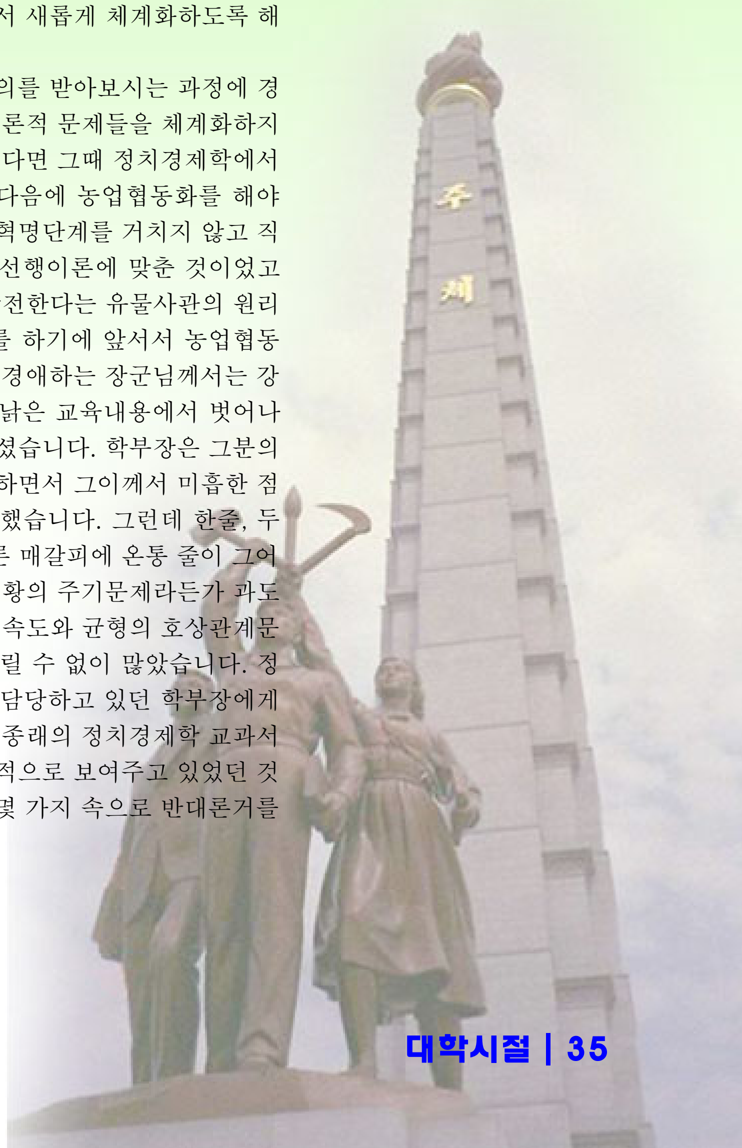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전 시간들에 이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 청년지도자로서 대학생들의 학습과 대학교육내용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신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분께서 전공학과인 정치경제학을 주체적 립장에서 새롭게 체계화하도록 해주신 문제를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배우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전공학과의 교과서를 다시 쓰도록 영향을 주었다면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 학생이야말로 보통 두뇌를 가지지 않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배우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전공학과의 교과서를 고쳐 쓰도록 영향을 주자고 하면 교과서의 잘못된 점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비범한 안목과 과학이론분야나 교육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을 능가하는 해박한 사상리론을 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이시었습니다. 오늘 이름난 정치지도자들이나 사상이론가들이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정치원로로 사상이론의 거장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벌써 10대의 대학시절에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으로 우리의 사상리론계를 크게 뒤흔들어놓으시며 사상이론의 걸출한 위인으로서의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그분께서 전공학과인 정치경제학을 주체적 립장에서 새롭게 체계화하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에 입학하시어 한 1년간 강의를 받아보시는 과정에 경제학이 우리 당정책과 우리나라의 현실에 기초해서 과학리론적 문제들을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실례를 든다면 그때 정치경제학에서는 공업화와 농업협동화문제를 취급하면서 공업화를 한 다음에 농업협동화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 나라들을 염두에 두고 전개한 선행이론에 맞춘 것이었고 생산력이 먼저 발전하고 그에 상응하게 생산관계가 변화발전한다는 유물사관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업화를 하기에 앞서서 농업협동화를 먼저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례에 불과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의를 받으시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거나 낡은 교육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때마다 의견을 제기하곤 하셨습니다. 학부장은 그분의 의견을 받을 때마다 그 예리한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이께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대목마다 교과서에 밑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줄, 두줄 늘기 시작한 밑줄이 1년이 지나서는 모든 장과 절은 물론 매갈피에 온통 줄이 그어지게 됐습니다. 자본주의체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경제공황의 주기문제라든가 과도기의 기본특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와 균형의 호상관계문제, 참으로 그분께서 새롭게 가르쳐주신 대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정치경제학 교재집필에 참가했을 뿐 아니라 그 강의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학부장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종래의 정치경제학 교과서가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을 더 론의할 여지없이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학부장도 그분께서 의견을 제기하실 때마다 몇 가지 속으로 반대론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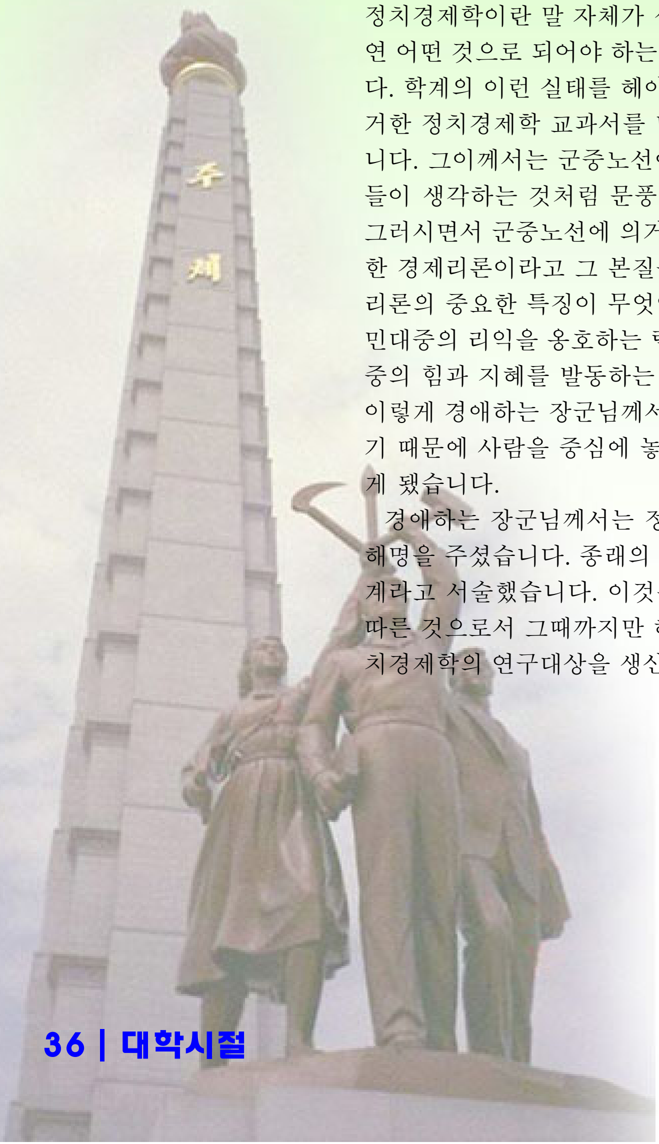




세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른나라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도 그렇게 했다는 론거 외에 다른 론거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학부장은 심각한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후 교원 학자집단에서는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놓고 많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토론의 범위는 더욱 광범한 학계로 번져가면서 심화됐습니다. 그 과정에 교과서를 부분적으로 개조할 것이 아니라 첫 장부터 마감장까지 완전히 새롭게 편찬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안전기공장당위원회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군중노선에 의거한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만들 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고 군중노선에 의거한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 교재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대로 잘 되어 나갈 수 있게 하는 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셨습니다. 그때 교원 학자들이 새 교과서를 만들자고 보니 군중노선에 의거한 정치경제학이란 말 자체가 생소한 것이어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과연 어떤 것으로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해답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학계의 이런 실태를 헤아리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날 군중노선에 의거한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만들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원들과 의견을 나누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군중노선에 의거한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풍이나 바로잡는 것으로 리해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군중노선에 의거한 경제리론은 다름 아닌 우리당 군중노선의 요구를 구현한 경제리론이라고 그 본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군중노선에 의거한 경제리론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그것은 경제건설에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립장을 견지하는 것이며 경제과업을 해결하는 데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방법에 의거하는 것이라고 명철한 분석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중노선에 의거한 경제리론의 본질과 특징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에 놓고 경제리론을 연구하고 전개하는 주체적인 방법론이 서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해명을 주셨습니다. 종래의 정치경제학 교과서에는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은 생산관계라고 서술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에 대한 고전의 명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맑스와 엥겔스는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을 생산관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전면에 제기했습니다.



레닌은 정치경제학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적 생산의 경리형태에 관한 과학이라고 함으로써 생산관계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스딸린도 정치경제학의 대상은 사람들의 생산관계, 경제관계라는 것을 찍어서 강조했습니다. 선행고전가들의 이런 규정대로 한다면 정치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라든가 ≪공업화≫ 그리고 ≪기술혁명≫과 같은 문제들은 취급하기가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제들은 생산관계가 아니라 생산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고전가들의 명제를 절대화하면서 정치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자립경제라든가 공업화, 기술혁명 같은 것을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나라의 학자는 자본주의경제학에서는 생산관계를 연구하지만 사회주의정치경제학에서는 생산력의 합리적 조직을 연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을 옳게 밝히는 문제는 정치경제학 서술에서 해답을 요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철한 해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에 대한 고전가들의 규정을 기정사실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음미하는 방향에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정치경제학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개척해나가는 합법칙적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견지에서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을 다시 토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치경제학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개척해나가는 합법칙적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밝혀주심으로써 물질위주의 견지에서 규정한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을 사람위주의 견지에서 새롭게 규정하도록 그 방법론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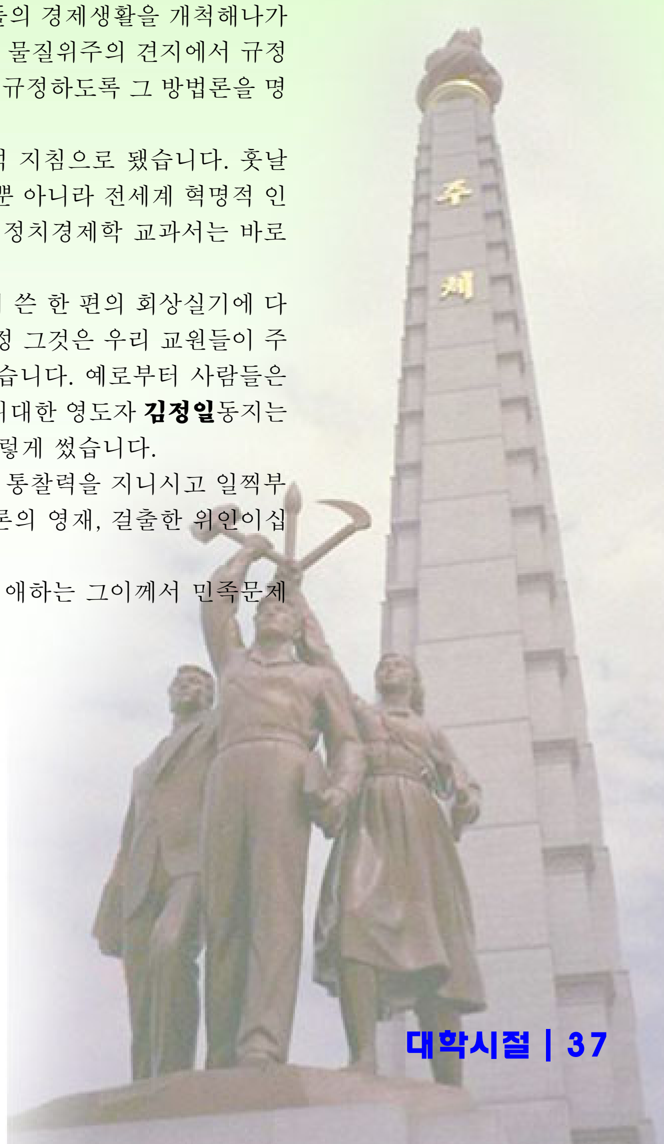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새 교재집필에서 강령적 지침으로 됐습니다. 훗날 우리의 모든 대학들, 간부양성기관들에서 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세계 혁명적 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체적인 정치경제학 교과서는 바로 이렇게 집필되게 됐습니다.

그때 새 교재집필에 참가했던 학부장은 이때를 회상해서 쓴 한 편의 회상실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새로운 정치경제학 교재의 집필과정 그것은 우리 교원들이 주체교육의 참다운 길에 들어서는 훌륭한 배움의 나날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일러왔습니다. 진정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교원 학자들의 위대하고 영명한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을 지니시고 일찍부터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주체적으로 이끌어오신 사상이론의 영재,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민족문제에 주체적인 해답을 주신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역사연구에서의 주체적 방법론

박상욱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신 데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민족문제에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해답을 주신데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조선역사연구에서 주체의 방법론을 견지하도록 이끄신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대학생들을 참다운 애국자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떠메고 나갈 혁명인재로, 민족간부로 키우자면 뭐니뭐니해도 자기나라 역사부터 똑바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시고 지난날 사대주의사가들에 의해 왜곡됐던 역사문제들을 바로 잡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당시 대학에서는 조선역사를 취급하는 강의들에서 지난날 사대주의사가들이 써놓은 사료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이 없이 강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으로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민족사서술에서 왜곡됐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역사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언제나 주체적 립장을 견지할 데 대해 강조하시면서 실천으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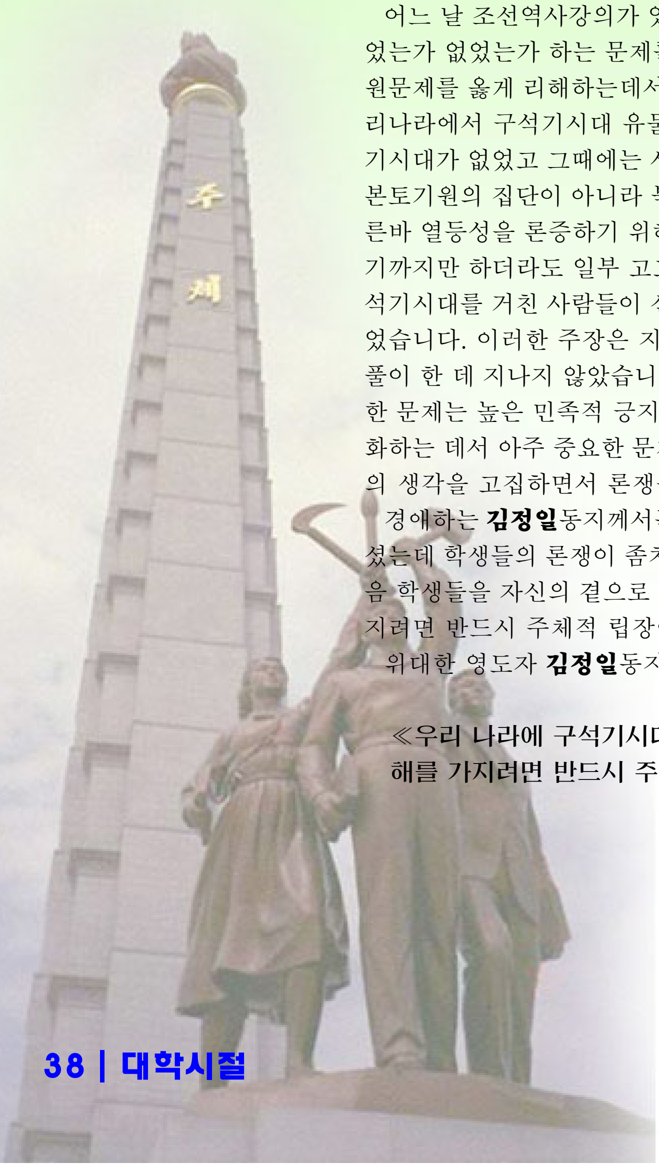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에 오신 직후에 있은 사실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조선역사강의가 있은 다음 대학생들 속에서는 우리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론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조선사람의 기원문제를 옳게 리해하는데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난날 일제어용사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굴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해서 조선에는 원래 구석기시대가 없었고 그때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사람은 본토기원의 집단이 아니라 북방계통의 이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민족의 이른바 열등성을 론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민 날조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고고학자들은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굴된 이웃나라에서 구석기시대를 거친 사람들이 신석기시대에 조선반도지역으로 옮겨와 산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날 일제어용학자들이 들고 나왔던 반동적인 궤변을 되풀이 한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구석기시대 존재여부에 관한 문제는 높은 민족적 긍지를 가지는 데서나 또 민족사서술을 주체적 립장에서 체계화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이 문제를 놓고 저마끔 제 나름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론쟁을 격렬하게 벌려놓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때 다른 중요한 사업으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학생들의 론쟁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을 아시고 어느 날 강의가 끝난 다음 학생들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지려면 반드시 주체적 립장에서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고 그들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리해를 가지려면 반드시 주체적 립장에서 고찰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부 고고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나라에는 구석기시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론적으로 그릇된 견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런 주장이 과학이론적으로 그릇된 것이라는 론거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드셨습니다. 첫째로는 옛날 우리 선조들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주변나라들의 여러 곳에서 이미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적지 않게 발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에서만 구석기시대의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리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먼 옛날의 우리나라 자연기후조건과 비슷한 지역들에서 구석기시대 유물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구석기시대가 있었으며 그때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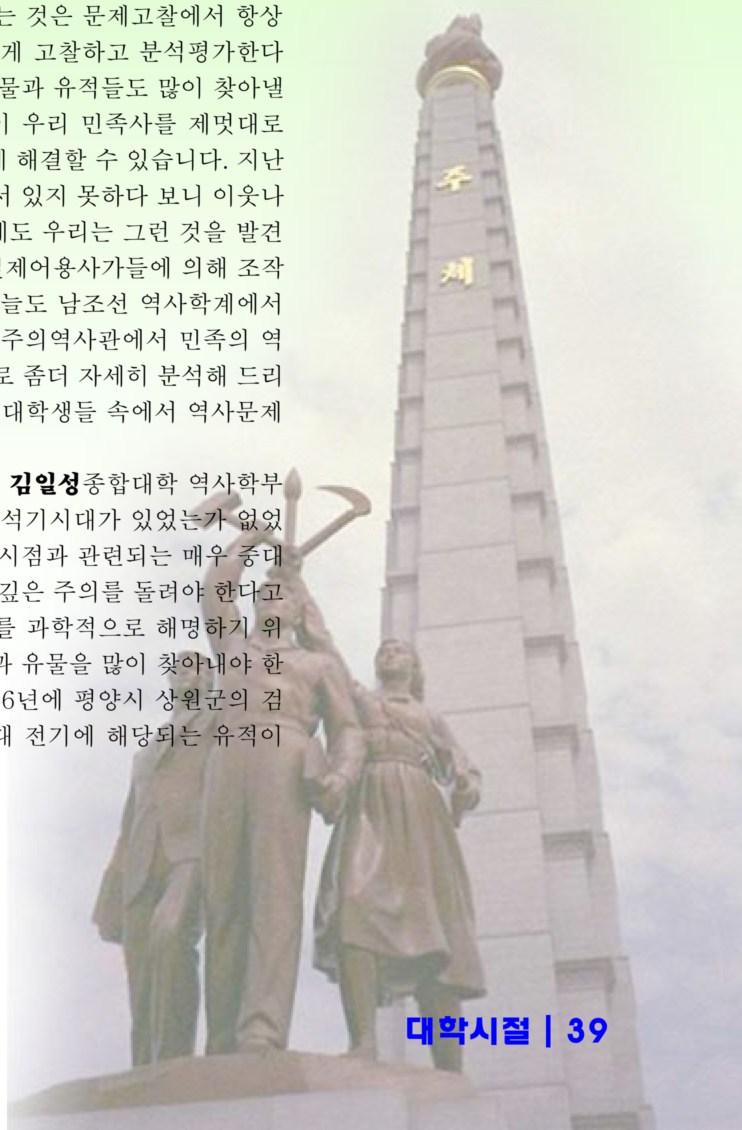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론거를 드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구석기시대문제는 아직 구석기시대 유적들이 발굴되지 않았을 뿐이지 태고적부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구석기시대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해 놓고 신석기시대에 들어와서 다른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주해 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문제를 그런 식으로 고찰하면 결국 조선민족이 다른나라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역사문제고찰에서의 주체적 립장에 관한 빛나는 모범을 보게 됩니다. 역사연구에서 주체적 립장을 지킨다는 것은 문제고찰에서 항상 조선혁명을 중심에 놓고 우리민족, 우리인민의 리익에 맞게 고찰하고 분석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립장에 서야 구석기시대의 유물과 유적들도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주의사가들과 대국주의사가들이 우리 민족사를 제멋대로 왜곡하는 데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맞서 옳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주체적 립장이 튼튼히 서 있지 못하다 보니 이웃나라들에서는 구석기시대의 유물을 적지 않게 발굴해 냈는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발견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뿐 아니라 더욱 엄중하게는 일제어용사가들에 의해 조작된 반동적인 궤변을 되풀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남조선 역사학계에서는 우리 민족사고찰에서 주체적 립장에 서지 못하고 사대주의역사관에서 민족의 역사를 고찰하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자세히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대학생들 속에서 역사문제고찰에서의 주체적 립장에 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이에만 그치지 않으시고 1960년 11월10일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교원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석상에서 우리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는 조선사람의 기원문제, 우리나라 역사의 시점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만큼 앞으로 역사학계에서 이 문제해명에 더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광범한 군중을 이 사업에 불러일으켜 구석기시대 유적과 유물을 많이 찾아내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5년후인 1966년에 평양시 상원군의 검은모루라는 데서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전의 구석기시대 전기에 해당되는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1977년 9월에는 평양시 역포구역 대현동에서 구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머리뼈화석이 발굴됐고 그보다 앞서 1972년에는 평안남도 덕천군에 있는 유적에서 구석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머리뼈 화석이 발굴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구석기시대 전기 중기 후기에 해당하는 유적 유물이 발굴돼 가지구 우리 나라에는 구석기시대가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과 우리조선사람은 이 땅에서 인류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끊임없이 이어내려온 본토기원의 집단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고증됐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놓고도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일찍부터 역사과학분야에서까지도 높은 정치적 안목과 역사문제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지니시고 민족사서술을 주체성 있게 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스승이시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문제고찰에서의 주체적 립장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에 기초해서 주체적인 역사연구방법론을 세워주셨습니다. 역사연구방법론이란 역사적 사건과 사실들을 분석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견지해야 할 일반적 원칙과 과학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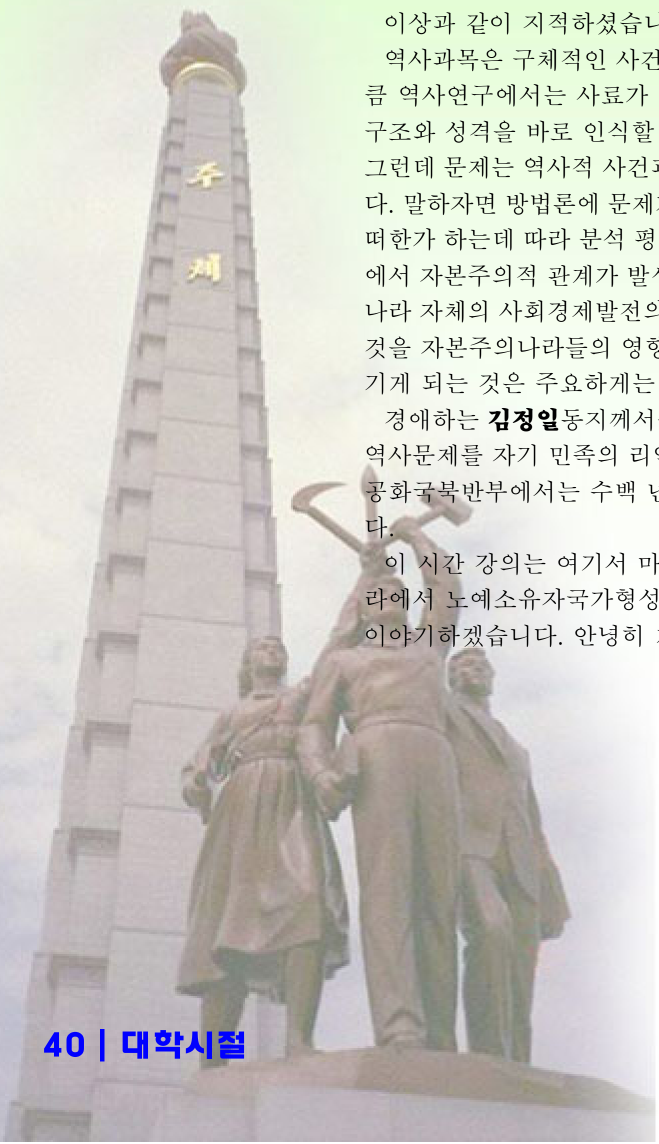
≪역사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자면 구체적인 사료와 함께 옳은 방법론이 안받침되어야 합니다. 풍부한 사료와 옳은 방법론은 역사연구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법론은 다름 아닌 주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역사과목은 구체적인 사건과 사실을 발전사적으로 엮어놓은 과목입니다. 그런 것만큼 역사연구에서는 사료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료들을 모르고서는 당대 사회의 구조와 성격을 바로 인식할 수 없고 그 사회의 발전정도를 바로 리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론증하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법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도 그 방법론이 어떠한가 하는데 따라 분석 평가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례컨대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생발전해온 데 대해서 북반부 역사학계에서는 그것을 우리나라 자체의 사회경제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으로 보고 있지만 남조선 어용사가들은 그것을 자본주의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은 주요하게는 역사관의 차이, 역사연구방법론의 차이에 기인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역사연구에서 풍부한 사료와 함께 옳은 방법론에 따라 역사문제를 자기 민족의 리익에 맞게 주체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심으로 해서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수백 년을 내려오던 사대주의적인 역사관을 털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노예소유자국가형성문제를 주체적 립장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주신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의 부당성

박상욱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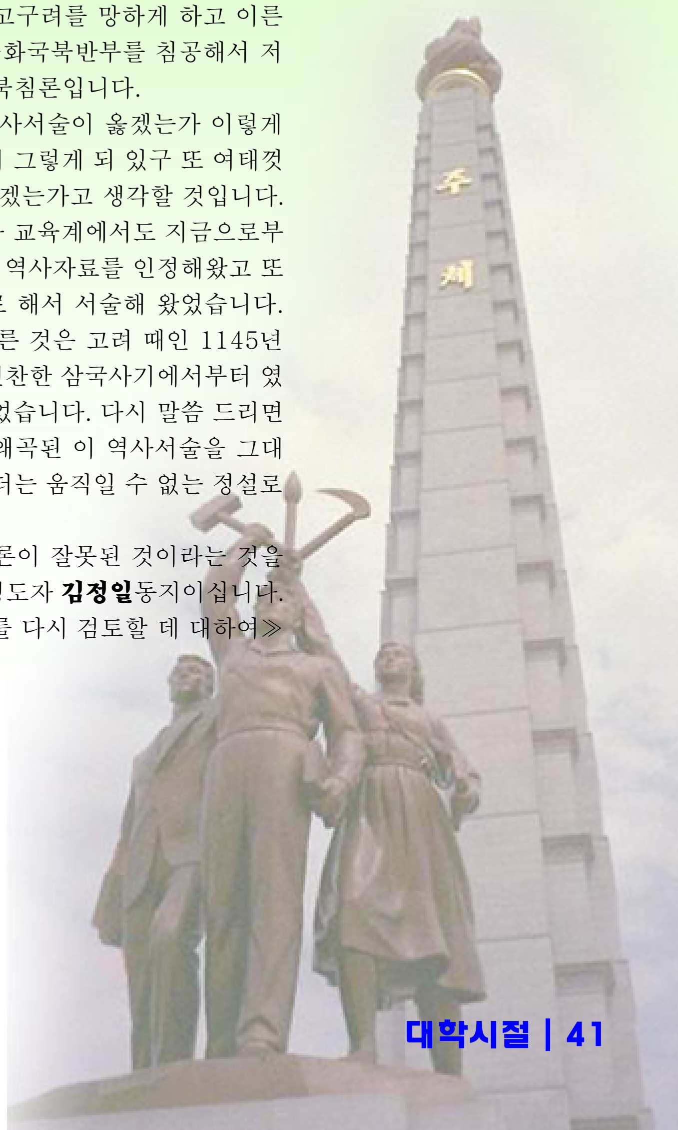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우리민족사를 주체적 립장에서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노예소유자국가 형성문제를 주체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명해 주신 데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49(1960)년 10월29일에 발표하신 논문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 데 대하여≫ 여기에서 신라에 의해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통일되었다고 보는 견해의 부당성을 논증하신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조선 역사학계에서는 일부 어용사학자들에 의해 신라가 고구려까지를 포함한 삼국통일을 실현하였다고 의연히 주장을 하면서 우리민족사서술에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신라중심으로 해석하고 있고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엮어놓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강토에서 민족적 통합은 신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허황한 주장도 나오고 있고 더욱이 엄중한 것은 남조선의 역대괴뢰통치배들 속에서 신라식통일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라식통일론이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때 신라통치배들이 자기 힘으로써는 고구려를 없애지 못하겠으니까 당나라 침략자들을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망하게 하고 이른바 삼국통일을 실현한 것처럼 상전인 미국을 등에 업구 공화국북반부를 침공해서 저들의 주도하에 통일을 실현해 보겠다는 남조선괴뢰들의 북침론입니다.

그러면 과연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되었다고 보는 역사서술이 옳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야 오랜 역사기록이 그렇게 되 있구 또 여태껏 우리가 그렇게 배워온 것인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는가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공화국북반부의 역사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까지는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됐다고 하는 역사자료를 인정해왔고 또 7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우리나라 역사를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해 왔었습니다.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됐다고 하는 것이 역사기록에 오른 것은 고려 때인 1145년에 신라의 귀족문벌가문의 후손인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삼국사기에서부터 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잘못된 역사기록이였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왜곡된 역사서술이였습니다. 하지만 후세의 역사가들은 왜곡된 이 역사서술을 그대로 받아넘기다 보니 그것이 890년간 굳어질 대로 굳어져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정설로 인정되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정설로 굳어져 온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신 분은 사상이론의 거장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 노작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 데 대하여≫



에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해 강조하시면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의 허황성과 그것을 주체적 입장에서 바로 평가할 데 대해 가르쳐주셨습니다. 이것은 학계와 지난 시기 조선역사를 기록한 문헌들에서 그릇되게 전해오던 이른바 신라통일론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나라에서의 첫 통일국가형성문제와 우리민족사발전의 기본흐름을 과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지도적 지침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됐다고 보는 학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어떤 논거를 가지고 증명하셨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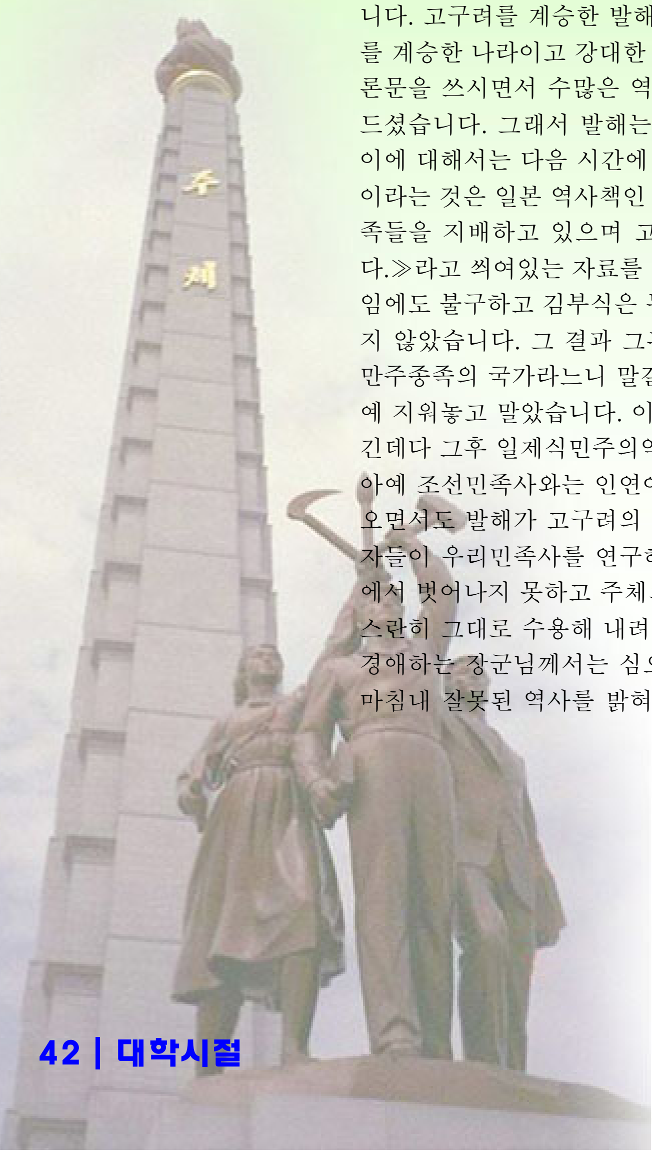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신라가 우리나라에 하나의 통일적인 주권국가를 세우지 못했다는 역사자료를 가지구 신라통일론의 부당성을 론증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노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신라는 당나라 침략자들과 결탁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는 하였으나 우리나라에 하나의 통일적인 주권국가를 세우지는 못하였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 신라는 대동강 이남지역밖에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대동강 이북의 옛 고구려 땅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국이 창건되어 200여년 동안 존재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주권국가인 발해와 신라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신라에 의하여 삼국이 통일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7세기 중엽에 신라는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힘을 빌어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망한 뒤에 신라 주권국가 하나만이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라는 나라가 698년에 생겼습니다. 발해는 엄연히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고 강대한 하나의 주권국가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론문을 쓰시면서 수많은 역사자료들을 탐구하셨습니다. 특히 발해문제에 깊이 파고드셨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것을 해박하게 밝혀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 드리게 되겠습니다.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것은 일본 역사책인 유치국사(892년에 출판된 책입니다)에 ≪발해는 여러 종족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고구려의 풍속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씌여있는 자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발해가 이처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은 통일신라론을 내세우기 위해 발해의 역사를 삼국사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후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와서 일제어용사가들이 발해를 만주종족의 국가라느니 말갈의 국가라느니 하면서 조선역사의 구성에서 발해사를 아예 지워놓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봉건사회 때 사대주의사가에 의해 역사위조가 생긴데다 그후 일제식민주의역사가들까지 또 역사위조를 해 놓았으니 발해라는 나라는 아예 조선민족사와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내려오면서도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우리민족사를 연구해왔지만은 많은 경우에 사대주의역사관, 식민주의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체의 역사관에 튼튼히 서지 못한 데로부터 왜곡된 역사를 고스란히 그대로 수용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사상이론적 예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심오한 탐구와 사색으로 하나하나의 역사자료를 파고드시어 마침내 잘못된 역사를 밝혀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명백한 것처럼 고구려, 백



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 위에 발해와 신라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주권국가가 존재한 사실은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됐다고 말할 수 없는 엄연한 과학적 근거로 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신라가 처음부터 삼국을 통일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삼국을 통일할 만한 힘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의 부당성을 론증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여 우리나라를 강력한 통일국가로 만들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삼국통일을 실현할만한 힘도 없었다. 신라통치배들은 다만 백제와 고구려를 침공하여 영토를 넓히려는 야망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원래 신라는 우리나라 동남부 경상도 일대에서 고구려나 백제보다 썩 뒤에야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구 발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라의 국력은 고구려에는 상대가 안될 만큼 약했습니다. 한가지 실례로 그때 신라의 상비무력이 10만 명 정도였는데 고구려의 상비무력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신라의 군사는 고구려에 비해 3분의 1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영토를 넓히려는 야망이 강했던 신라통치배들은 저들의 야망을 실현하자면 고구려를 쳐야하겠는데 그럴 힘은 없고 하니까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기회를 엿보던 당나라침략세력을 끌어들이는 망동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신라왕 김춘추는 당나라 통치배들과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킬 데 대한 비밀협약을 맺고 이런 흥정을 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 대동강 이남지역은 신라가 차지하고 대동강 이북의 넓은 고구려 땅은 당나라가 차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당비밀협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신라는 당나라와 합세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당나라 중종이 이 협약을 어기고 세 나라를 모두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인민들 모두가 들고일어나 당나라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반침략투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만일 이때 신라가 삼국통일에 대한 지향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었더라면 세 나라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을 잘 이끌어서 외래침략세력을 몰아내고 세 나라를 통일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국통일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신라통치배들은 침략자를 전 영토에서 몰아내려 한 것이 아니라 대동강 이남지역에서만 몰아내고 여기에서 저들의 통치를 유지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역사자료들을 근거로 즉 신라는 애당초 삼국의 통일을 지향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었다는 것을 과학적 근거로 신라통일론의 부당성의 다른 한 측면을 밝혀내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자료들을 놓고 보면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의 사대매국과 민족분열행위들이 신통하게도 신라통치배들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신라식통일을 완강하게 들고 나오는 것이 우연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삼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한 나라는 어느 나라였겠는가, 그것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발해를 취급하면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나라의 첫 통일국가형성

박상욱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전 시간들에 이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민족사를 주체적 립장에서 인식하도록 이끄신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계속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나라 첫 통일국가형성문제를 명철하게 밝혀주신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남조선에서 나온 역사책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첫 통일국가를 일떠세운 것은 신라이고 그후 신라를 계승한 고려에 의해서 민족의 재통일이 실현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라통일설입니다. 과연 신라에 의해서 우리강토 위에 통일국가가 세워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론증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있은 강의에서 전면 취급했습니다. 다음은 고려가 신라를 계승한 나라인가 아니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 고려에 의해서 민족의 재통일이 실현됐다고 보아야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들은 결국 우리민족사에서 고려를 어떤 지위에 놓구 보겠는가 하는 데 귀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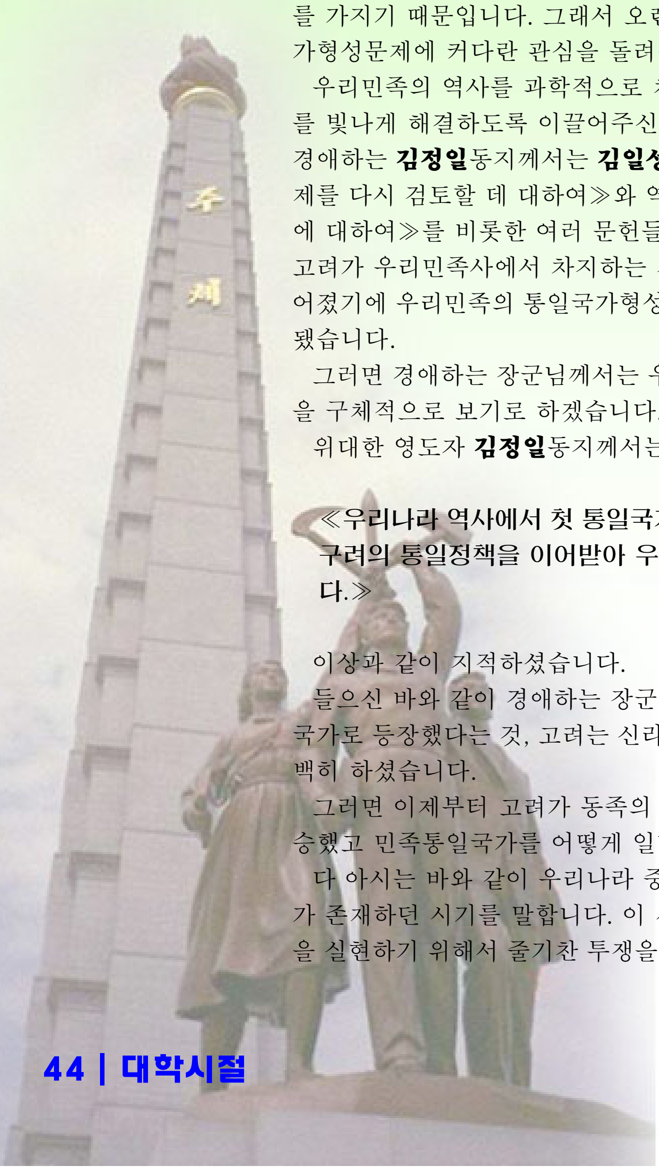
우리민족사에서 고려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통일국가형성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해명하는 것은 우리민족사를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해서 체계화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통일국가의 형성문제는 어느나라 역사에서나 대단히 중요시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민족이 단일한 국가주권 밑에 통일되는 것이 그 민족의 역사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공화국북반부 역사학계에서도 우리민족의 통일국가형성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왔었습니다.

우리민족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함에 있어서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도록 이끌어주신 분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던 1960년대 초기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 데 대하여≫와 역사적인 담화 ≪조선역사학습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이 고전적인 문헌들에서 고려가 우리민족사에서 차지하는 지위문제에 명철한 해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해명이 주어졌기에 우리민족의 통일국가형성에 관한 문제가 비로소 주체적인 시각에서 옳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민족사에서 고려의 지위를 어떻게 보셨겠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 **≪우리나라 역사에서 첫 통일국가로 등장한 것은 신라가 아니라 고려입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통일정책을 이어받아 우리나라를 하나의 통일국가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명제에서 고려는 우리나라 력사에서 첫 통일국가로 등장했다는 것, 고려는 신라의 계승국이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고려가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을 어떻게 계승했고 민족통일국가를 어떻게 일떠세웠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세사에서 삼국시기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존재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세 나라 가운데서 삼국을 통일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나라는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는 오래 전부터 삼


고려태조 왕건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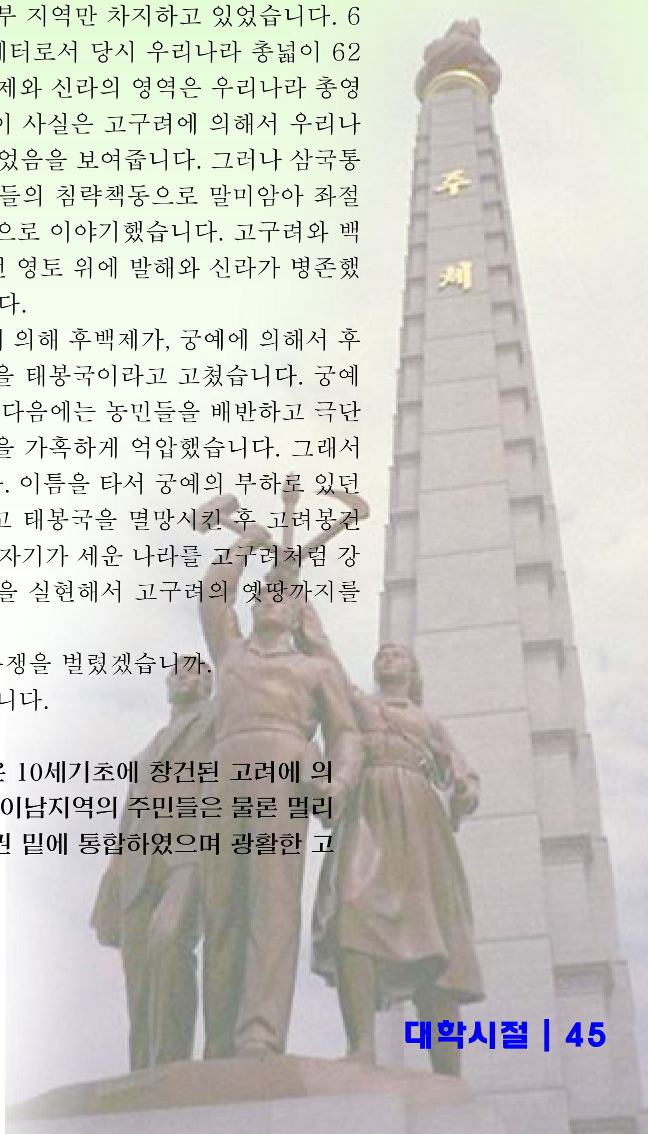
국의 통일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삼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주변나라들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해서 힘있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한때 온 겨레와 강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백제와 신라는 일부 지역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6세기중엽에 이르러 고구려의 최대영역은 56만 평방키로메터로서 당시 우리나라 총넓이 62만 평방키로메터의 9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백제와 신라의 영역은 우리나라 총영역의 10%에 불과한 6만 평방키로메터밖에 안됐습니다. 이 사실은 고구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첫 민족통일국가형성이 완성단계로 추진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삼국통일을 위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은 신라와 당나라 통치배들의 침략책동으로 말미암아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강의들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영토 위에 발해와 신라가 병존했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8세기로부터 9세기 시기까지입니다.

그후 10세기에 들어와서 후기신라의 강토 안에는 견훤에 의해 후백제가, 궁예에 의해서 후고구려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궁예는 911년에 나라 이름을 태봉국이라고 고쳤습니다. 궁예는 원래 농민군의 지휘자로 등장한 자였는데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농민들을 배반하고 극단한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중세기적 잔인성으로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궁예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기세가 점차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틈을 타서 궁예의 부하로 있던 왕건을 비롯한 일부 봉건관료들은 918년에 궁예를 죽이고 태봉국을 멸망시킨 후 고려봉건국가를 세웠습니다. 왕건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 것은 자기가 세운 나라를 고구려처럼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고구려가 지향했던 민족통일의 위업을 실현해서 고구려의 옛땅까지를 포괄하는 강성대국으로 건설하려는 욕망에서였습니다.

그러면 고려는 이와 같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투쟁을 벌렸겠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은 10세기초에 창건된 고려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고려는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대동강 이남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멀리 북쪽에서 이주하여 온 발해의 유민들까지도 하나의 주권 밑에 통합하였으며 광활한 고구려의 옛땅을 되찾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렸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고려는 민족통일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해 무엇보다도 옛 고구려 땅을 되찾기 위한 북방진출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고려의 북방진출은 그전에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 다시 말해서 평양건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려는 민족통일국가를 건립하려는 고구려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또한 동족을 포섭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고려가 건립된 10세기초에 우리 나라의 판도에는 네 개의 주권국가가 있었습니다. 즉 발해, 후백제, 후기신라, 고려가 있었습니다. 고려는 다른 세 개의 주권국가들인 동족의 나라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포섭하는 정책을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고려는 우선 후기신라로 하여금 스스로 투항해 오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신라는 후백제의 침략을 자주 받게 됐었습니다. 그때마다 고려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군대를 파견해서 신라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신라는 고려에 크게 의존하게 됐고 마침내는 930년에 신라왕이 고려에 귀순할 의사를 표시하게 됐습니다. 그후 935년 11월에 신라왕 김후는 왕실 귀족들과 함께 고려에 귀순해 오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는 고구려의 옛땅을 되찾으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발해와의 관계도 평화적으로 유지하면서 거란의 침략을 받고 있는 발해를 여러 모로 도와주었습니다. 고려의 이러한 정책은 훗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926년에 발해는 거란의 침략으로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됐는데 이렇게 되자 발해 왕세자인 대광연은 수만 명의 발해 사람들을 데리고 고려에 들어왔습니다. 그후 여러 해에 걸쳐 수십 만 명의 발해 유민들이 동족의 나라인 고려에로 이주했습니다. 고려는 다음으로 후백제에 대해서도 될수록 평화적 방법으로 통합하려고 가능한 한 아량 있게 포섭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후백제왕 견훤은 영토확장을 위해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927년 10월에는 신라의 수도 경주를 쳐서 왕을 죽이고 많은 재물과 병기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고려에 대해서도 영토팽창야망을 가지고 공격해 왔습니다. 후백제의 호전적인 태도에 고려는 부득이 무력적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드디어 936년에 후백제를 통합시키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고려는 건국이래 복잡한 투쟁과정을 거쳐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첫 통일국가로 등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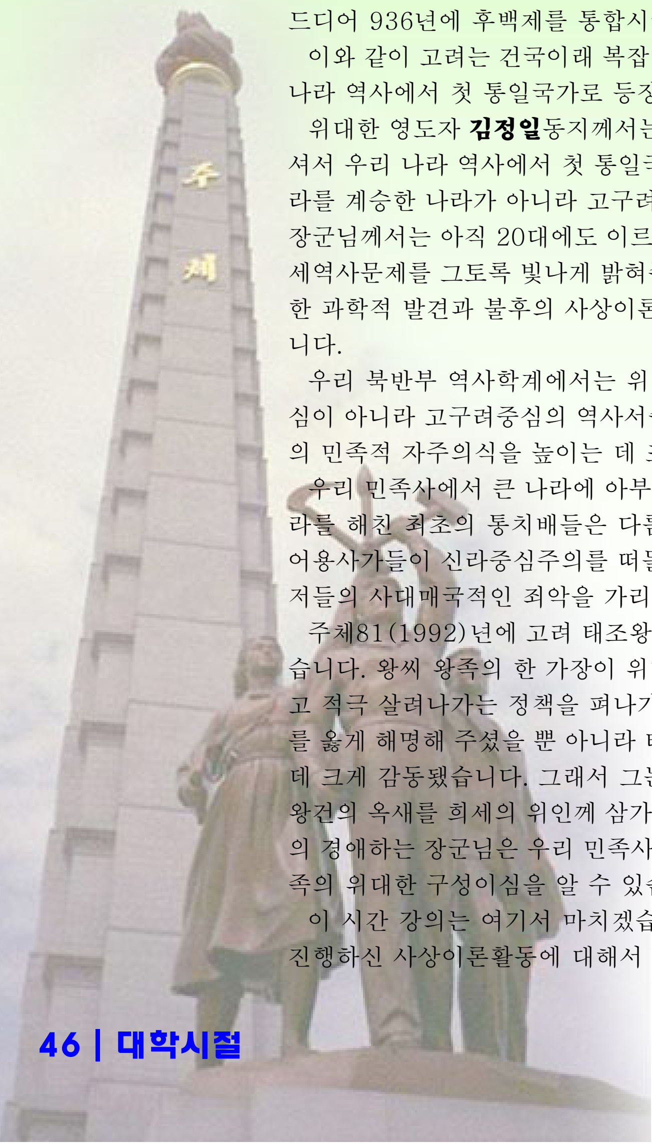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중세역사자료에 대한 심오하고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셔서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첫 통일국가로 등장한 것은 신라가 아니라 고려라는 것,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아직 20대에도 이르시지 못한 젊으신 시절에 전공학문과는 먼 거리에 있는 중세역사문제를 그토록 빛나게 밝혀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위대한 과학적 발견과 불후의 사상이론적 업적으로 대학시절을 빛내이신 가장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우리 북반부 역사학계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대로 중세역사서술에서 신라중심이 아니라 고구려중심의 역사서술체계를 확고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민족사는 인민들의 민족적 자주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큰 나라에 아부굴종하며 사대주의를 하고 큰 나라의 힘을 빌어 동족의 나라를 해친 최초의 통치배들은 다름 아닌 신라통치배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남조선괴뢰들과 어용사가들이 신라중심주의를 떠들면서 그를 고집해 나서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들의 사대매국적인 죄악을 가리우고 인민대중을 기만하자는 것입니다.

주체81(1992)년에 고려 태조왕인 왕건의 옥새 즉 왕건이 쓰던 고색이 짙은 도장이 나타났습니다. 왕씨 왕족의 한 가장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것입니다. 그는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는 정책을 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려의 지위를 옳게 해명해 주셨을 뿐 아니라 태조왕인 왕건의 릉을 개성에 다시 크게 개건하도록 해주신데 크게 감동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보로 깊숙이 간수해 내려오던 1,000여 년 전의 보물, 왕건의 옥새를 희세의 위인께 삼가 올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민족사를 옳게 밝혀주시어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빛내어 주신 민족의 위대한 구성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진행하신 사상이론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학시절의 사상이론활동

오늘부터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사상리론활동을 어떻게 벌리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상리론활동이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여기에 대해서 옳은 리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이 혁명운동은 곧 사상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 실현을 위한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혁명사상, 혁명리론을 가지는 것은 혁명운동의 출발점이며 근본전제입니다. 그런데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과 조건은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전진하고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합니다. 그런 것만큼 혁명운동이 전진하는 데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제기됩니다. 바로 이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자면 혁명사상과 리론을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상이론활동이라고 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 데 맞게 혁명사상과 리론을 발전풍부화해 나가는 활동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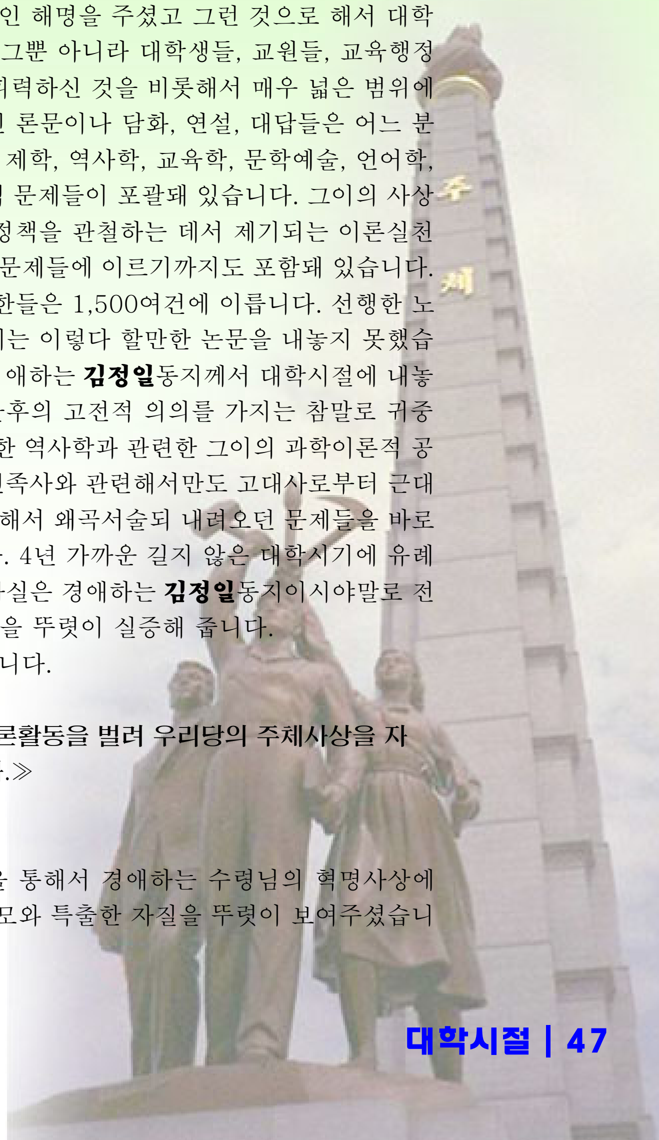
그러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사상리론활동을 어떻게 벌리셨겠습니까. 먼저 이 시간에는 대학시절의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을 총괄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부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선 강의들에서 말씀드린 바이지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뛰어난 사상리론적 예지와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셨습니다. 여기에다 그이께서는 남다르게 무엇이든지 탐구적이고 분석적이며 독창적으로 사색하시는 천품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그이께서는 스무 살 안팎의 대학생시절에 종래의 그 어떤 사상리론가들과도 비길 수 없는 말 그대로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을 전개하셨고 빛나는 사상리론적 공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며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 불후의 고전적 의의를 가지는 논문들을 수많이 내놓으시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진행되는 학과토론들에 출연하셔서 수많은 과학리론적 문제에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해명을 주셨고 그런 것으로 해서 대학생들은 물론 교원, 학자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생들, 교원들, 교육행정일꾼들과 자주 만나셔서 선행고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신 것을 비롯해서 매우 넓은 범위에 걸치는 담화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때 그이께서 내놓으신 론문이나 담화, 연설, 대답들은 어느 분야나 미치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철학, 정치경제학, 역사학, 교육학, 문학예술, 언어학, 법학, 군사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심오한 학술적 문제들이 포괄돼 있습니다.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은 이런 학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 문제들, 대학의 당 및 교육행정사업에서 나서는 전반적 문제들에 이르기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발표된 그이의 론문, 담화, 연설, 대답, 결론, 서한들은 1,500여건에 이릅니다. 선행한 노동계급의 수령들인 맑스나 레닌의 경우를 봐도 대학시절에는 이렇다 할만한 논문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몇 권의 단편적인 글들을 내놓았을 뿐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내놓으신 그처럼 방대한 문헌들은 3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불후의 고전적 의의를 가지는 참말로 귀중한 문헌들입니다. 이 강의에 앞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진행한 역사학과 관련한 그이의 과학이론적 공적에 대한 강의들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그이께서는 우리 민족사와 관련해서만도 고대사로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지난날 식민주의사관, 사대주의사관에 의해서 왜곡서술되 내려오던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신 것과 같은 새로운 학술상의 발견들을 하셨습니다. 4년 가까운 길지 않은 대학시기에 유례없이 방대한 규모의 사상리론활동을 진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전무후무한 사상리론가, 정치가이시며 다재다능한 재사이심을 뚜렷이 실증해 줍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는 비상한 탐구력과 정력을 가지고 사상리론활동을 벌려 우리당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기의 사상리론활동을 통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대한 가장 충실한 신봉자, 위대한 계승자로서의 고결한 풍모와 특출한 자질을 뚜렷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벌리신 사상리론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이 시기 경애하는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우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태로부터 노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었던 혁명적 수령관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한 문헌들 중 몇 개만을 들어본다면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다음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 다음 ≪혁명가의 영생하는 삶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있다≫ 다음 ≪우리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이상과 같은 문헌들입니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문헌들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 역할에 관한 사상, 수령의 혁명위업을 옹호고수하고 계승완성하는 데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혁명적 수령론을 정립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 두리에 전당 전민 전군을 일심단결시킬 수 있게 하신 불멸의 공헌으로 됩니다.

이 시기 경애하는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다음으로 고전적인 문헌 ≪철학의 기본문제를 바로 리해할 데 대하여≫ 그리고 ≪사람은 사회관계의 주인이다≫ 또한 ≪역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에 대하여≫ 또 ≪사상의식의 결정적 역할에 대하여≫를 비롯한 문헌을 발표하심으로써 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를 종합체계화하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는 역사적 과업수행을 위한 사상리론적 기초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70년대 중엽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는 역사적 위업을 수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위업수행을 위한 사상리론적 기초는 그이의 대학시절의 사상리론활동에서 마련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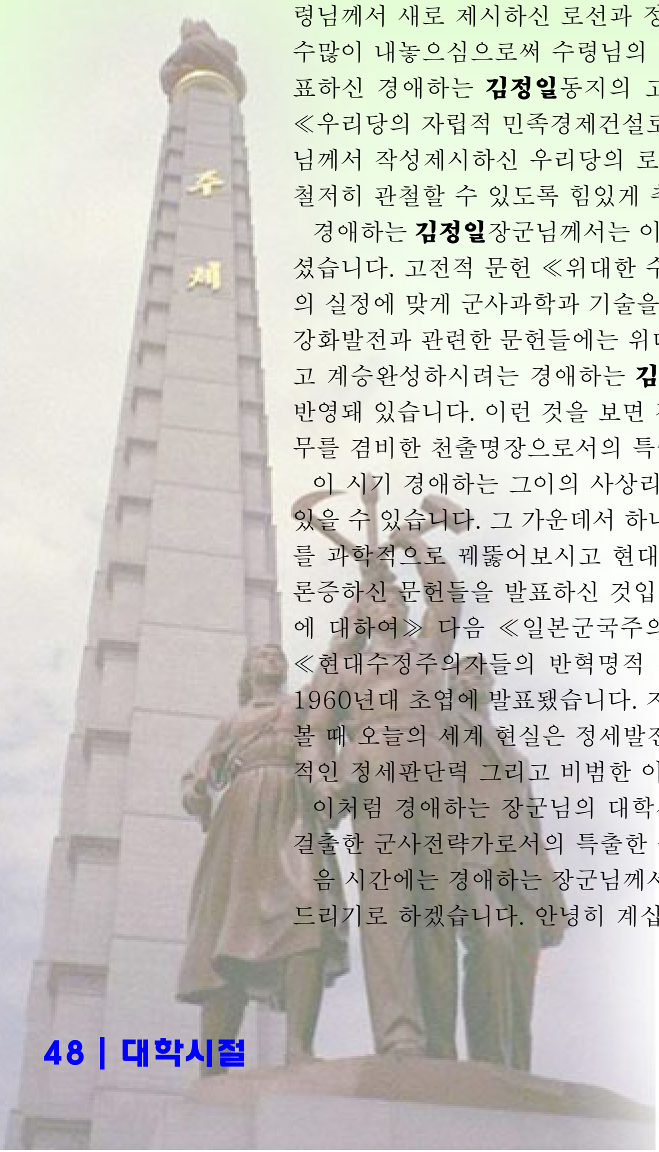
이 시기 경애하는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 생활력을 과학적으로 분석론증한 문헌들을 수많이 내놓으심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신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발표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전적 노작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또 ≪우리당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견결히 옹호하자≫를 비롯한 론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제시하신 우리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힘있게 론증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수 있도록 힘있게 추동한 훌륭한 문헌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시기에 또한 군사분야에 대한 수십 권의 문헌들을 발표하셨습니다. 고전적 문헌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사상에 대하여≫ 다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군사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를 비롯한 군건설과 각 군종, 병종들의 강화발전과 관련한 문헌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건군리론과 전법을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의지와 탁월한 군사적 예지가 뚜렷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벌써 20대 안팎의 젊으신 시절에 문무를 겸비한 천출명장으로서의 특출한 자질을 과시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경애하는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밖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만 더 들어본다면 당시의 복잡한 국제정세와 그 발전추이를 과학적으로 꿰뚫어보시고 현대제국주의와 수정주의의 특징과 본질 그리고 그 위험성을 론증하신 문헌들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고전적 노작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다음 ≪일본군국주의의 재무장 재침략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다음 ≪현대수정주의자들의 반혁명적 책동과 자본주의복귀의 위험성≫ 이상과 같은 문헌들은 1960년대 초엽에 발표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에 발표된 이 고전적 문헌들을 놓고 볼 때 오늘의 세계 현실은 정세발전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정세판단력 그리고 비범한 이론적 분석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학시절의 사상리론활동은 사상리론의 영재, 탁월한 정치가, 걸출한 군사전략가로서의 특출한 풍모를 보여줍니다.

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사상의식의 역할과 관련한 명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상의식관련 명언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진행하신 사상리론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찍이 사상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을 내놓으시고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상의식의 역할과 관련한 명언들을 수많이 내놓으시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이께서 내놓으신 사상의식의 역할과 관련한 명언들 가운데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원자탄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다.≫ 그리고 ≪사람의 아름다움은 용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에 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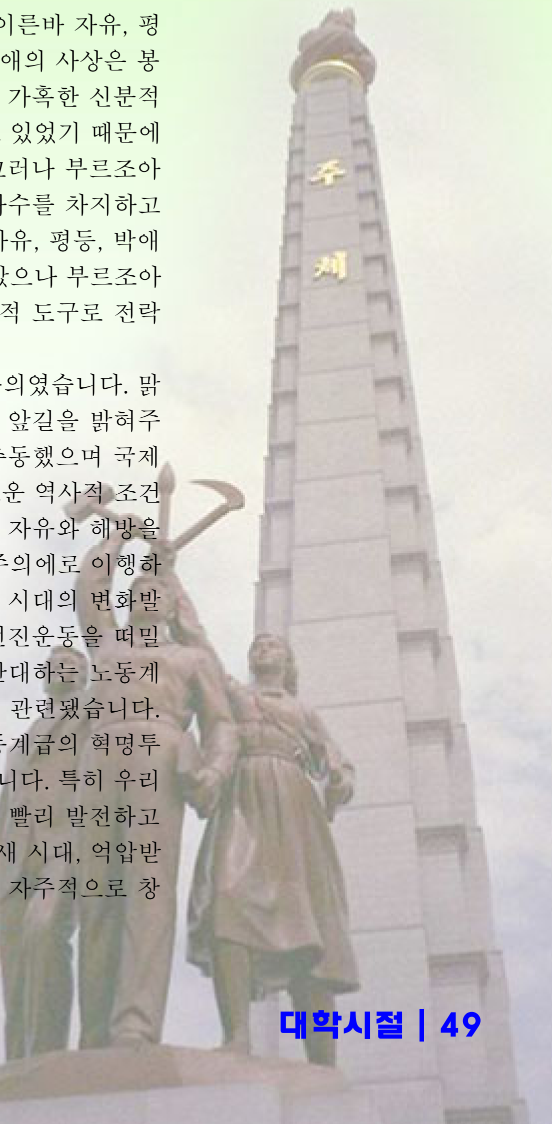
먼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원자탄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다.≫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세계의 발전을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한 위대한 사상이라는 진리가 밝혀져 있습니다. 세계의 발전은 돈이나 원자탄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사상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물론 재부나 무기가 인류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통해서 인간생활에 작용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무기가 위력하다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옳게 사용하지 못하면 사회생활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 후과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사상은 시대의 변화발전에서 큰 작용을 놀게 됩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지배하는 약탈적이며 모순된 사회를 이른바 자유, 평등,박애라는 기만적인 구호로 미화분식하고 있는데 이 자유, 평등, 박애의 사상은 봉건시대 말기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사상은 나온 후 봉건적 착취와 가혹한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인민들의 지향과 일정하게나마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들을 봉건적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고무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조아 사상가들에 의해서 제창된 이 사상은 봉건사회에서 주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대중의 리익을 대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평등, 박애에 관한 구호는 부르조아혁명시기에는 일정하게 진보적인 역할을 놀았으나 부르조아지들이 정권을 쥔 이후에는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성을 은폐하는 사상적 도구로 전락됐습니다.

선행시대에 시대의 변화발전을 크게 추동한 것은 맑스주의와 레닌주의였습니다. 맑스주의는 투쟁무대에 등장한 노동계급에게 그 역사적 사명과 해방의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추동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았습니다. 레닌주의는 막스주의를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맞게 발전시켜 노동계급과 인민들을 제국주의의 아성을 짓부시고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맑스주의와 레닌주의가 선행시대에 시대의 변화발전을 크게 추동했지만 현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것을 가지고 역사의 전진운동을 떠밀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은 1920년대 중엽에 이르러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던 사정과 관련됐습니다. 세계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승리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노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급격히 앙양돼 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방나라 인민들의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이 빨리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운동이 세계적 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새 시대,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해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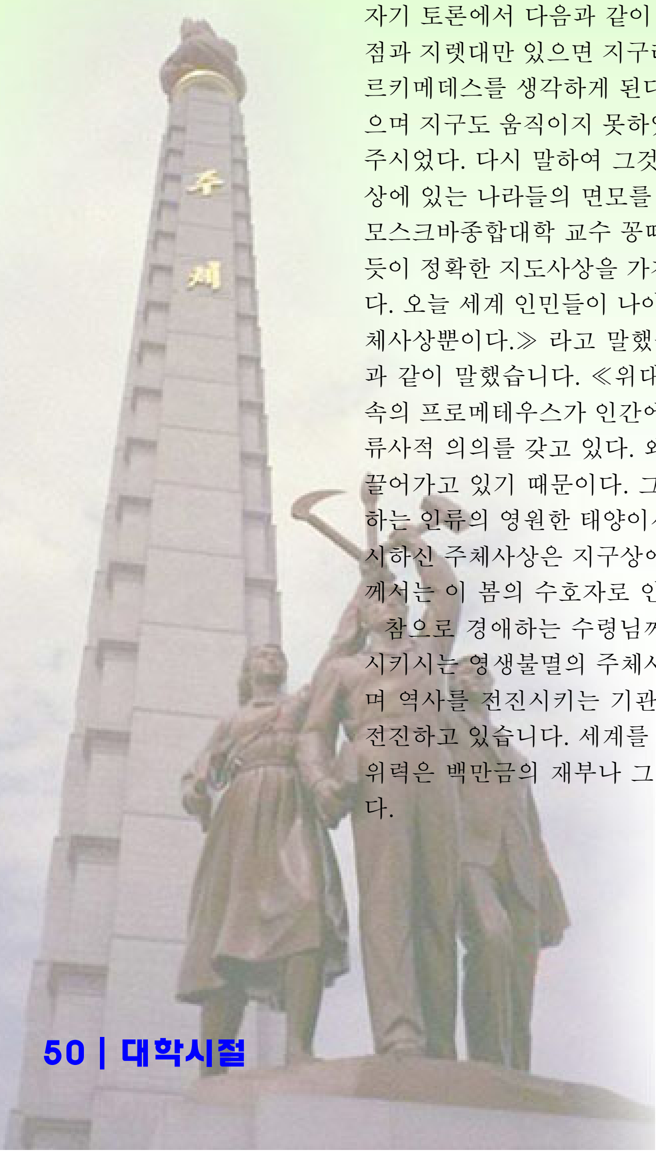


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밝혀주는 새로운 지도사상이 요구됐습니다.

인민들에게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겨주고 혁명투쟁의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됐습니다. 그 절박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독자적으로 개척해 나가시면서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을 벌리셔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비로소 빛나게 해결되었습니다. 조선혁명의 실천적 요구에 기초해서 나온 주체사상은 우리시대를 전진시키는 보편적인 지도사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조선혁명이 모든 문제를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자기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것을 그 어느 혁명보다도 절박하게 요구했으며 따라서 역사의 새 시대인 우리시대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체현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우리 시대를 전진시키는 보편적인 지도사상이라는 데 대해서는 세계의 정계, 학계, 언론계의 진보적 인사들이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주체66(1977)년에 있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 모 인사는 자기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의 면모를 개변한다고 하니 나는 지지점과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라도 우주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한 고대희랍의 아르키메데스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는 지지점도 지렛대도 얻지 못하였으며 지구도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상계에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지점을 찾아주시었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세계의 면모를 개변하는, 특히는 뒤떨어졌거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면모를 개변하는 주체사상이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종합대학 교수 꽁떼는 ≪나침반이 없는 배가 자기의 목적지에 가 닿을 수 없듯이 정확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민들은 사회를 옳게 발전시켜 나갈 수 없다. 오늘 세계 인민들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정확히 제시하여주는 나침반은 오직 주체사상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신문 에이쉬언타임즈 주필 키팀레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것은 신화속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것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인류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주체사상은 인류를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에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이는 정녕 인간운명의 구세주이시며 만민이 따르고 흠모하는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저 하늘의 태양의 영원한 빛발과도 같이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지구상에 인간옹호의 영원한 봄을 펼치고 있으며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이 봄의 수호자로 인류와 함께 영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심화발전시키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세계를 밝히는 횃불이고 지구를 움직이는 지렛대이며 역사를 전진시키는 기관차입니다. 현시대는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로 확고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변혁해나가는 주체사상의 위력은 백만금의 재부나 그 어떤 원자무기에도 대비할 수 없는 백전백승의 위력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아름다움은 용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에 있다.≫이 명언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명언은 인간의 미는 그가 어떤 사상의식을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규정된다는 진리를 밝혀주는 명언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결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얼굴이 잘 생기고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아름다운 인간인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바쳐 일하는 데 바로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규정하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결정적 요인은 사상의식입니다. 훌륭한 사상의식을 지닌 사람만이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참다운 아름다움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헌신분투하는 고결한 정신세계와 도덕적 풍모에 있으며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매력 앞에 사람들은 정신도덕적으로 완전히 매혹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리인모동지는 남조선에서 3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43년만에 가족들이 있는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를 방문한 한 나라의 대표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남아프리카의 넬슨만델라도 28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34년간의 옥살이는 지상최대의 악형이며 이런 악형에서 견디어낸 당신은 신념과 의지의 화신이고 세상에 처음 보는 옥중투쟁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절대로 나를 높이 보지 마시오. 나도 당신들과 같이 어머님에게서 육체적 생명을 받아안은 평범한 사람이오. 나도 때리면 맞아터지고 쏘면은 총알을 맞고 죽게 되어 있소. 그러면 어떻게 되어 괴뢰들이 별별 짓을 다하며 이 몸을 파헤쳤어도 나는 살아서 조국의 품으로 왔는가. 그것은 수령복을 타고난 때문이오. 어버이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에게 정치적 생명을 주신 은인들이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43년 동안을 당조직의 명단에 이 리인모라는 이름을 그냥 두고 기다려주시었소. 이런 사랑을 내 알기에 그 어떤 악형 앞에서도 나는 굴복할 수가 없었소.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과 의리를 순간도 잊을 수가 없어 모진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것. 이것이 나의 의지이고 신념일진대 이것은 전적으로 두 분의 수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인모동지는 참으로 참다운 인간적 향기를 지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그는 해방전 조선의 옛 정배지였던 풍산 촌사람에 불과한 자기를 그토록 키워주고 기다려주신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과 의리를 순간도 잊을 수 없어 그런 영웅적인 소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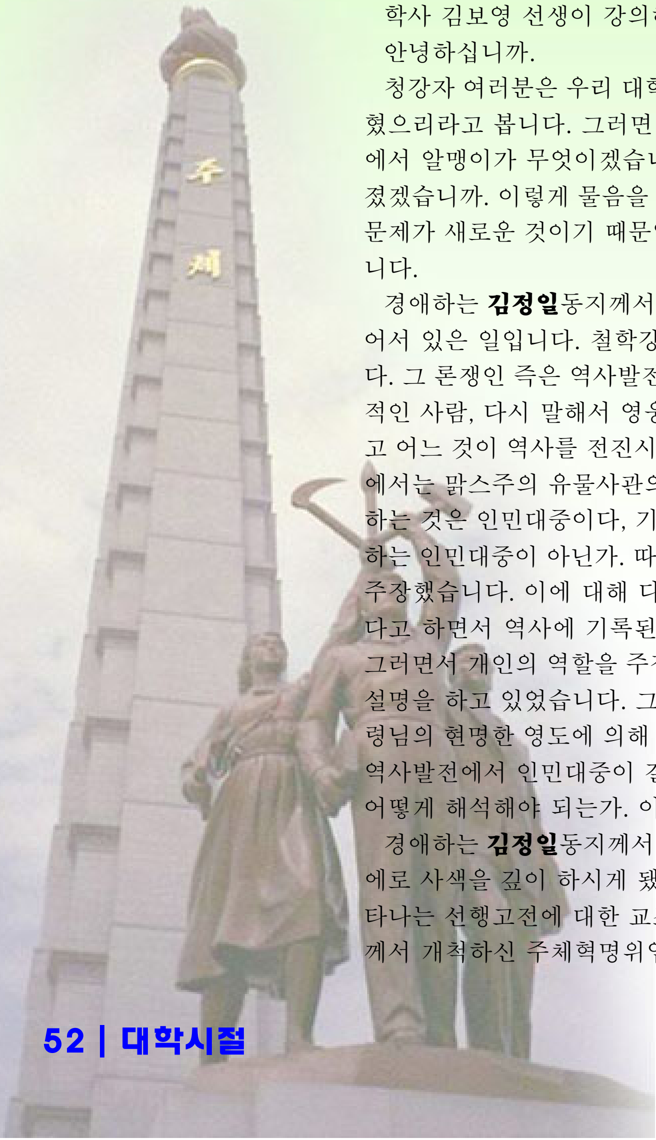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들을 수없이 키워내셨으며 키워내고 계십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는 혁명동지를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서슴없이 바치고 남녀 청년들이 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 하며 부모 없는 아이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을 친혈육처럼 따뜻이 돌봐주고 있는 아름다운 미풍이 그 어디서나 활짝 꽃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아름다운 용모나 현란하고 요란스러운 겉치레로써는 대비할 수도 꾸밀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어 자연도 사회도 인간도 아름다워지는 나라 이것이 바로 공화국북반부의 참모습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수령론을 정립하신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령론확립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강자 여러분은 우리 대학에서 내보내는 강의를 들으며 수령문제에 대해서 많이 익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수령문제에 관해서 전개한 혁명리론 다시 말해서 수령론에서 알맹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수령론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처음으로 밝혀졌겠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제기하면 아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이 문제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오시어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되어서 있은 일입니다. 철학강의시간이 끝난 다음 학생들 속에서는 론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론쟁인 즉은 역사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인민대중인가 아니면 개별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영웅이나 장군인가. 말하자면 인민대중과 개인, 이 양자를 놓고 어느 것이 역사를 전진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맑스주의 유물사관의 원리를 론거로 내세우면서 역사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이다, 기계를 돌려 물건을 만들어내며 식량을 생산하는 것도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아닌가. 따라서 개인의 역할을 내세우는 것은 부르조아역사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다고 개인의 역할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역사에 기록된 이러저러한 영웅이나 장군들의 이름을 내리뽑았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역할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로동계급의 수령도 개인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승리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면 이것을 역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맑스주의 유물사관의 원리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논쟁을 목격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로 사색을 깊이 하시게 됐습니다. 하나는 대학생들은 물론 학계에서도 우심하게 나타나는 선행고전에 대한 교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주

체위업의 계승자들인 대학생들 속에서 나타나는 선행고전에 대한 우상화를 뿌리뽑는 것이야말로 잠시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단정하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학생들 속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론쟁은 맑스주의 유물사관의 제한성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수령의 역할을 개인의 역할의 테두리 안에서 보는 선행고전가들의 고찰방식에 바로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보시였습니다.

이로부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을 주체적 립장에서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그 근본원리로부터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탐구를 심화시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체49(1960)년 12월부터 1963년 6월에 이르는 기간에 발표하신 담화와 연설 론문들에서 로동계급의 수령론을 정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로동계급의 수령론을 정립하는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게 된 역사적 경위였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넘어갈 것은 경애하는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은 언제나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돼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그이께서는 실천과 동떨어져 학문상으로만 리론을 연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절박한 요구를 풀어나가시기 위해서 론문을 발표하시고 담화를 하시며 연설을 하십니다.

그러면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정립하신 수령론에서 알맹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수령은 인민대중의 뇌수라는 원리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63년 6월12일에 하신 ≪노동계급의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라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수령은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뇌수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개별적 사람의 뇌수가 유기체를 이루는 조직, 기관을 전일체로 결합시키고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관할하는 중심으로 되듯이 수령은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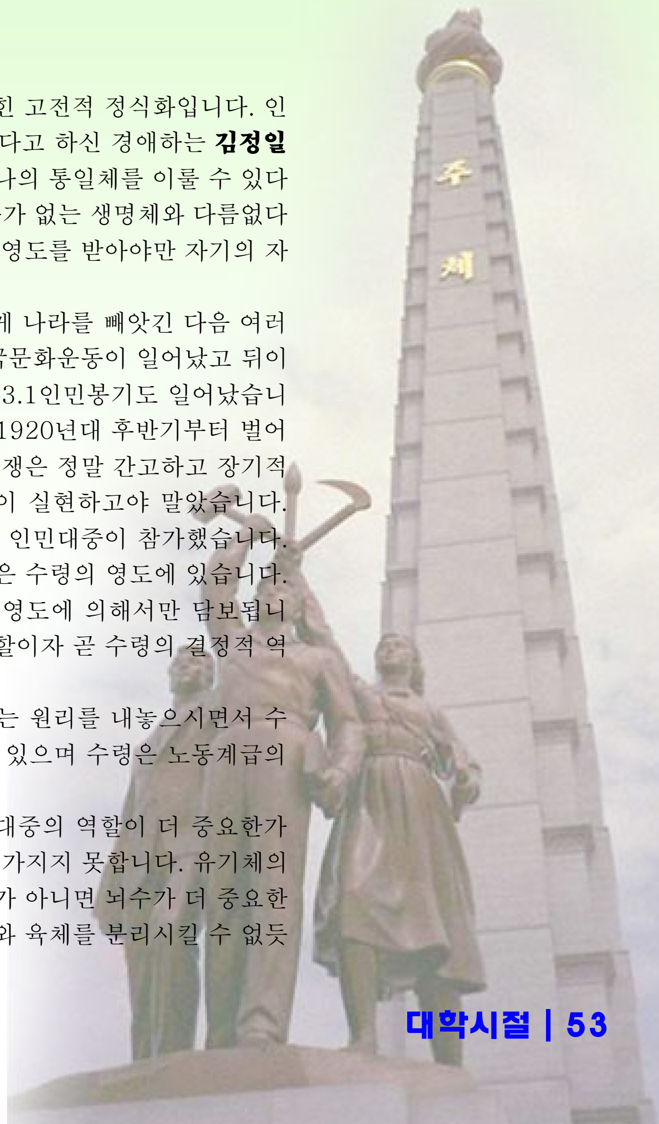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이 명제는 인민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수령의 지위를 밝힌 고전적 정식화입니다.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볼 때 수령이 뇌수의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리론은 인민대중은 수령의 옳은 영도 하에서만 하나의 통일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수령의 영도를 받지 못하는 인민대중은 뇌수가 없는 생명체와 다름없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결국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만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다음 여러 가지 형태로 민족해방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애국문화운동이 일어났고 뒤이어 의병투쟁과 독립군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에는 3.1인민봉기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투쟁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1920년대 후반기부터 벌어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영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정말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이었지만 승리를 이룩하고 민족해방위업을 기어이 실현하고야 말았습니다. 3.1인민봉기에도 인민대중이 참가했고 항일혁명투쟁에도 인민대중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자는 실패하고 후자는 승리했겠습니까. 비결은 수령의 영도에 있습니다. 요컨대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결정적 역할은 수령의 영도에 의해서만 담보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결정적 역할이자 곧 수령의 결정적 역할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은 인민대중의 뇌수라는 원리를 내놓으시면서 수령은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의 지위에 있으며 수령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수령이 인민대중의 뇌수라는 원리에 기초해 보면 인민대중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수령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의 설정이 타당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유기체의 생명활동을 보장하는 데서 육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뇌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뇌수와 육체를 분리시킬 수 없듯



이 수령과 인민대중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막스주의고전가들의 제한성은 수령과 인민대중을 분리시켜 수령을 개인으로 본 데 있는 것입니다. 선행고전가들의 이 제한성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신 분이 바로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십니다.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뇌수이라는 이 원리의 발견이야말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빛나는 사상리론적 공적으로 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립하신 수령론에서 알맹이를 이루는 것은 둘째로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충실성의 기초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수령과 인민대중은 혼연일체를 이룹니다. 수령에 대한 사람들의 충실성은 인민대중 전체를 위한 것인 동시에 자기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수령님의 영도 밑에서만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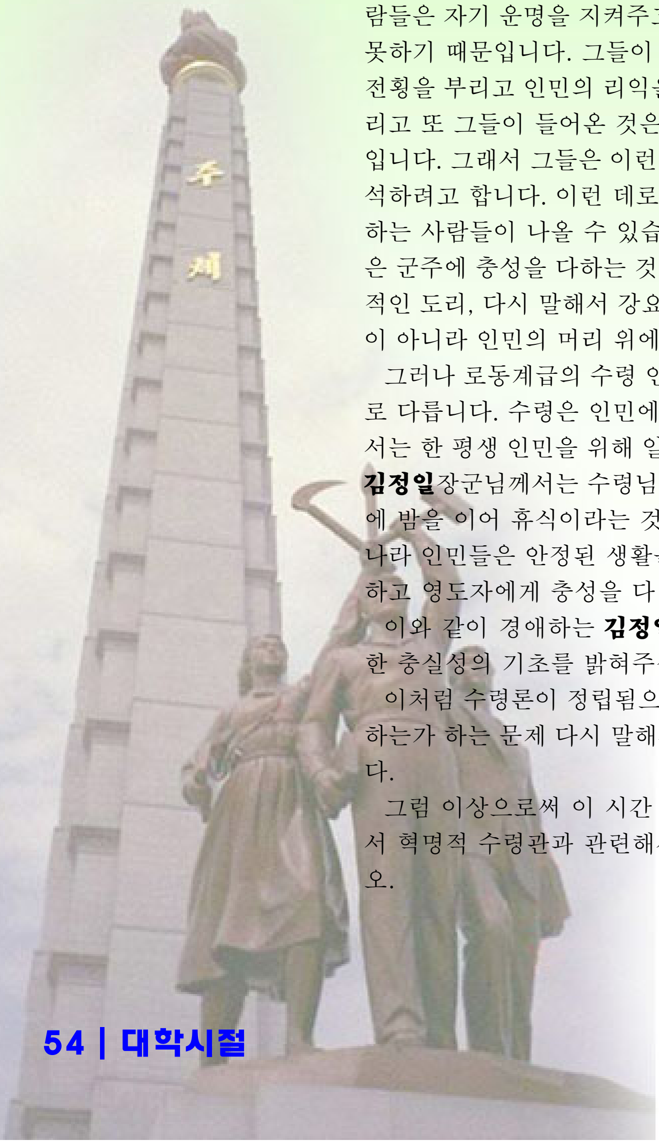
아마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화국에서 전체 인민들이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를 끝없이 존경하고 따르면서 충성을 다 하고 있는데 대해서 리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착취사회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며 빛내어주는 분이 수령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아오고 체험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 전횡을 부리고 인민의 리익을 침범하는 통치집단의 권모술수와 관료정치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들어온 것은 봉건유교교리에 기초해서 강요된 군신유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들에 기초해 가지고 수령과 인민대중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런 데로부터 충실성은 강요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릇되게 리해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봉건유교교리에서 말하는 군신유의는 신하와 백성은 군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리는 일방적인 도리, 다시 말해서 강요되는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군주는 인민에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머리 위에 앉아 인민에게 일방적인 복종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수령 인민의 수령과 인민대중 사이의 관계는 그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령은 인민에게 복무하며 사랑을 베풉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평생 인민을 위해 일을 하시다가 순직을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뜻을 이어 인민들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시기 위해서 낮에 밤을 이어 휴식이라는 것을 모르시고 일을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로고 속에서 온 나라 인민들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하고 영도자에게 충성을 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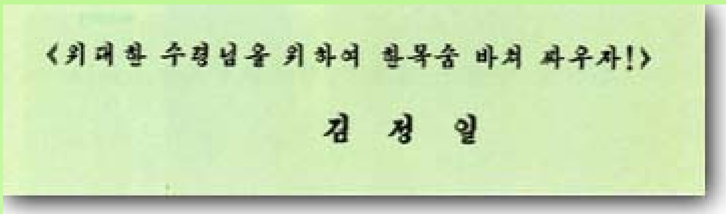
이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론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기초를 밝혀주셨습니다.

이처럼 수령론이 정립됨으로 해서 수령을 어떻게 보고 대하며 수령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수령관을 세우는 문제를 옳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적 수령관과 관련해서 창조하신 명언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혁명적 수령관 관련 명언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자!》

김 정 일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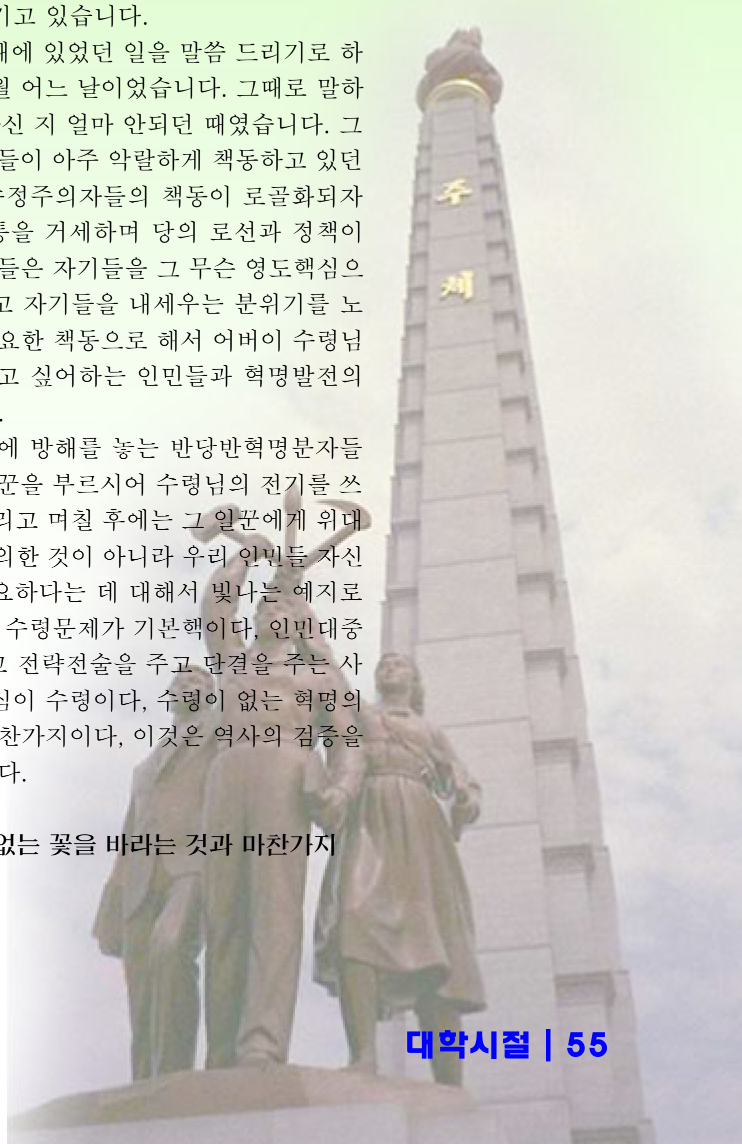
우리는 전번 시간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역사상 처음으로 수령론을 정립하신 데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기서는 수령은 인민대중의 뇌수라는 데 대해서 이야기됐습니다. 수령이 혁명투쟁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명언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태양이 없는 꽃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명언에는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절대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이 역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언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명언을 내놓으시던 때에 있었던 일을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인 주체54(1965)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우리 당대열에 숨어있던 반당수정주의분자들이 아주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이 로골화되자 그에 발맞추어서 우리당의 혁명사상을 반대하고 혁명전통을 거세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이 바로 집행되지 못하게 여러 모로 방해했습니다. 특히 이자들은 자기들을 그 무슨 영도핵심으로 자처해 나서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외면하고 자기들을 내세우는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조성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집요한 책동으로 해서 어버이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가 종합적으로 수록된 전기를 읽고 싶어하는 인민들과 혁명발전의 요구가 대단히 컸지만 그 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시 수령님의 위대성선전에 방해를 놓는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그 누구보다 예리하게 간파하시구 한 일꾼을 부르시어 수령님의 전기를 쓰는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도록 몸소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그 일꾼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 자신의 의지라고 하시면서 혁명투쟁에서 수령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빛나는 예지로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혁명에서 수령문제가 기본핵이다, 인민대중이 욕망 하나만으로 혁명할 수야 없지 않는가, 사상을 주고 전략전술을 주고 단결을 주는 사상리론의 뇌수 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 뇌수 그 중심이 수령이다,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태양이 없는 꽃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역사의 검증을 이겨낸 혁명의 철리이다.≫ 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태양이 없는 꽃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언어사에는 이처럼 중대한 사회정치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본질을 설명이 없이 누구나 직감할 수 있게 통속적인 비유로 생동하게 밝혀주는 명언이 나온 유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하늘에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태양이 없고 태양의 빛발을 받지 못하면 꽃들이 자랄 수도 피어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혁명의 운명도 수령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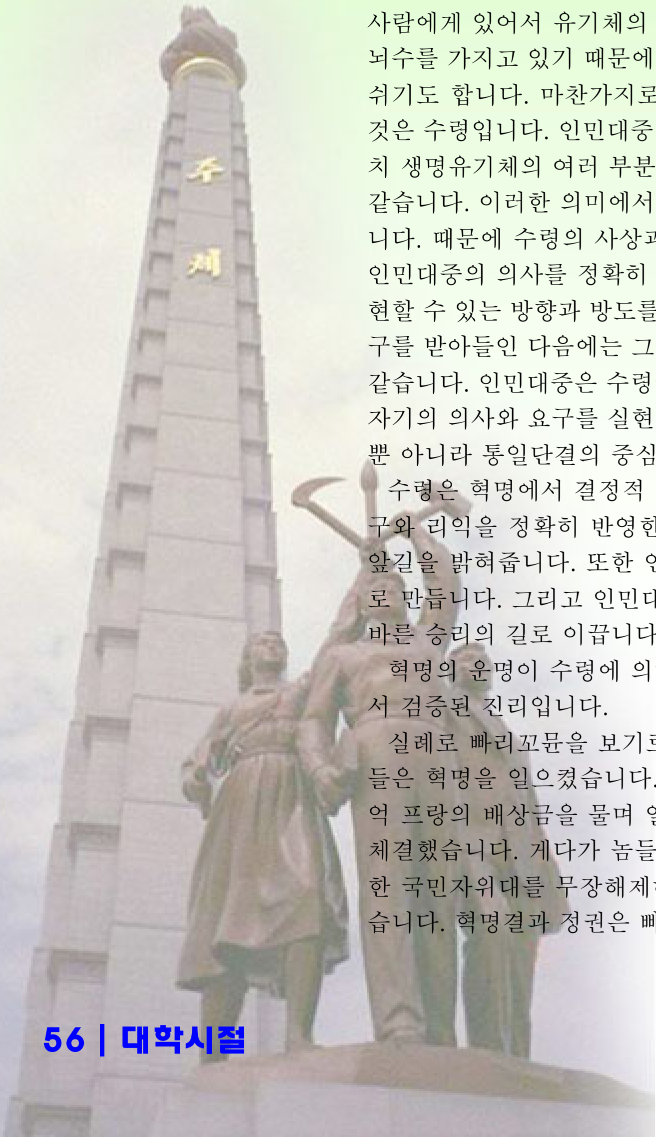
그러면 왜 혁명의 운명이 수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수령이 혁명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수령은 무엇보다도 지위측면에서 볼 때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영도자입니다. 수령이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라는 것은 사람에 비유해 볼 때 수령이 인간유기체의 뇌수와 같은 지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유기체의 모든 활동을 조절통제하는 것은 바로 뇌수입니다. 사람은 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픈 것을 느끼고 음식을 먹기도 하며 일하다가 힘들면 쉬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민대중이라는 커다란 유기체의 활동을 조절통제하는 것은 수령입니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수령에 의해서 집대성됩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유기체의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는 온갖 생리적 요구가 뇌수에 반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의 리익의 최고대표자로 그 체현자로 됩니다. 때문에 수령의 사상과 의도는 곧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의사로 됩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데 기초해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기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마치 뇌수가 생명유기체의 생리적 요구를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 요구를 실현하도록 유기체의 각 부분에 지령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인민대중은 수령이 내놓는 이러한 방향과 방도에 따라서 활동을 할 때만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수령은 이와 같이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일 뿐 아니라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영도자입니다.

수령은 혁명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수령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정확히 반영한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인민대중에게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줍니다. 또한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해서 그들을 혁명의 주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세련된 영도로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끕니다.

혁명의 운명이 수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실천에 의해서 검증된 진리입니다.

실례로 빠리꼬뮨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1871년 3월18일 빠리의 노동계급과 인민들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프랑스 반동통치배들은 프러시아침략자들에게 50억 프랑의 배상금을 물며 알사스와 로렌지방을 넘겨주기로 한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게다가 놈들은 인민들 자신이 프러시아침략자들과 싸우기 위해 조직한 국민자위대를 무장해제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계기로 들고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혁명결과 정권은 빠리국민자위대 중앙위원회가 틀어쥐게 되었고 3월28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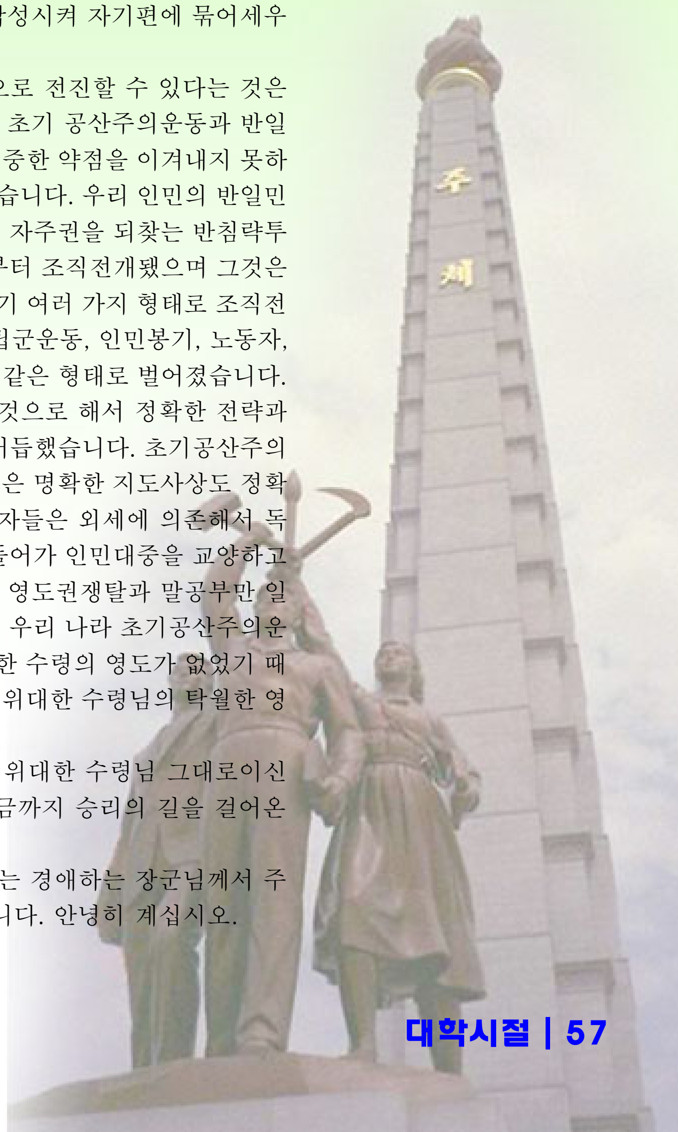
는 빠리꼬뮨이 선포됐습니다. 꼬뮨은 일련의 혁명적 시책을 실시했는데 반동적 의회기구를 없애버리고 인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꼬뮨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또 반동적인 군대와 경찰을 철폐하고 인민의 무장력을 조직했습니다. 꼬뮨은 반동적 착취계급이 가지고 있던 공장 기업소들을 인민의 소유로 만들었고 새로운 임금제도와 세금제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혁명적 시책들은 꼬뮨이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를 세우려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빠리꼬뮨 참가자들은 꼬뮨의 위업을 고수하기 위해서 반혁명세력의 반항을 반대해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5월2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유혈적인 최후결전을 벌렸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로소가 떨쳐나섰는데 1만여 명이나 되는 부녀자들과 지어 일곱 살 내지 여덟 살밖에 안되는 수많은 어린이들까지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승리를 이룩하지 못했고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반동들의 공세를 끝내 막아내지 못하고 72일만에 비극적인 종말을 고했습니다.

빠리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그토록 용감하게 싸웠지만 자기의 주권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수령의 영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령의 영도를 받지 못한 탓으로 해서 그들은 우선 단결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꼬뮨위원회 자체가 분렬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푸르동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소수파와 좌경모험주의적 블랑키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도부가 분열된 조건에서 빠리의 인민들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세울 수 없었고 투쟁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수령의 영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빠리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또한 옳은 전략전술을 가지고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베르사이유로 도망가는 적들을 계속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우세가 보장되고 있던 초기에 반동의 소굴인 베르사이유에 대한 결정적인 공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동들로 하여금 병력을 다시 수습하고 게다가 프러시아군에게 잡혔던 프랑스 포로들까지 넘겨받아 가지고 빠리를 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빠리의 로동계급은 이밖에도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자기편에 묶어세우지도 못했습니다.

탁월한 수령의 올바른 영도에 의해서만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은 특히 조선혁명의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초기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걸출한 영도자가 없었던 탓으로 자체의 심중한 약점을 이겨내지 못하고 적들의 야수적 탄압 앞에서 쓰라린 실패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은 일제에 의해서 빼앗긴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반침략투쟁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조직전개됐으며 그것은 놈들의 강점 전 기간 줄기차게 벌어졌습니다. 이 운동은 초기 여러 가지 형태로 조직전개됐는데 처음에는 주로 애국문화계몽운동, 의병투쟁, 독립군운동, 인민봉기, 노동자, 농민들의 파업투쟁과 소작쟁의, 청년학생들의 반일투쟁과 같은 형태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일운동들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것으로 해서 정확한 전략과 전술에 위해 지도되지 못했고 그때마다 쓰라린 실패만을 거듭했습니다. 초기공산주의운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명확한 지도사상도 정확한 전략과 전술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외세에 의존해서 독립을 이룩해보려고 망상했습니다. 그들은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조직화하며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 대신 대중과 리탈되서 영도권쟁탈과 말공부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명역량을 사분오열시켰습니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이 이런 길을 걷게 된 것은 다 탁월한 수령의 영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영도를 받음으로써만 승리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남다른 수령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심으로 해서 우리 인민은 지금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의 길만을 걸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의 정치학설을 체계화하신 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체의 정치학설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26(1937)년 6월4일 역사적인 보천보전투를 지휘하셔서 우리 조선민족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놈들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고 보천보의 밤하늘에 승리의 불길을 지펴올리셨던 그때로부터 예순 한 돌이 되는 날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고 백두산장군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수난의 시기에 지펴올리셨던 그 신념의 불길은 6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민족의 불굴의 기상이 되어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한 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민족의 자주권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또 한 분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셨습니다. 경애하는 그이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모심으로 해서 조국통일위업수행을 위한 우리 7천만 겨레의 전도는 밝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4월에 제시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대로만 하면 조국통일은 확정적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면서 주체의 정치학설을 체계화하신 데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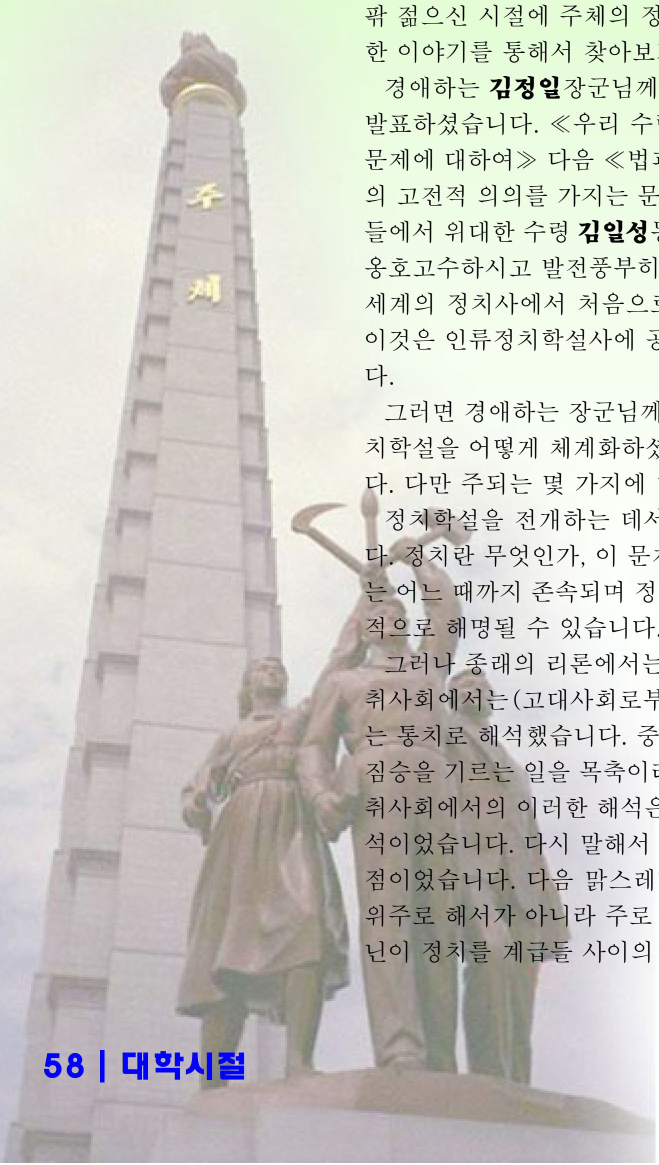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계정치원로로 칭송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칭송은 어떻게 되어 받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대답은 아마 부피 두터운 책으로도 다 설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의 한 고리로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스무 살 안팎 젊으신 시절에 주체의 정치학설을 체계화하신 걸출한 정치철학가이시라는 데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에 정치학설에 관해서도 수많은 문헌들을 발표하셨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또 ≪정치와 국가의 발생문제에 대하여≫ 다음 ≪법과 정치, 경제의 호상관계에 대하여≫를 비롯해서 수십 편의 고전적 의의를 가지는 문헌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문헌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정치사상과 정치학설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발전풍부히 하셨으며 그것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셨습니다. 이래서 세계의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과학적인 정치원리와 방법론이 체계화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인류정치학설사에 공헌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공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정치학설을 어떻게 체계화하셨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설을 전개하는 데서 출발점으로 되는 것은 정치의 본질을 밝히는 문제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옳게 해명되어야 정치는 언제 어떻게 발생했고 정치는 어느 때까지 존속되며 정치방식은 어떤 것으로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해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의 리론에서는 정치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우선 착취사회에서는(고대사회로부터 자본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 정치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로 해석했습니다. 중세기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를 ≪목민≫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기르는 일을 목축이라고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목민이라고 했습니다. 착취사회에서의 이러한 해석은 정치의 본질을 논함에 있어서 통치자를 중심에 놓은 해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민대중을 한갖 정치의 대상으로만 보는 반인민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다음 맑스레닌주의 고전가들은 정치학설을 전개함에 있어서 사람을 위주로 해서가 아니라 주로 경제와의 관계에서 정치문제를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레닌이 정치를 계급들 사이의 관계 또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규정한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에 고대 그리스의 정치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맑스레닌주의 고전가들에 이르기까지의 정치학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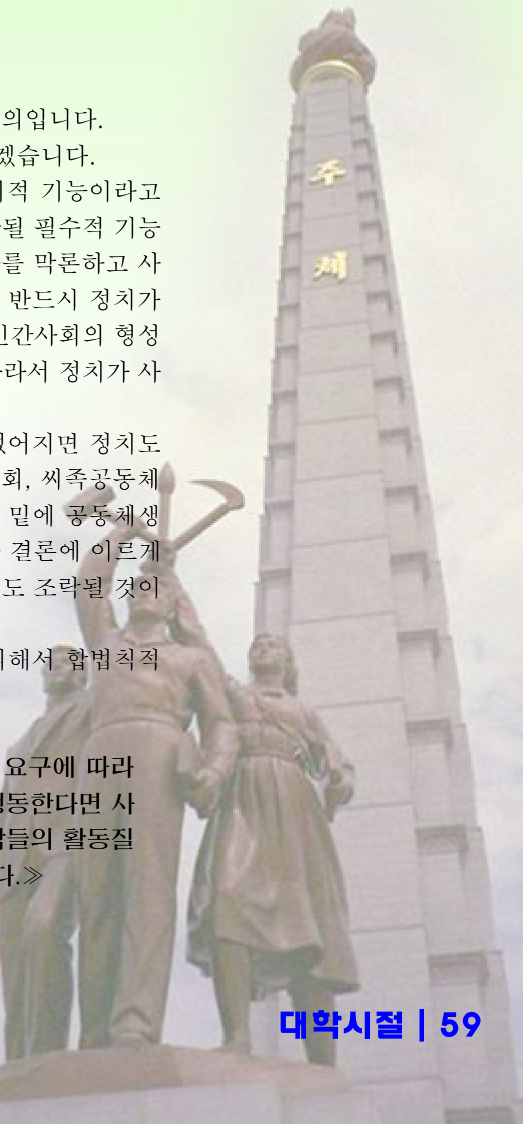
≪지금까지 많은 정치학설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가 아니라 주로 경제와의 관계에서 정치문제를 론의하고 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위주로 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계급이나 특정한 개인의 리익을 위주로 하여 정치문제를 고찰하였으며 주로 정치관계, 정치제도문제를 정치학의 기본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시고 사람을 위주로 하는 정치학설, 인민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운 정치원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주체의 정치원리에 립각하시어 정치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셨습니다.

≪정치는 사회적 집단과 개인을 결합시키고 사회를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회적 기능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의 본질을 완벽하게 밝힌 고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정의가 왜 과학적인 정의로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정의에서는 정치를 사회적 기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가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존재하고 유지되며 발전해 나가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역사의 그 어느 시대, 어떤 사회체제,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에는 례외없이 일정한 인간집단이 있었고 인간집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정치가 실행됐습니다. 정치가 없는 사회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치는 인간사회의 형성과 함께 발생했고 인간사회가 존속되는 한 정치는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치가 사회적 기능이라는 정의는 과학적입니다.
선행고전들에서는 정치와 계급관계를 동일시한 데로부터 계급이 없어지면 정치도 조락된다고 봤습니다. 이런 견해에 따른다면 계급사회 이전의 원시사회, 씨족공동체사회에서의 씨족평의회, 씨족장, 군장으로 구성되는 씨족조직의 지휘 밑에 공동체생활이 진행된 것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치가 아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이 못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정치도 조락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학적이 못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정치는 사회적 집단생활의 요구에 의해서 합법칙적으로 발생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사회적 집단생활이 제대로 진행되자면 개별적 사람들이 집단의 요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만일 개별적인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회가 존립되도록 사람들의 활동질서를 세우고 그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기능이 다름 아닌 정치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이 명제까지 놓고 보면 정치란 사회적 집단과 개인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기능이고 사회를 통일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는 사회적 기능이라고 규정하신 그이의 정의가 가장 완벽하고 과학적인 정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의 정치학설을 체계화하시면서 정치학설의 출발점이고 기초적 문제인 정치의 본질을 새롭게 해명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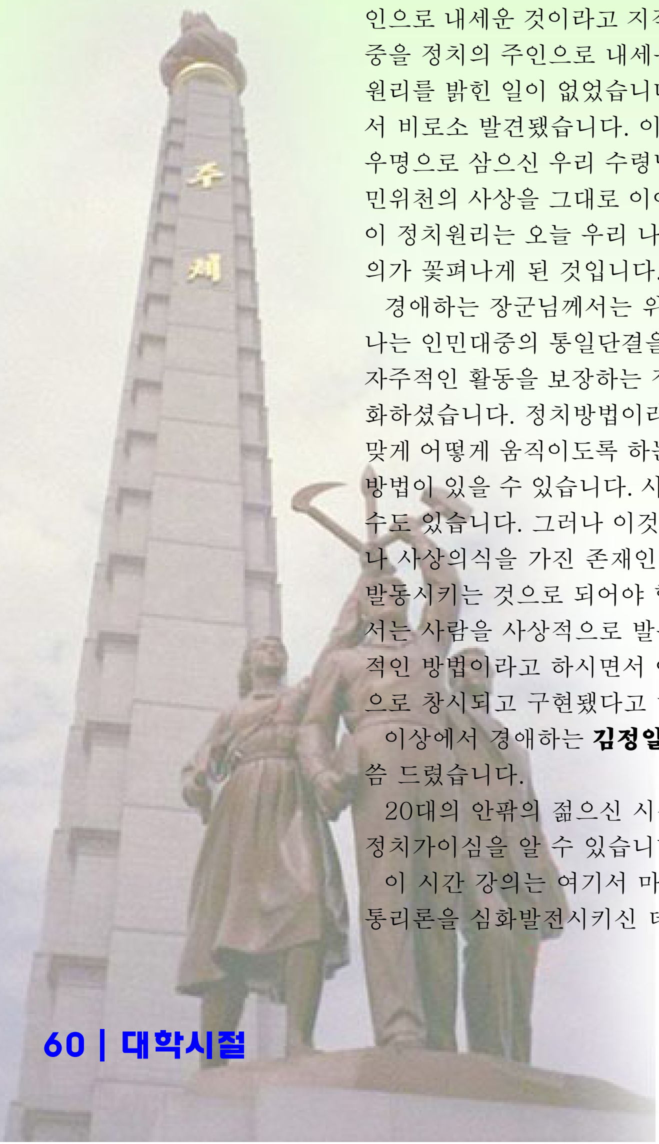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의 정치학설을 체계화하시면서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립하신 정치학설의 내용과 그 독창성을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정치학설은 어디까지나 로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의 조건을 밝히는 것을 주되는 임무로 삼은 정치학설로서 사회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정치의 원리와 방법론을 체계화할 수 없었습니다. 참다운 정치학설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수령님에 의하여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적 립장에서 정치원리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와 방법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주시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립하신 정치학설의 기본내용의 하나는 정치원리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정치원리는 인민대중을 정권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인류정치사에서 그 어느 정치가도 인민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을 정권의 주인, 정치의 주인으로 보는 정치원리를 밝힌 일이 없었습니다. 이 정치원리는 오직 위대한 정치가이신 수령님에 의해서 비로소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는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우리 수령님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이 정치원리는 오늘 우리 나라의 정치현실에 구현돼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가 꽃펴나게 된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립하신 정치학설의 기본내용의 또 하나는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보장하는 정치체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정치방법 또한 주체의 정치학설의 기본내용의 하나로 체계화하셨습니다. 정치방법이라고 할 때 쉽게 말하면 개별적인 사람들을 집단의 요구에 맞게 어떻게 움직이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돈이나 물건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권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배치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상의식을 가진 존재인 것만큼 사람을 움직이는 기본방법은 그들을 사상적으로 발동시키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사람을 사상적으로 발동시키는 정치방법이야말로 정치투쟁과 정치활동의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정치방법 역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 역사상 처음으로 창시되고 구현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밝히신 주체의 정치론에 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20대의 안팎의 젊으신 시절에 주체의 정치론을 전개하신 것만 봐도 그분은 희세의 정치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전통리론을 심화발전시키신 데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체의 혁명전통이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조선에서는 민족문화전통이라든가 애국적 전통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친숙하겠지만 혁명전통이라는 말은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혁명전통이란 어떤 것이고 민족적 전통과 혁명전통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선행이론에서도 밝혀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혁명전통에 관한 리론을 처음으로 내놓으신 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십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혁명전통에 관한 리론을 종합대학시절에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혁명전통론을 전면적으로 정립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의 혁명전통리론을 발전풍부화하신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중학시절부터 혁명전통계승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것은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수령에 의해서 창시된 지도사상과 그것을 구현해서 이룩한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그에 기초해서 혁명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며 계승발전시키는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미 학습한 사실이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열 네 살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려는 결심 밑에 몸소 백두산혁명전적지에로의 첫 답사행군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때로 말하면 우리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혁명의 원쑤들은 우리당의 혁명전통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그이께서 답사단을 이끄시고 백두산혁명전적지에로의 첫 답사행군길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혁명전통교양의 시원이 바로 이때에 마련되게 됐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대학시절에 혁명전통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사상이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혁명전통에 관한 리론을 어떻게 밝혀주셨겠습니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선 혁명전통과 민족전통은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49(1960)년 10월8일에 내놓으신 문헌 ≪혁명전통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데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사회생활의 역사적 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된 자기의 고유한 전



통을 가집니다. 계승성을 가지고 이어져내려오는 전통에는 크게 민족적 전통과 혁명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이라는 말을 원래의 의미에 맞게 정확히 써야할 뿐 아니라 혁명전통과 민족적 전통을 엄격히 갈라서 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통에는 크게 두 가지 다시 말해서 민족적 전통과 혁명전통이 있습니다. 민족적 전통과 혁명전통은 그 성격을 놓고 볼 때 서로 같지 않습니다.

민족적 전통은 민족발전의 장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공고화되서 민족생활에 고착되고 오랫동안 계승되어 오는 전통입니다. 민족적 전통에는 경제, 문화, 풍습, 도덕과 같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그 민족의 민족성과 민족생활의 고유한 특성들이 집약적으로 체현됩니다. 민족적 전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대의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제한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적 전통을 계승하는 데서는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혁명전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혁명전통은 무엇보다도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의 참다운 길이 열리던 시기에 마련된 유산이며 또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힘의 원천으로 되는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이며 만년초석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과 혁명의 시원을 이루며 그 발전을 끊임없이 떠밀어주는 역사적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과 혁명의 원형으로 되며 당과 혁명에 영원한 생기와 활력을 주는 사상정신적 힘의 근본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례를 들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북반부에는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숭고한 도덕의리가 가장 높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심단결이나 숭고한 도덕의리는 그 원형 다시 말해서 그 역사적 뿌리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미 마련돼 있었습니다. 항일혁명대오 안에서는 파벌이나 분파를 몰랐습니다.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일심단결돼 있었습니다. 그때 벌써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뭉친 항일유격대원들은 어떤 역경도 단결된 힘으로 맞서나가면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혁명적 의리를 발휘했습니다. 이것이 일심단결의 시원이었고 혁명적 의리의 시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뿌리에서 오늘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며 혁명적 의리의 화원이 활짝 피어난 것입니다.



이상에서 민족적 전통과 혁명전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따로따로 말씀 드렸는데 들으신 것처럼 그 둘은 성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런 데로부터 혁명전통과 민족적 전통을 엄격히 갈라보아야 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다음으로 혁명전통이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51(1962)년 1월23일에 하신 역사적인 담화 ≪당의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혁명전통은 누구나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무때나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오직 수령에 의하여 혁명의 길이 처음으로 개척되고 전진하는 역사적 행정에 이룩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분은 수령입니다. 따라서 혁명의 역사적 뿌리는 수령에 의해 혁명의 시원이 열리던 시기에 이룩됩니다. 우리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창시됐습니다. 이래서 혁명전통의 창시자문제와 혁명전통형성의 시기문제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당의 혁명전통의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주셨는데 그것은 주체적인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 혁명정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그리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으로 혁명전통의 위대성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명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의 폭과 심도는 혁명전통을 창시한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위대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혁명전통의 위대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어떤 폭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나무를 보면 그 뿌리가 깊고 억셉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혁명의 역사적 뿌리인 혁명전통이 위대하면 그 나라 당과 혁명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여러나라에서 그것을 영도하던 당들이 붕괴됐는데 물론 이 당들도 자기의 혁명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나라 당들의 혁명전통이 참말로 위대하고 그것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잘 무장시켰더라면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혁명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며 간고합니다. 우리나라는 큰 나라, 발전된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데다가 반세기 이상이나 분열된 채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정책이 날을 따라 더욱 우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는 끄떡없이 승리의 한 길을 따라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의 하나는 우리당과 인민의 혁명전통이 위대한데 있습니다.

우리당의 혁명전통은 그 폭과 심도에 있어서 그 어디에도 비할 바 없이 위대합니다. 그것은 우리당의 혁명전통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이 위대하고 영도가 현명하며 덕망이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고열 속에서만 강재가 뽑아져 나오듯이 가장 엄혹하고 간고한 투쟁의 불길 속에서 형성된 혁명전통은 가장 견실하고 가장 풍부하며 그 감화력과 생활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문제들 외에 혁명전통계승과 혁명전통을 대하는 태도문제들에 대해서도 심오한 이론적 해명을 주셨습니다.

그이께서 밝혀주신 리론은 대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우리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서 강령적인 지침으로 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이끄심에 있어서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민족적 전통을 적극 살리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데도 깊은 주의를 돌리고 계십니다. 결코 혁명전통만을 내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특히 남조선에서 민족성이 짓밟히고 사멸되가고 있는데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남조선의 역대통치배들은 사대매국행위를 일삼으면서 민족적인 모든 것을 말살하기 위해서 미쳐날뛰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라고 간판을 내건 현 당국자들도 이전 통치배들의 외세의존과 민족말살정책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팔아먹으며 온갖 민족적 불행과 재난을 가져오는 반역자들을 쓸어버려야만 민족의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족어이론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전 시간들에 이어서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벌리신 사상리론활동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이께서 민족어리론을 심화발전시키신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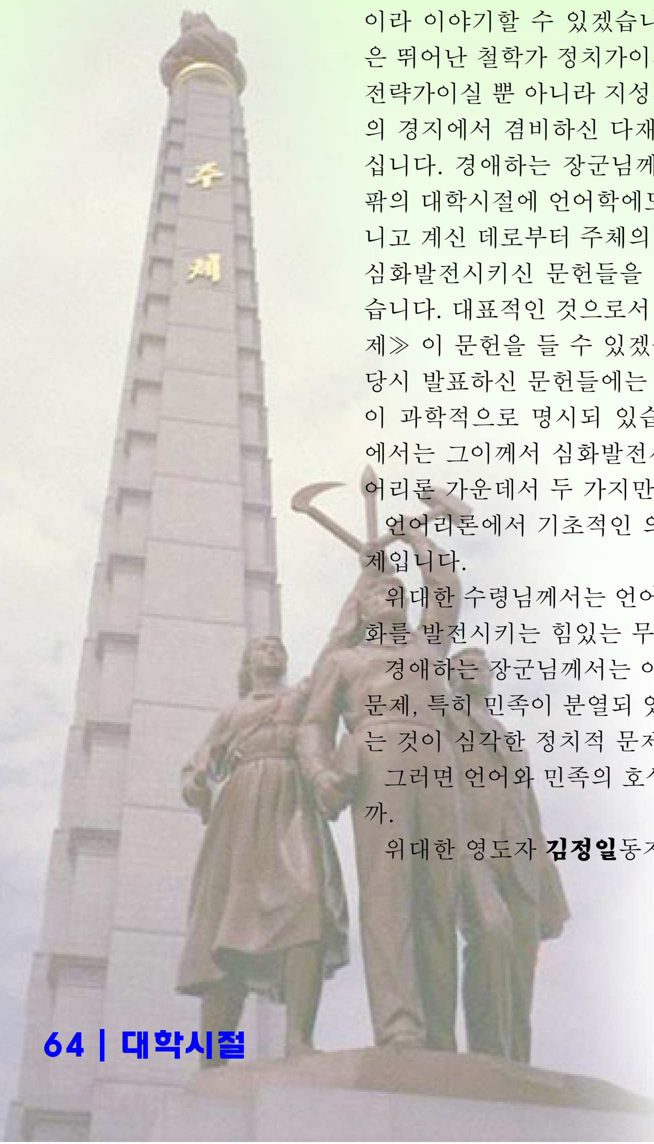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천재중의 천재입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 능통한 인류역사가 낳은 위인들 중의 위인입니다. 한 인간이 모든 지성과 재능을 최고봉의 경지에서 겸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일동지를 전설적인 위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 민족과 인류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분이신 수령님께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천재중의 천재로 전설적 위인으로 높이 평가하셨으니 경애하는 장군님의 출중함을 그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분은 뛰어난 철학가 정치가이시고 비범한 군사전략가이실 뿐 아니라 지성과 재능을 최고봉의 경지에서 겸비하신 다재다능한 지도자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스무 살 안팎의 대학시절에 언어학에도 깊은 조예를 지니고 계신 데로부터 주체의 언어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신 문헌들을 수많이 발표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언어와 민족문제≫ 이 문헌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분께서 당시 발표하신 문헌들에는 주체의 언어리론이 과학적으로 명시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그이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의 언어리론 가운데서 두 가지만을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언어리론에서 기초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은 언어의 사회적 본질과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의 하나이고 나라의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라는 고전적인 정식화를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고전적인 정식화에 기초하셔서 언어와 민족의 호상관계문제, 특히 민족이 분열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언어와 민족문제를 연관시켜 고찰하는 것이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된다는 심오한 사상을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어와 민족의 호상관계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론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입니다. 언어는 민족문제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고찰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선행리론들을 보면 민족의 징표를 주로는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놓고 고찰했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민족의 징표를 이루는 하나의 고리로 상정은 시켰지만은 주되는 징표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선행리론과는 달리 언어를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이로부터 언어를 민족문제와 밀접한 연관속에서 고찰해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언어와 민족문제를 밀접한 연관 속에서 고찰하는 것은 특히 민족이 분열되 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된다는 심오한 사상을 내놓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오늘 언어를 민족문제와 밀접히 연관시켜 고찰하는 것은 단순히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통일과 연관된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50년대에 언어를 좀 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른바 ≪6자모≫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곧 쓰자고 하는 주장을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일 우리가 문자를 고쳐 쓴다면 북과 남의 우리민족이 서로 출판물도 읽을 수 없고 편지를 해도 알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것은 조국통일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또 다른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조선과 일본의 부르조아언어학자들 가운데는 조선어의 이른바 두 개 기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계통의 북쪽말과 신라계통의 남쪽말이 서로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주장이 매우 그릇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장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민족이 원래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북과 남이 서로 다른 계통의 민족이라는 것을 이른바 론증하려는 생억지이며 우리민족의 단일성과 유구성을 부인하고 민족분열책동과 식민지화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민족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어를 민족문제와 관련시켜 고찰하는 것은 단순히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된다는 것을 자료적으로 분석론증하시었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조국애와 민족애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계시는 민족의 구세주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십니다.

언어리론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에서 언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언어발전의 원칙과 방향상의 문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언어발전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원칙의 하나는 언어의 민족적 특성을 옳게 살려나가며 중요하게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말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북반부가 중심이 돼서 조선말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 민족어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조선어의 기준은 혁명의 수도인 평양의 말입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혁명의 거점인 수도를 중심으로 하여 언어문제를 해결하고 수도의



언어를 기준으로 민족어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적 민족어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이 명제는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고전적인 명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적 민족어건설에 관한 강령적 지침을 명시하고 있는 귀중한 명제입니다. 여기서 조선어의 기준은 평양의 말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의 참뜻을 옳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명제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평양말이 현대조선어의 전형으로 되기 때문에 평양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양말이 현대조선어의 전형으로 되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평양말은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풍을 본보기로 해서 민족어의 고유한 특성과 우수성이 집대성되고 현대적으로 세련됐다는 데 있습니다. 혁명의 수도인 평양의 언어는 지난 50여 년 간 지역별 언어적 차이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평양말은 토백이의 말도 아니고 사투리가 섞인 평안도의 말도 아닙니다. 평양말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혁명적 문풍을 본보기로 해서 민족어의 온갖 우수한 요소를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매우 알기 쉬우면서도 간결하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이의 말씀은 어린이나 늙은이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리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이러한 인민적인 문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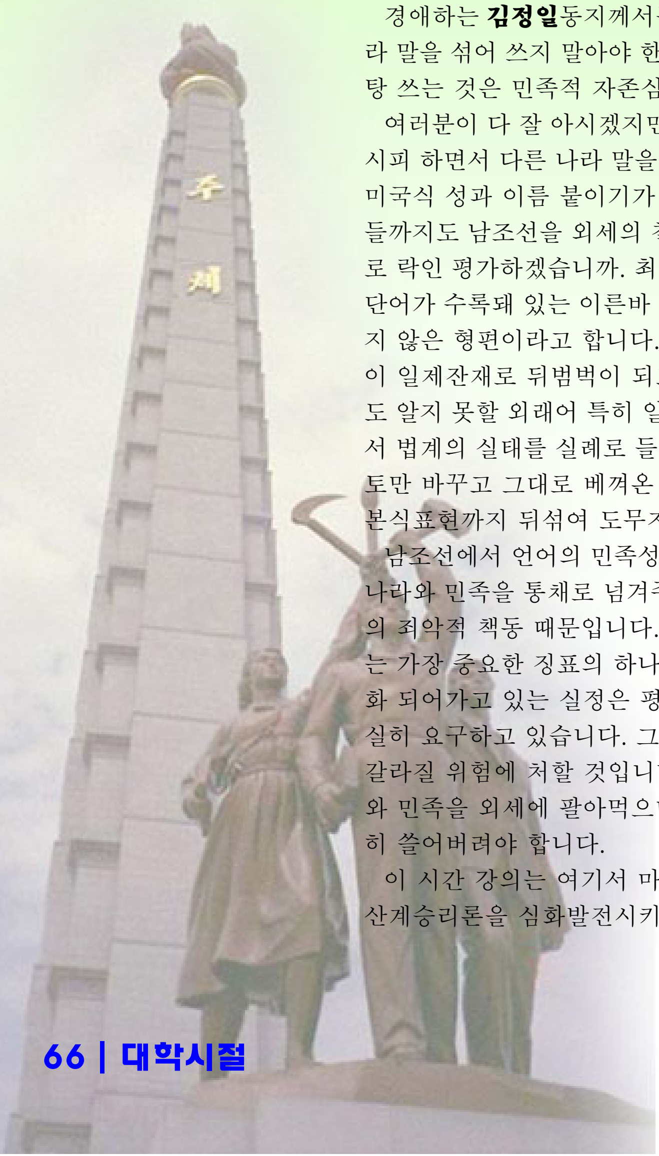
오늘 공화국북반부에서는 고유한 조선말이 적극 살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말이라든가 한문투의 말을 함부로 쓰거나 본딴 것이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52(1963)년 6월에 하신 담화 ≪우리말에 다른 나라 말을 섞어 쓰지 말아야 한다≫에서 ≪고유한 우리말을 쓰지 않고 다른 나라 말을 망탕 쓰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이 없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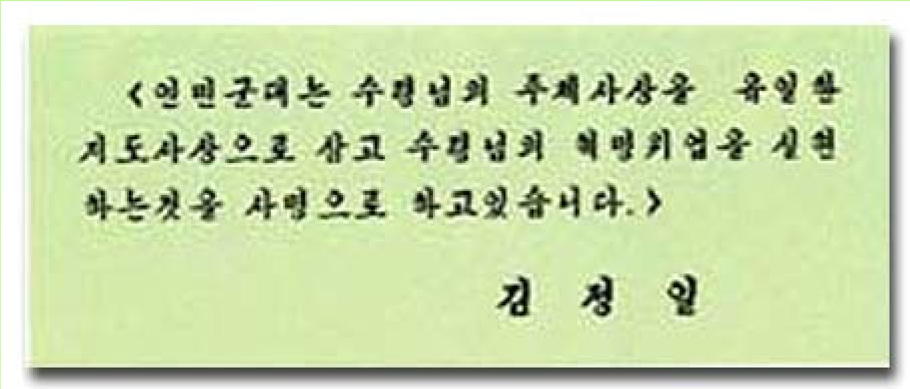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남조선에서는 고유한 우리말을 쓰는 것을 수치로 여기다시피 하면서 다른 나라 말을 망탕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토마스니 수산나니 하는 미국식 성과 이름 붙이기가 유행이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오죽하면 남조선 출판물들까지도 남조선을 외세의 철저한 언어식민지, 국어의 원형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사회로 락인 평가하겠습니까. 최근 남조선 언어학자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30만 개의 단어가 수록돼 있는 이른바 ≪국어사전≫에는 우리말 단어가 불과 5만 개밖에 올라있지 않은 형편이라고 합니다. 남조선 잡지 ≪한겨레21≫은 남조선에서 고유한 우리말이 일제잔재로 뒤범벅이 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신문방송에서 어법에 맞지 않고 뜻도 알지 못할 외래어 특히 일본말이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계의 실태를 실례로 들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법 가운데서 거의 전부가 일본법을 토만 바꾸고 그대로 베껴온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러다 보니 고루한 한문투문장에 일본식표현까지 뒤섞여 도무지 우리말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했습니다.

남조선에서 언어의 민족성이 사멸되게 된 것은 민족적인 모든 것을 말살하고 외세에 나라와 민족을 통채로 넘겨주는 대가로 저들의 권력과 안락을 유지해온 괴뢰통치배들의 죄악적 책동 때문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는 언어입니다. 남조선에서 우리말이 서양화 미국화 일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은 평양말을 기준으로 조선어를 발전시켜나갈 것을 더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이질화되서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질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남조선에서 우리말의 참다운 발전을 이룩하자면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팔아먹으며 온갖 민족적 불행과 재난을 가져오는 반역자들을 철저히 쓸어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민속유산계승리론을 심화발전시키신 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체의 군사사상의 원리


《인민군대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습니다.》

김 정 일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기간에 벌리신 사상리론활동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수령관과 정치학설, 혁명전통과 민족어, 민속유산계승에 관한 문제들에 심오한 사상리론적 해답을 주신 내용들이 언급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시에 진행하신 특출한 사상리론활동을 론할 때 주체의 군사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신 이 측면도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두 강의에 걸쳐서 이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군사사상의 출발적 원리를 처음으로 천명하신 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세계가 공인하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군술로 두 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과정에 쌓으신 풍부한 실전경험 그리고 세계전쟁사의 경험과 교훈을 비판적으로 분석총화한 데 기초하시어 일찍이 주체의 군사사상을 창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학시기에 일찍이 인류역사가 알지 못하는 천하명장이시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군사사상의 출발적 원리를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군사사상의 출발적 원리라고 할 땐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군사문제를 사상리론적으로 전개함에 있어서 출발적인 원리, 기초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그 군사사상리론이 독창적인가 독창적이 아닌가 또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당한 군사사상리론인가 하는 것은 그 출발적 원리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이처럼 군사사상의 출발적 원리가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대 초까지도 이 문제가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해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군사사상의 출발적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고 리론적인 해명이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나니 적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을 선행한 노동계급의 군사사상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의 독창성을 리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에 오신 다음 이러한 현상들을 목격하시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동서고금에 있어본 적이 없는 천하제일의 장군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장군중의 장군이시라고 말하면서도 수령님의 군사사상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행한 로동계급의 군사사상을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군사사상이라고 말하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 주되는 원인이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그 출발적인 원리부터





가 선행한 군사사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보셨습니다. 바로 이로부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의 독창성을 사람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실 결심 밑에 수령님의 군사사상이 선행한 군사사상과 어떻게 다른가, 말하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의 출발적 원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사상리론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은 언제나 혁명실천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시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발전시키시는 데 바쳐졌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의 출발적 원리를 어떻게 천명하셨겠습니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51(1962)년 8월22일에 하신 역사적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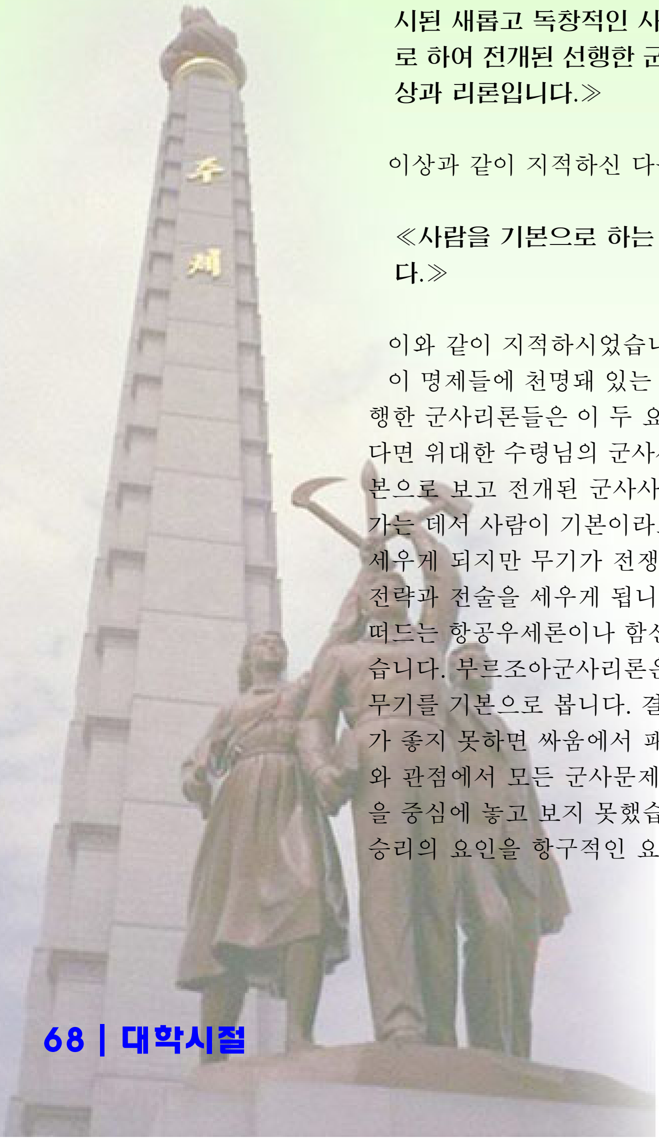
≪어떤 사람들은 수령님의 군사사상을 선행한 로동계급의 군사사상이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두 차례의 혁명전쟁을 영도하는 과정에 쌓으신 실천적 경험, 세계전쟁사의 경험과 교훈을 비판적으로 분석총화한 기초 위에서 창시된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무기를 기본으로 하여 전개된 선행한 군사리론과는 달리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된 군사사상과 리론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신 다음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의 출발적인 원리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이 명제들에 천명돼 있는 바와 같이 무장력은 사람과 무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한 군사리론들은 이 두 요소 가운데서 무기를 기본으로 보고 군사리론들을 전개했다면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리론은 무기를 기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본으로 보고 전개된 군사사상이며 군사리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사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사람이 기본이라고 보면 사람, 군인대중을 중심에 놓고 군사전략과 전술을 세우게 되지만 무기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면 무기만능론에 기초해서 군사전략과 전술을 세우게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부르조아군사리론가들이 떠드는 항공우세론이나 함선우세론, 땅크우세론은 다 무기만능론의 변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조아군사리론은 어느 때나 사람을 기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무기를 기본으로 봅니다. 결국 무기만능론은 무기가 우세하면 싸움에서 이기고 무기가 좋지 못하면 싸움에서 패한다는 리론입니다. 부르조아군사리론은 바로 이런 견해와 관점에서 모든 군사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맑스레닌주의 군사리론에서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지 못했습니다. 스딸린은 쏘독전쟁승리의 요인을 언급하면서 전쟁승리의 요인을 항구적인 요인과 일시적인 요인으로 가르고 항구적 요인이 기본이라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항구적인 요인에 공고한 후방, 군대의 도덕적 품성, 사단의 질과 양, 군대의 무장, 지휘관의 조직자적 능력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공고한 후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고한 후방이란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사상상태를 첫 자리에 놓은 것이 아니라 물질경제적 요인을 첫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요컨대 군사리론을 전개하는 데서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의 역할을 기본으로 전개하는 군사사상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군사사상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군사사상의 출발적인 원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신 분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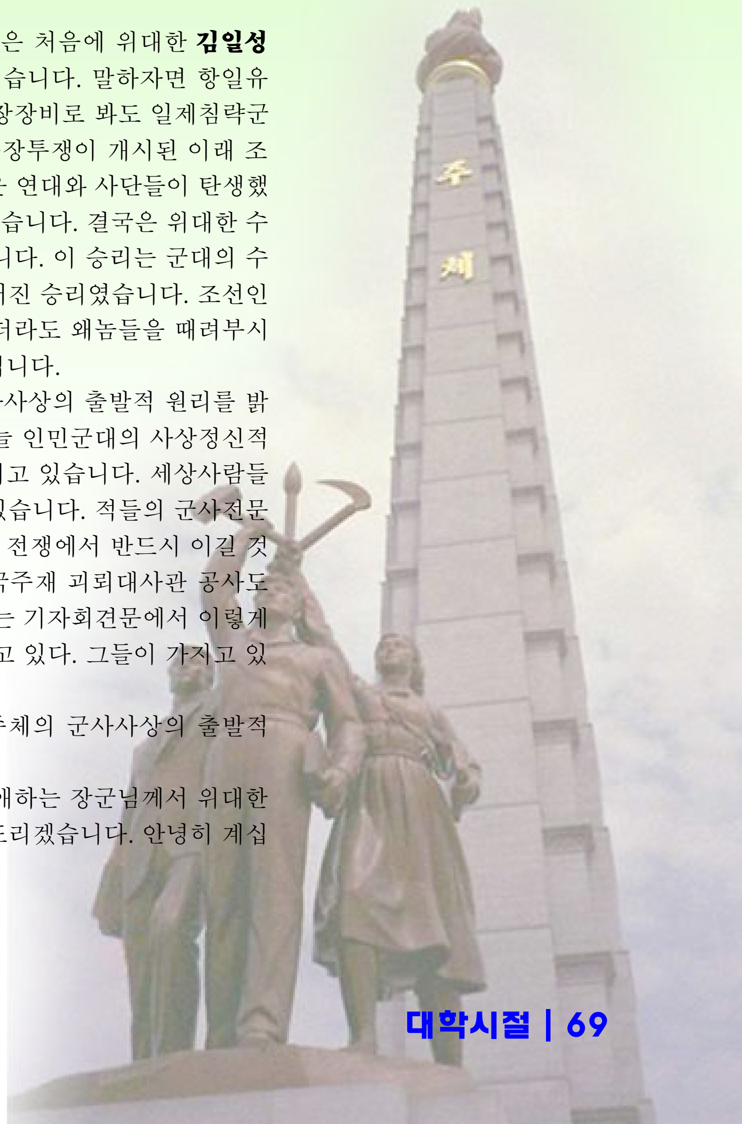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주체의 군사사상의 출발적인 원리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론증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무기만능론을 반대하고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독창적인 군사사상을 창시하시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쓰는 것도 사람이며 전쟁을 하는 것도 사람인 것만큼 사람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군사사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무장상태가 좋으면 싸움에서 유리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무기가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이 명제에 밝혀져 있는 바와 같이 무기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무기를 다루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법칙을 인식하고 리용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이와 같은 역할은 그들의 사상의식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사상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본으로 보는 주체의 군사사상의 출발적 원리는 리치상으로 볼 때 옳을 뿐 아니라 실천상으로 볼 때에도 그 정당성이 어디서나 증명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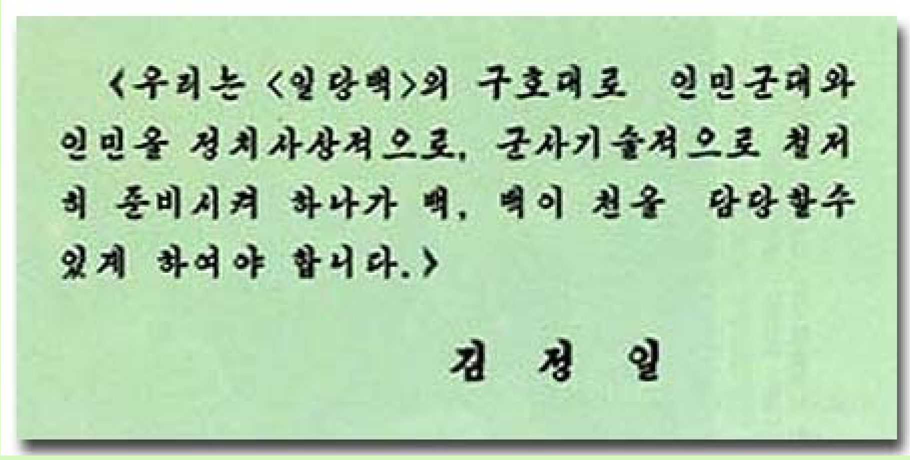
항일무장투쟁을 예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은 처음에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항일유격대를 가리켜 ≪창해의 일속≫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항일유격대는 수량상으로 봐도 일본군에 대비가 안되게 적고 무장장비로 봐도 일제침략군대의 무장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이 개시된 이래 조선인민혁명군은 날이 갈에 따라 치열한 격전 속에서 새로운 연대와 사단들이 탄생했고 동서고금의 병서들에 없는 새로운 유격전법들이 창조됐습니다. 결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이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상이 훌륭했기에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수령님 두리에 단결해서 억천만 번 죽더라도 왜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자는 정신이 차 넘쳤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찍이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군사사상의 출발적 원리를 밝혀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철저히 실천에 구현하셨기에 오늘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 위력은 그 어디에 견줄 데가 없는 강력한 것으로 자랑 떨치고 있습니다. 세상사람들은 조선인민군의 사상정신적 위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군사전문가들까지도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괴뢰합참 전략기획국장과 미국주재 괴뢰대사관 공사도 한 바 있고 현재 일본 스쿠바대학 연구원으로 있는모 인사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기는 자폭정신이다.≫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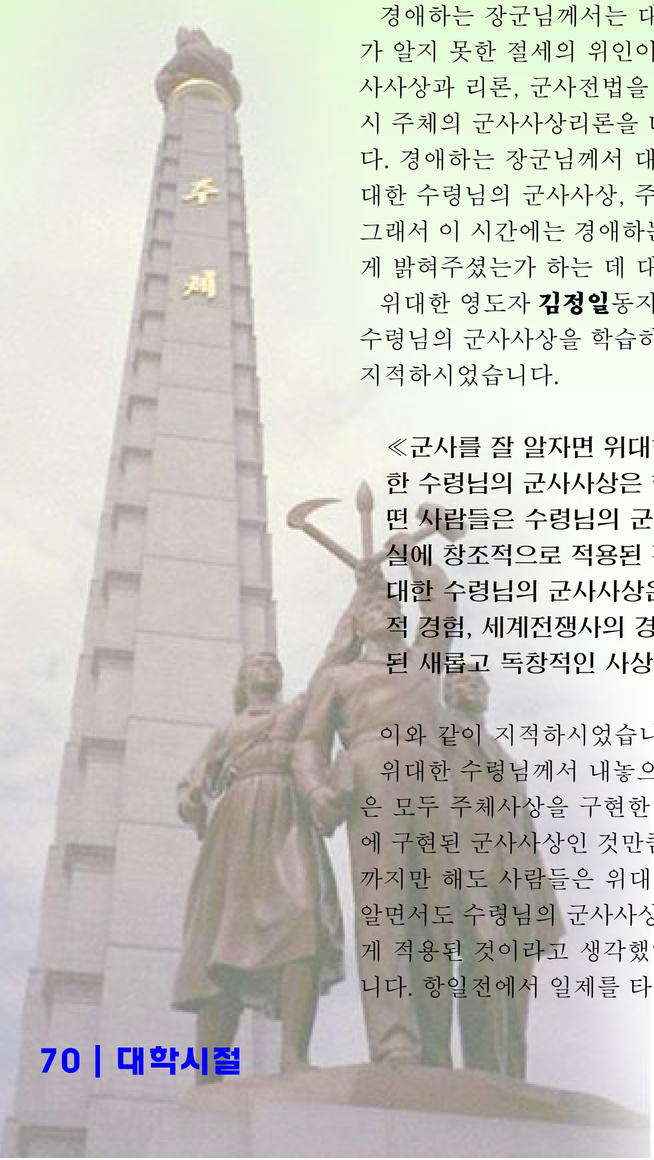
모든 사실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천명하신 주체의 군사사상의 출발적 원리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그대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의 독창성을 밝혀주신 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체의 군사사상의 독창성


《우리는 〈일당백〉의 구호대로 인민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시켜 하나가 백, 백이 천을 담당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일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주체의 군사사상리론을 심화발전시키신 데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에 군사분야에 깊은 조예를 지니시고 일찍이 역사가 알지 못한 절세의 위인이시고 백전노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의 군사사상과 리론, 군사전법을 심오히 체득하셨습니다. 이런데 기초해서 그분께서는 당시 주체의 군사사상리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신 수십 권의 문헌들을 발표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시기에 발표하신 군사분야에 대한 문헌들 가운데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 주체의 군사사상의 독창성을 천명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의 독창성을 어떻게 밝혀주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51(1962)년 8월22일에 하신 담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을 학습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군사를 잘 알자면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을 깊이 연구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혁명전쟁의 실천 속에서 나온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령님의 군사사상을 선행한 로동계급의 군사사상이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두 차례의 혁명전쟁을 영도하는 과정에 쌓으신 실천적 경험, 세계전쟁사의 경험과 교훈을 비판적으로 분석총화한 기초 위에서 창시된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군사사상도 그렇고 군사리론과 전법들도 그렇고 그것은 모두 주체사상을 구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고 독창적인 주체사상이 군사분야에 구현된 군사사상인 것만큼 그것은 독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은 세계가 우러르는 강철의 영장이시라는 것은 알면서도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선행한 로동계급의 군사사상이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항일전에서 일제를 타승한 유격전쟁도 그렇고 조선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을 타

승한 현대전쟁도 그렇고 이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강철의 영장 **김일성**대원수님은 세상에 없는 군사의 영결이시라고 생각했지만 군사사상이나 리론에 대해서는 수령님 자신께서 그 독창성에 관해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옳게 리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르게 리해하지 못하고 있던 이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신 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었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의 독창성에 관해서 어떻게 밝혀주신 것이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무기를 기본으로 해서 전개된 선행한 군사리론과는 달리 사람을 기본으로 해서 전개된 군사사상과 리론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장력이 사람과 무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무기, 둘 중에서 어느 것을 기본으로 해서 무장력을 고찰하는가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군사에 관한 하나의 심오한 철학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중심의 주체철학에 기초해서 무장력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군인이며 군인들의 사상과 도덕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진리를 발견하시고 언제나 이 진리의 선에서 군사를 이끄셨고 전술을 적용하셨습니다. 고대나 중세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장군들이나 군사가들도 다 무기를 중심에 놓고 군사문제를 론의했지 사람, 군인을 중심에 놓고 고찰한 일이 없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무장장비들이 개발되어가지고 전쟁수단으로 리용되면서 더욱더 모든 군사가들은 무기를 기본으로 무장력을 고찰했고 전쟁승리의 요인을 고찰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군사가들은 함대중심론을 부르짖었고 독일의 군사가들은 땅크중심론에 매달렸으며 미국의 군사가들은 항공우위론을 제창했습니다. 먼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맑스레닌주의군사론에서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지 않았습니다. 물적자원, 인적자원과 같은 경제관계를 위주로 군사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선행한 군사리론들과 세계전쟁사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신 기초 위에서 사람위주의 령군철학을 창시하신 탁월한 군사가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뿐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천명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의 독창성을 해명하시면서 다음으로는 수령님의 군사사상에 관통돼 있는 근본사상은 자위사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수령님의 군사사상에 관통되어 있는 근본사상은 자위사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자체의 힘으로 자기자신을 보위할 데 대한 자위사상을 내놓으시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자위라는 말은 자기힘으로 자기를 보위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위의 군사사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군사분야에 구현한 독창적인 군사사상입니다. 자위의 군사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전쟁시기에 처음으로 내놓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전쟁을 개시하실 때 처음부터 그 누구의 지원을 받아가지구 조국광복을 이룩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조선인민 자체의 힘으로 일제와 싸워 나라를 찾으려고 결심하시고 무기나 군수품 같은 것도 일본군대와 괴뢰위만군에게서 빼앗아내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유격대에서는 기관총이나 박격포도 일제침략군의 것을 빼앗아 썼고 유명한 연길폭탄도 유격대의 병기수리소에서 자체로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대 전반기 유격근거지 보위를 위한 가열한 싸움 때에도 유격대와 유격근거지 인민들을 모두 무장시켜 가지고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세우시어 자위의 무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놓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자신을 보위할 데 대한 자위의 군사사상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 제시된 독창적인 사상이며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서 빛나게 구현되어온 위대한 군사사상이라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자위사상이 열





마나 훌륭한 군사사상인가를 로일전쟁을 비롯한 세계전쟁사의 교훈과 조국해방전쟁을 비롯해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전쟁승리.. 경험을 놓고 심오히 분석하셨습니다. 1904년부터 1905년 사이에 있은 로일전쟁은 조선과 중국동북지방을 강탈하기 위한 일본과 러시아 두 제국주의국가들 사이의 약탈적인 전쟁이였습니다. 당시 리조봉건통치배들은 나라의 힘을 키워 외래침략세력을 막으려할 대신에 저마다 외세를 하나씩 등에 업고 당파싸움만 하다보니 결국은 나라가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농락물로 되고 말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로일전쟁의 희생물로 된 당시의 봉건조선의 외세의존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면서 ≪모든 사실은 강한 자위력이 없으면 제국주의전쟁의 희생물로 되고 만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때문에 민족을 옹호보위하기 위해서는 민족군대의 자위적인 군사적 힘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민족분렬의 비극 속에 반세기 이상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조선괴뢰들은 상전을 등에 업고 동족을 참화 속에 몰아넣으려고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 10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면서 련방국가의 10대시정방침 일곱 번째 조항에서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할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련방제통일방안을 실현하는 길에 나서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무기만능론을 반대하고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독창적인 군사사상이며 외세의존을 견결히 반대하고 어디까지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보위하는 독창적인 자위의 군사사상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이 군사사상은 현시대가 군사분야에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인 군사사상이라는 것을 힘있게 논증하셨습니다.

현대전은 기계화전이며 립체전입니다. 기계화전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려면 정치사상적 요인과 함께 군사기술적 요인도 강화해야 합니다. 군사기술적인 문제도 결국에는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사상적으로 준비되는가에 따라 성과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군사사상만이 이 문제도 옳게 풀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립체전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에도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는 조건에서 현대전에서 승리하려면 정규적인 무력과 민간무력을 다 강화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전체 인민에게 다 총을 메워야 합니다. 이 문제 역시 무기만능론이나 외세의존으로써는 풀 수 없으며 오직 자위사상에 기초한 전인민적 방위체계를 세울 때만 풀 수 있습니다. 이러구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은 백과전서적인 군사사상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백 번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시기에 발표하신 고전적 노작들을 통해서 걸출한 사상리론가로서의 그분의 위인상을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를 발표하신 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봄날의 진눈깨비도 달게 맞으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 (1975.3)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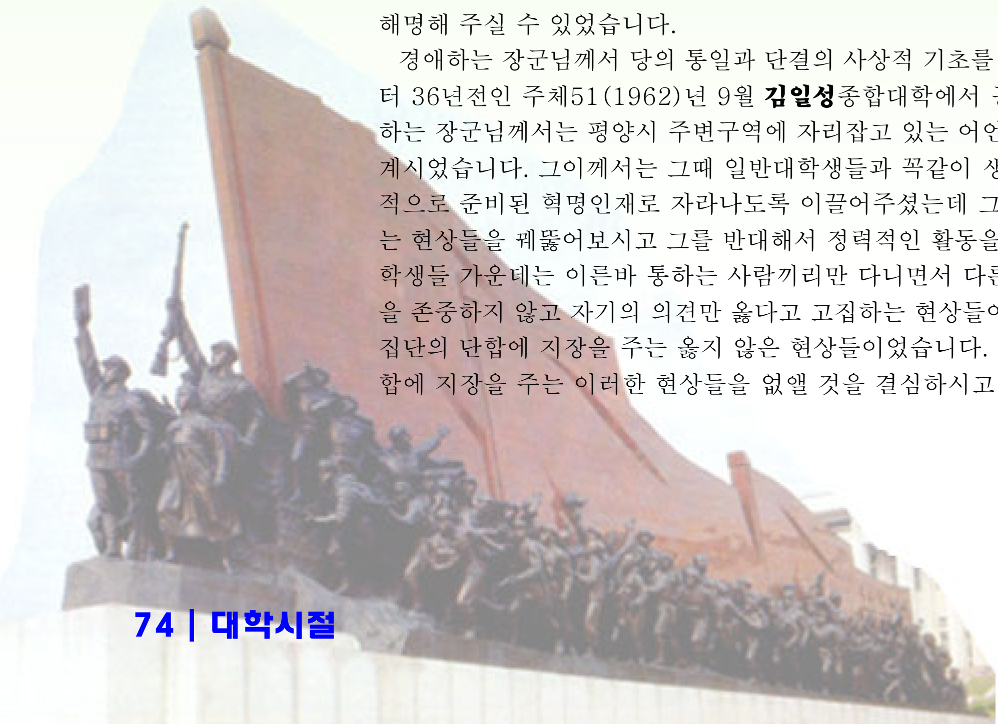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전 시간들에 이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에 벌리신 사상리론활동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들에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 당시 수령관에 관한 문제, 정치학설과 혁명전통, 민족어와 민속유산계승에 관한 문제, 이밖에 주체의 군사사상과 관련해서 심오한 사상리론적 해답을 주신 데 대해서 애기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그이께서 대학기간에 발표하신 1,500여 권에 달하는 론문과 연설 담화들 가운데서 아홉 권을 골라 따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고전적 노작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 이 로작을 발표하신 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외국인은 공화국북반부 방문인상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북조선이 원자탄이나 수소탄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선 인민이 수령의 주위에 성벽처럼 둘러섰으니 그 요새를 무엇으로 허문단 말인가. 그 어떤 무기로써도 북조선의 성벽을 허물어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우리 공화국북반부의 위력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을 리해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째서 제국주의자들도 공화국북반부에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북반부에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고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을 이룩한 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결 그것은 곧 힘이고 혁명대오의 생명입니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되면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치 못합니다. 하기에 세상에 생겨난 최초의 로동계급의 당의 구호도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단결의 진리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만 소수에 대한 다수의 강대성, 개인에 대한 집단의 우월성으로만 일반적으로 리해해왔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보다 둘의 힘이 강하고 둘보다 셋의 지혜가 위력하다는 것은 구태여 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리치입니다. 백 수십 년에 걸치는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통일단결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날카로운 문제로 제기되 왔지만 그 누구도 단결의 진리 속에 깔려있는 심오한 원리적 기초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선행고전가들은 당의 통일과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쳤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절세의 위인이시며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통일단결의 사상적 기초와 중심을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의 통일과 단결의 사상적 기초를 명백히 제시하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36년전인 주체51(1962)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시던 시기입니다. 당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평양시 주변구역에 자리잡고 있는 어언동에서 군사야영훈련에 참가하고 계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그때 일반대학생들과 꼭같이 생활하시면서 대학생들을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혁명인재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셨는데 그 과정에 집단의 단합에 저해를 주는 현상들을 꿰뚫어보시고 그를 반대해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셨습니다. 그때 일부 당원 대학생들 가운데는 이른바 통하는 사람끼리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비하거나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집단의 단합에 지장을 주는 옳지 않은 현상들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집단의 단합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현상들을 없앨 것을 결심하시고 군사야영지에서 당세포총회를 마





련하셨습니다. 세포총회가 옳게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세포총회를 결속하시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 라는 역사적인 결론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결론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이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새롭게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장군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결론내용을 좀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결론에서 무엇보다도 당의 통일과 단결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라는 것. 이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해야 당의 존재 자체를 유지할 수 있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지적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천명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과 단결은 반드시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지 않은 당은 사실상 당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그런 당은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당은 당을 직접 창건하시고 영도하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명제에서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과 단결은 반드시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시었습니다.

그러면 왜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과 단결이 수령의 사상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수령의 사상이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사상이며 통일단결의 사상적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은 실무적 단합이 아니라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인 단합으로 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맺어진 단합은 오래 가지 못하며 공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맺어진 단합에는 같은 목적과 지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분렬된 당들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해서 단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들이 분렬된 경위를 보면 당 안에 기회주의가 침습해서 당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들을 가

지게 돼서 그것이 조직적인 결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에 기초해서 사상의지적으로 뭉칠 때에만 같은 신념과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혁명은 혁명대오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해서 단결한 때로부터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당에 있어서는 우리당을 직접 창건하고 영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해서 통일단결되어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당은 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해서 통일단결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우리시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올바른 지도사상이며 로동계급의 가장 정확한 혁명적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사상의지적 단합은 가장 정확한 혁명사상에 기초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확한 혁명사상만이 사람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옳은 관점과 곧바른 길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천을 통해서 사상의 정당성을 확신할 때 그 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당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사상적 기초입니다.

우리당이 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해서 통일단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둘째로 우리당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인 것만큼 노동계급의 당 안에는 하나의 사상, 수령의 사상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의해서 지도되는 당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당입니다. 우리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해서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해야만 혁명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세포총회의 역사적 결론에서 당의 통일단결이 바로 다름 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이라는 고전적인 정식화를 내리시면서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명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당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사고와 행동에서 기준을 잃게 되고 여러가지의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잘 말해줍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어느 한 변절자는 알지도 못하는 고전의 명제나 외우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하지 않다 보니 조선혁명노선도 모르고 혁명정세도 옳게 보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혁명을 배반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우리당 안에 잠입했던 교조주의자 사대주의자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학습하지 않고 밤낮 다른 나라 신문이나 읽으면서 당의 목소리와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역사적인 결론에서 당이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자면 이밖에도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본질과 해독성을 깊이 깨닫고 그 자그마한 요소도 견결히 반대해서 투쟁하며 조직생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전적 노작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수령님의 독창적인 통일전선사상의 빛나는 결실≫ 이 로작을 발표하신 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50(1961)년 12월9일에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원과 한 담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를 학습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분께서 당시 왜 이와 같은 역사적인 담화를 하시게 됐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역사적인 담화를 하시던 때로 말하면 그분께서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신 때로부터 1년 석 달이 좀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으로 말하면 전문분야의 수많은 우수한 학자들을 가지고 있는 명성높은 대학입니다. 대학은 창립이래 오랫동안의 꾸준하고도 정력적인 탐구와 교육실천을 거쳐 교수내용과 교수방법에서 높은 과학성과 진리성을 담보하고 있는 우리 나라 과학의 최고전당의 영예를 고수해왔습니다. 특히 대학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면서부터 말 그대로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변혁의 시기가 어떻게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서 공부하시게 됐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린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정치경제학의 서론강의를 몇 시간 들어보시면서부터 그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오던 서론강의체계를 교조적으로 본딴 것이라는 것을 대뜸 알아보시었습니다. 그후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치경제학의 전반 체계와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게 되셨습니다. 어느날 수업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학생들에게 몇일 전에 과도기의 필연성과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해서 배운 다음 반제반봉건적 사회경제개혁에 대해서 강의를 받았는데 정치경제학의 이런 서술체계에 대해서 생각되는 점이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이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렇게 강의받은 것이 사실이었고 정치경제학 사회주의편 교재도 분명 그런 순서로 내용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의문되는 점이 있었겠습니까. 정치경제학의 사회주의편은 사회주의혁명문제를 론의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응당 사회주의혁명부터 내용이 서술되야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모든 대학들에서 오랫동안 물려내려오던 그 정치경제학의 교재서술체계에 의문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학생들에게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필연성을 먼저 고찰한 다음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문제를 해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보편성과 일반성에 모순되는 견해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못하고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남아있던 나라들에서는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인차 과도기과업수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부터 수행하게 되며 우리당이 제기한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는 사회주의혁명과업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의 일환으로 제기됐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이께서는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가 그러한 역사적 단계에서 수행되는 사회경제적 변혁인 것만큼 응당 과도기문제에 앞서 취급되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참으로 경탄을 자아내는 론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발전단계를 정상적으로 거친 나라들에서는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다음 직접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했습니다.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서는 정치경제학의 사회주의편을 사회주의혁명문제로부터 서술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처럼 과도기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간의 호상관계문제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경제학교재 편찬자들은 다른 나라의 이러한 서술체계를 교조주의적으로 되받아넘기다나니 결국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맞지 않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역사적 지위도 정당하게 해명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을 발생시켰던 것입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의 전반 체계와 내용에서는 기성리론에 억지로 갖다 맞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치경제학만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록 경제학부에 적을 두고 계셨지만 철학, 역사학, 문학, 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분야의 리론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시고 유사한 결함들을 발견해 내셨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러한 결함들을 빨리 고치고 우리식으로 개혁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셨습니다. 그 사업의 한 고리로서 그분께서는 주체50(1961)년 12월9일에 경제학부 교원과 역사적인 담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담화에서 어떤 내용들을 밝혀주셨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우선 과학연구사업과 교수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5년 12월에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라는 역사적인 노작을 발표하신 때로부터도 6년이 됐지만 아직도 일부 학자들은 교조주의적이며 사대주의적인 사상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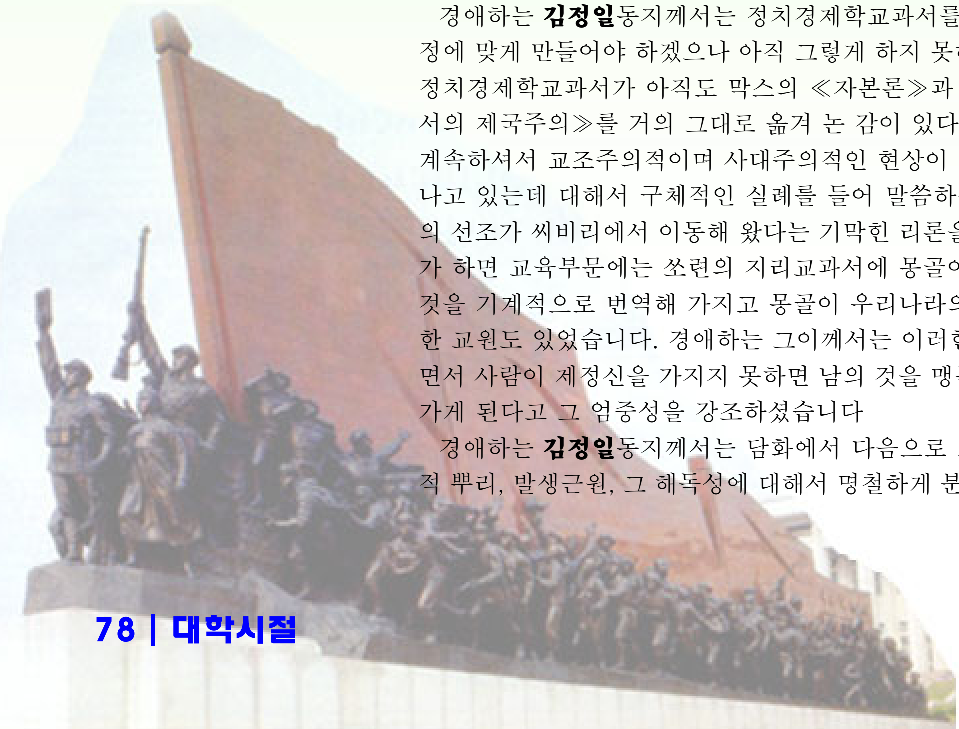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지금 정치경제학을 비롯한 적지 않은 대학교과서들은 다른나라 사람들이 쓴 교과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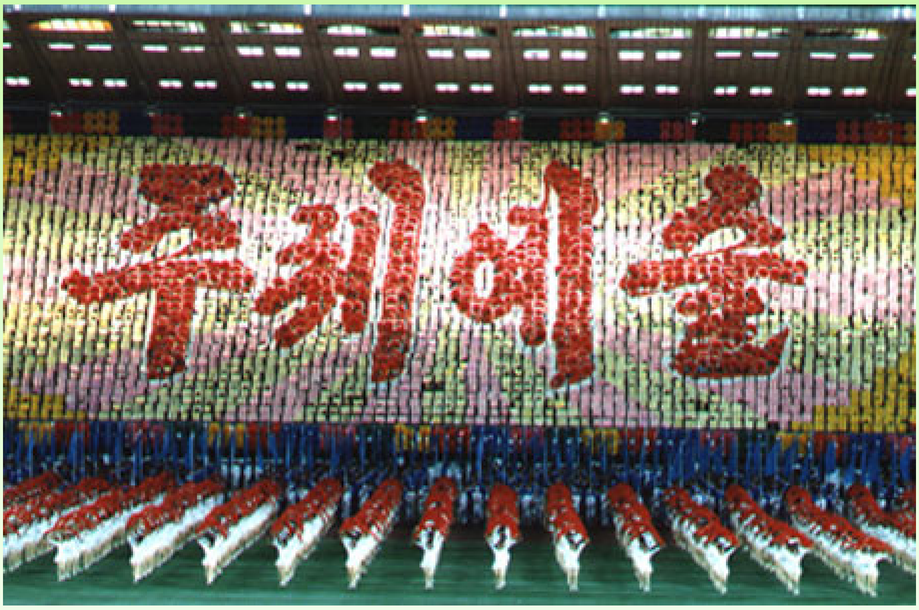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정치경제학교과서를 우리당의 사상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하겠으나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 정치경제학교과서가 아직도 막스의 ≪자본론≫과 레닌의 ≪자본주의의 최후단계로서의 제국주의≫를 거의 그대로 옮겨 논 감이 있다고 지적하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셔서 교조주의적이며 사대주의적인 현상이 다른 과학분야에서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학계에는 조선사람의 선조가 씨비리에서 이동해 왔다는 기막힌 리론을 내놓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문에는 쏘련의 지리교과서에 몽골이 자기나라의 동남쪽에 있다고 한 것을 기계적으로 번역해 가지고 몽골이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강의한 교원도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지 못하면 남의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숭배하는 데로 나가게 된다고 그 엄중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담화에서 다음으로 교조주의 사대주의의 본질과 역사적 뿌리, 발생근원, 그 해독성에 대해서 명철하게 분석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밝혀주신



데 의하면 교조주의는 자기가 처한 구체적 조건은 타산하지 않고 고전의 명제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채로 삼키는 그릇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사대주의는 큰 나라를 숭배하는 사상 다시 말해서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에 아부굴종하는 사상입니다. 다음으로 사대주의는 그 역사적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대주의는 세 나라 말기 신라봉건통치배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고구려에는 사대주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나라들이 고구려의 강대성에 대해서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춘추나 김유신을 비롯한 신라의 통치배들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동족의 나라인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대주의가 통치배들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그 발생근원을 보면 그것은 다 환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나라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면 사대주의를 하게 되고 고전의 명제나 다른나라의 경험에 환상을 가지게 되면 교조주의를 하게 됩니다. 교조주의와 사대주의의 해독성은 매우 엄중합니다.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교조주의와 사대주의의 가장 큰 해독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수 없게 합니다. 다음으로 그 해독성은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매개로 해서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조류가 흘러들어온다는 데 있습니다. 교조주의와 사대주의에 물젖은 사람들은 남이 수정주의를 하면 자기도 수정주의를 하고 남이 좌경을 하면 자기도 좌경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제갈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머저리가 되게 됩니다. 이밖에도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는 당정책의 관철을 방해하며 종파주의를 초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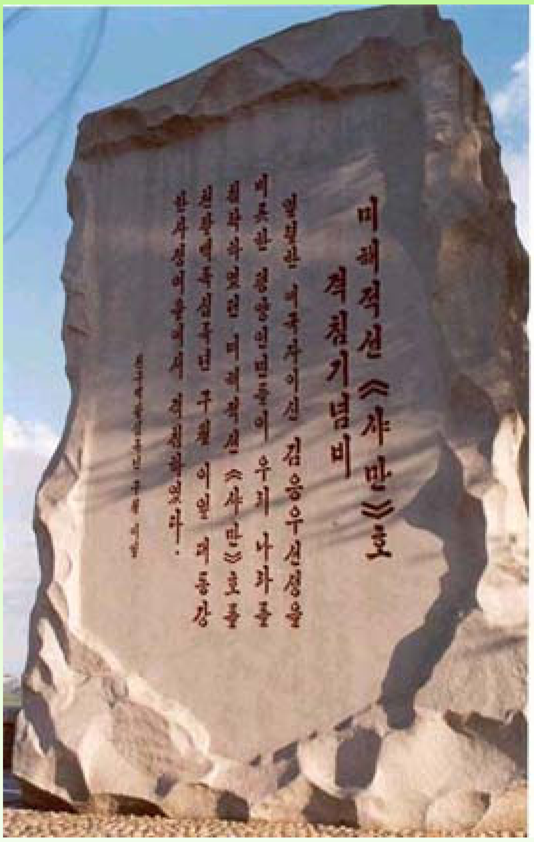
경애하는 장군님의 역사적인 담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는 당시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도록 하는 데서 참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졌습니다. 정치경제학은 그 기본체계로부터 구체적인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우리식으로 개편되기 시작했고 다른 사회과학분야의 리론들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새롭게 개작되게 됐습니다.

이상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해독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 이 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말이지 사대와 외세의존은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입니다. 남조선의 역대괴뢰통치배들이 감행해온 사대매국 외세의존책동은 그것을 더욱 웅변으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현정권이 등장한 지도 몇 달이 됐으나 사대매국 외세의존정책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정부라는 간판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매국배족적 행위들만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남조선강점미군철수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미제침략군이 절대로 철수해서는 안된다고 하니 이런 사대매국책동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외자로 망한 경제를 외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것으로 살려보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남조선괴뢰통치배들은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역사의 엄연한 진리를 잊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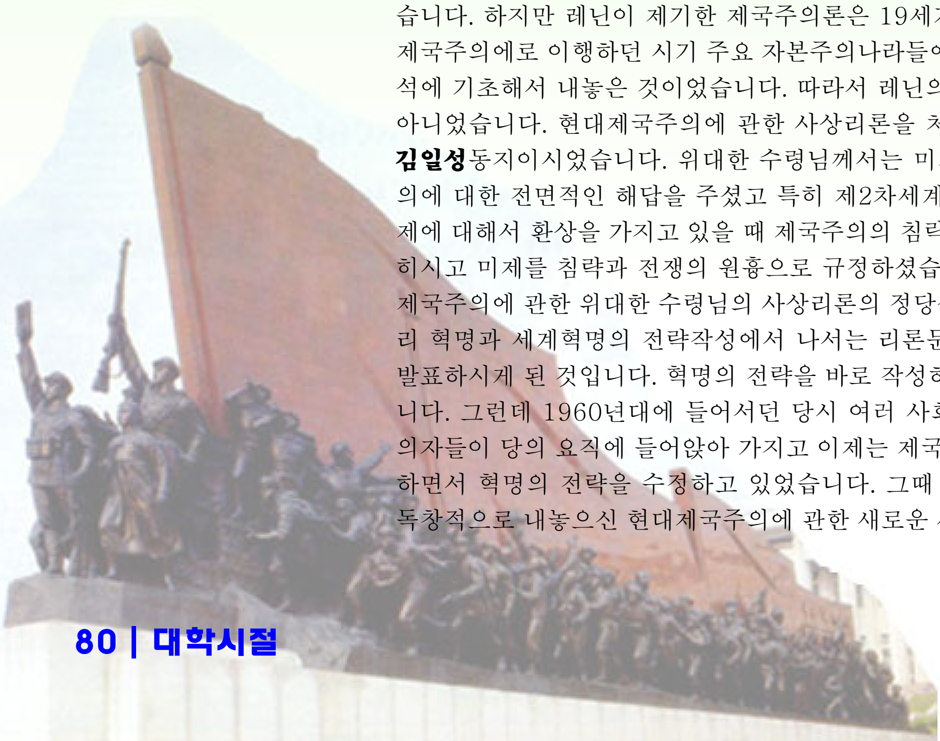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51(1962)년 1월15일에 발표하신 고전적 노작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이 로작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고전적인 로작에서 현대제국주의론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혁명운동리론사에서 처음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의거하고 있는 현대제국주의론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 로작을 집필하시게 된 취지와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로작을 내놓으시면서 자신께서 이 로작을 집필하시게 된 취지를 두 가지 면에서 피력하셨습니다. 그 취지의 하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제국주의론을 옹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 취지의 다른 또 하나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실천적 요구를 해결하시기 위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종래에는 제국주의론 하면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레닌이 제기한 제국주의론은 19세기말 20세기초에 자본주의가 방금 제국주의에로 이행하던 시기 주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어난 새로운 현상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현대제국주의론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제국주의에 관한 사상리론을 처음으로 밝히신 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을 주셨고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을 때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시고 미제를 침략과 전쟁의 원흉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제국주의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독창성을 전개하시는 한편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전략작성에서 나서는 리론문제에 해답을 주시고저 이 로작을 발표하시게 된 것입니다. 혁명의 전략을 바로 작성하려면 혁명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던 당시 여러 사회주의집권당들에서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당의 요직에 들어앉아 가지고 이제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이 변화됐다고 하면서 혁명의 전략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당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현대제국주의에 관한 새로운 사상에 기초해서 혁명의 전략을 작




미국간첩선 푸에블루호

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면에서는 막스레닌주의고전을 우상화해온 사정으로 해서 정치경제학 강의에서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기본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19세기말 20세기초 산업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이행하던 시기의 제국주의를 분석해서 그 특징과 역사적 지위를 밝힌 이론이었습니다. 이런 리론이 50년이 지난 20세기 후반기에 와서 현실에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원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제국주의문제라고 하면 덮어놓고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기본으로 놓고 고찰했습니다. 1961년 3월에 대학에서는 제국주의의 특징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의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생각이 많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문제는 단순한 학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전략전술의 기초를 밝히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연구에 교원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게 하시는 한편 주체50(1961)년 7월에는 친히 학과토론에 출연하셔가지고 현대제국주의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을 체계화하시고 그 정당성을 해설론증하시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반년이 지난 주체51(1962)년 1월15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제국주의론을 집대성한 역사적인 론문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를 발표하셨습니다. .

그럼 로작의 기본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습니까. 론문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1. 현대제국주의의 특징에 대하여
2. 현시기 제국주의침략의 악랄성과 교활성에 대하여
3.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부인하는 수정주의자들의 견해의 반동성에 대하여

이 론문의 체계를 봐도 여기에는 현대제국주의에 관한 전반적인 리론이 집대성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론문의 첫째 체계에서 그이께서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세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분석하시고 현대제국주의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의 첫째 체계를 집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현대제국주의는 단순히 독점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정치경제적 기초로 하고 있으며 구식민주의가 아니라 신식민주의에 의거하고 있으며 서로 병렬적으로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여 종속적으로 재편성되어 있으며 장성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급속히 쇠퇴몰락하면서 최후발악하고 있는 제국주의이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특징에서 출발점으로 되는 것은 현대제국주의가 지난날의 제국주의와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야 현대

제국주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제국주의의 특징을 어떤 각도에서 밝혀내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학자들 속에서는 현대제국주의를 해설하는 내용들을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기초해서 주로 전개했습니다. 제국주의를 분석한 레닌의 대표적인 저작은 ≪자본주의의 최후단계로서의 제국주의≫ 라는 저작입니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을 내놓으면서 독점의 지배, 금융자본과 그에 기초한 금융독점의 실시, 자본수출, 국제독점과 세계의 경제적 분할이라는 5대특징을 밝혔는데 이것은 주로 경제적 면에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선행고전가들이 경제관계를 중심에 놓고 제국주의의 특징을 규정하는 방법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체의 방법론에 의거해서 현대제국주의의 4대특징을 규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제국주의는 첫째로 무엇을 정치경제적 기초로 하고 있는가, 둘째로 식민지지배에서는 지난날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셋째로 제국주의나라 호상관계에서는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넷째로 안으로부터 썩고 있는 제국주의의의 상태는 어떤가. 이와 같이 제2차대전 이후 심화된 자본주의의 모순과 현대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기초, 식민지예속국가들을 지배하고 약탈하는데서 실시하고 있는 신식민주의적 정책,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각도에서 현대제국주의의 특징을 서술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전면적으로 분석되고 밝혀진 현대제국주의의 특징에 기초할 때만이 매개 나라 혁명의 전략도 그렇고 세계혁명의 전략도 옳게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더라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이론은 혁명실천에 거대한 기여를 하는 위대한 문헌이며 동시에 빛나는 **김정일**동지께서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천재이십니다. 이 론문을 내놓으실 때 그이의 나이는 스무 살이시었습니다. 인류사상사에서 그 어떤 사상가, 이론가도 그처럼 젊은 시절에 세계전략의 리론을 내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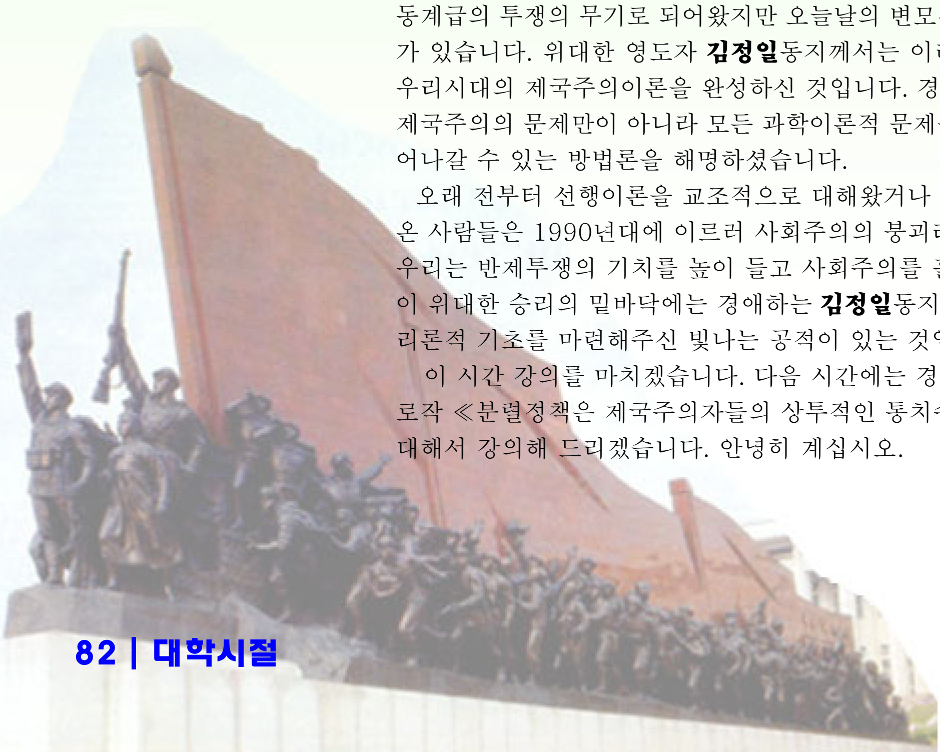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론문의 둘째 체계와 셋째 체계에서 상세하고 풍부한 자료에 기초해서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 제국주의침략의 악랄성과 교활성 그리고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부인하는 수정주의자들의 견해의 반동성을 심오히 론증하셨습니다.

요컨대 고전적 노작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가 창조해낸 우리시대의 완성된 제국주의론입니다. 하기에 인도 델리종합대학 교수 랄람프라파드는 경애하는 **김정일**각하는 현대제국주의론의 창시자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

그러면 이 로작의 발표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고전적 로작이 발표됨으로 해서 기성의 리론으로는 풀 수 없었던 현대제국주의의 전모를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전까지는 제국주의의 역사적 지위를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 그 정치경제적 기초를 독점자본주의로 해석해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해서 로동계급의 투쟁의 무기로 되어왔지만 오늘날의 변모된 제국주의를 해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제한성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우리시대의 제국주의이론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비단 제국주의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이론적 문제들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정확히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론을 해명하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선행이론을 교조적으로 대해왔거나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부인해온 사람들은 1990년대에 이르러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엄청난 현실을 당하게 됐지만 우리는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훌륭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승리의 밑바닥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반제투쟁의 전략작성의 사상리론적 기초를 마련해주신 빛나는 공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 로작 ≪분렬정책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통치수법이다≫ 이 로작을 발표하신 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전 시간들에 이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기 불후의 저작들을 발표하신 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53(1964)년 3월18일에 졸업론문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발표하신 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있은 강의들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종합대학시기에 지칠 줄 모르는 심오한 탐구와 창조적인 사색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새롭고 중요한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는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셨습니다. 이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고 가일층 발전풍부화 시키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고전적 노작들을 수많이 집필하셨습니다. 모든 노작들이 다 그러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졸업론문으로 집필하신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은 리론의 과학성과 심오성에 있어서나 실천상에 있어서 매우 특출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론문의 집필과정을 통해서 혁명가는 어떤 목적과 사명, 연구태도와 노력으로 글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어떻게 옹호하고 발전풍부화시켜 나가야 하는가 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왜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문제를 졸업론문으로 선정하셨는가 하는 데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시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졸업론문제목을 바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경제학 졸업론문제목은 수령님

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경제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당 경제정책의 정당성, 생활력 같은 문제를 선정할 수도 있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들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졸업론문에서 순수리론문제나 이미 남들이 다 해명한 문제들을 다시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졸업론문에서는 새롭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잡으신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문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기본고리를 푸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아직 학계에서도 전면적인 해명이 주어지지 않은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창성군에 몸소 시범을 창조하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 거점과 그 역할에 관한 문제가 비로소 해결을 보게 됐었지만 수령님께서 역사적인 창성연석회의에서 하신 교시를 깊이 있게 해설한 글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학부의 교원 학자들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가 노는 역할문제를 옳게 푸는 것이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매우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성의 관념과 리론적 전제만 가지고서는 좀처럼 풀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연구과제로 삼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미개척지나 다름없는 문제를 졸업론문으로 선정하시고 그것을 2내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낼 결심 밑에 참으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도 농촌문제와 지방공업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교시들을 체계적으로 심오히 연구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소 여러 지방들에 나가셔서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현실자료들을 수집하시고 국가계획위원회와 경제지도기관들에서 종합하신 실태자료들을 분석하시었습니다. 한편 선행고전가들의 리론에 대한 연구와 총화도 하시고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정책들과 그와 관련된 자료들도 참고적으로 보셨습니다. 이렇게 한 달 남짓한 기간 방대한 양의 문헌연구와 자료조사사업을 끝내시고 집필에 착수하셔서 계획된 기간 내에 론문을 완성하시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체53(1964)년 3월18일 졸업론문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결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론문에서 어떤 문제들을 밝혀주신 것이겠습니까.

론문의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 거점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
2.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 단위로서의 군
3.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의 거점으로서의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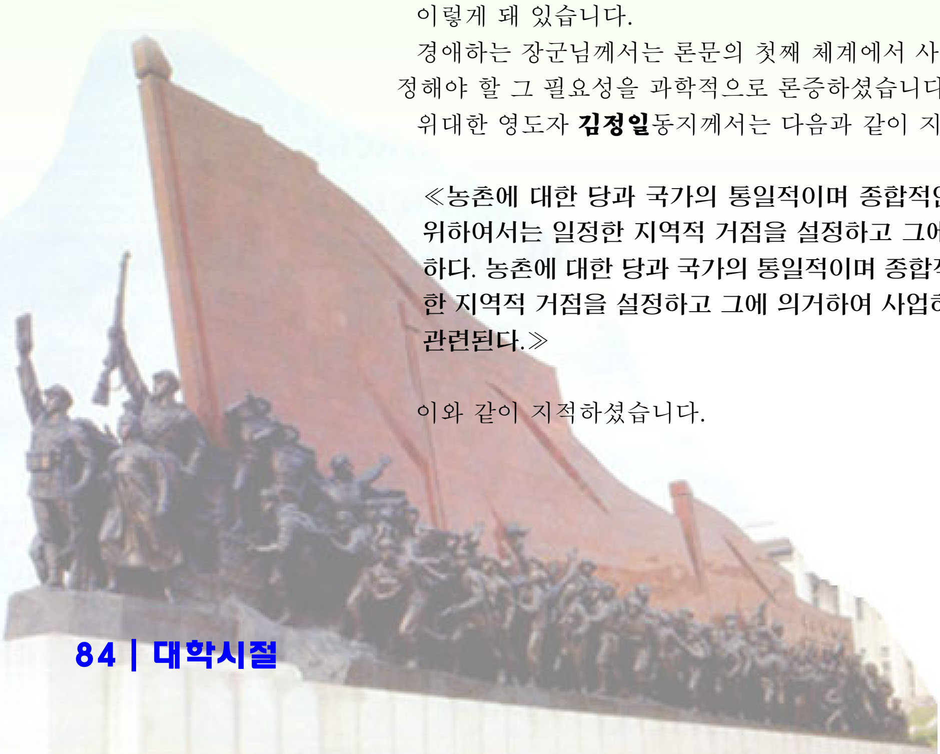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론문의 첫째 체계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 거점을 설정해야 할 그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지역적 거점을 설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지도를 실현하는 데서 일정한 지역적 거점을 설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여야 하는 것은 농촌의 특성과 관련된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지역적 거점을 설정해야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당과 국가의 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역적 거점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농촌에 직접 침투시키고 농업생산을 비롯한 지방경제와 문화를 지도하고 발전시키는 데 유리한 단위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접촉점, 연결점으로 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그러한 단위는 바로 군이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론문의 둘째 체계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 단위와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과 그것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밝혀주셨습니다. 이 부문은 론문에서 중심내용을 이룹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지역적 거점으로서의 군은 무엇보다도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인 단위로 된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론문의 이 부문에서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 단위로서의 군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지방경제의 종합적 발전이 가지는 의의와 군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 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을 심오히 논증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론문의 셋째 체계에서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연계의 거점으로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경제적 연계의 제공간과 그의 호상관계를 새롭게 해명하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먼 앞날에 가서도 농촌 리들은 농촌의 생산세포, 공급세포, 봉사세포로 남아 있을 것이며 군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경제적 거점으로, 농촌에 대한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 거점에 관한 사상은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시고 결론을 마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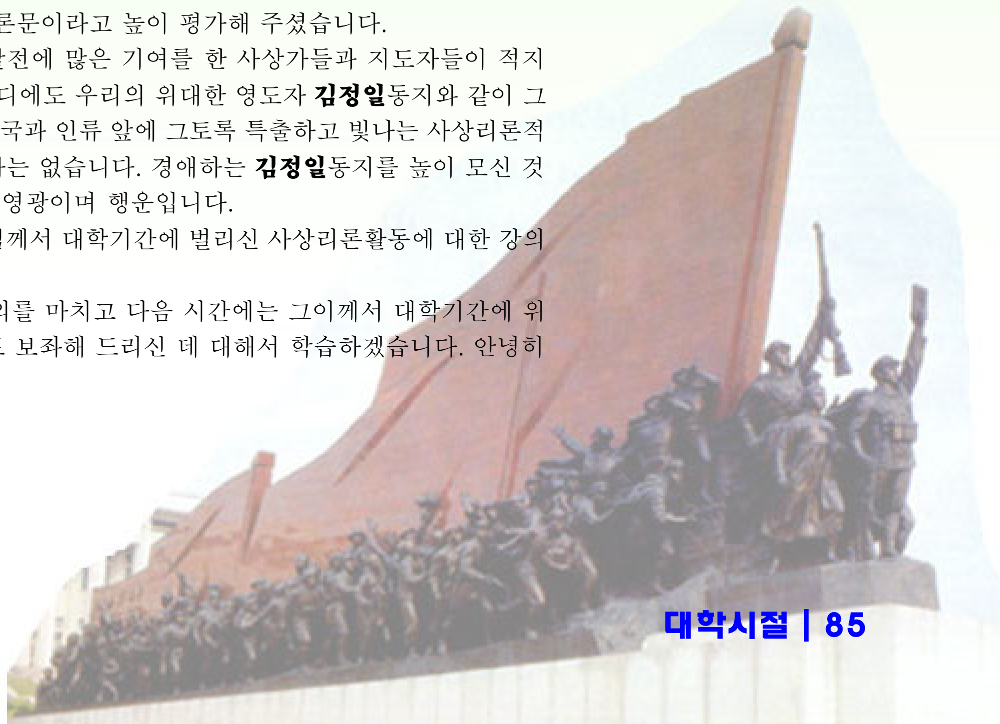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졸업론문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은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탐구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지역적 거점에 관한 사상리론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심화발전시킨 역사적 문헌이며 사회주의건설리론을 풍부히 전개한 고전적 노작입니다. 하기에 학술적인 문제에서는 그처럼 엄격한 로교수와 학자들도 격동된 심정을 누를 길 없어 불멸의 과학적 업적을 이룩하신 그분의 두 손을 부여잡고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드렸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시며 일찍이 역사가 알지 못한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학과정의 빛나는 총화인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졸업론문을 보시고 아주 훌륭한 론문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시대와 역사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사상가들과 지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와 같이 그토록 젊은 나이에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류 앞에 그토록 특출하고 빛나는 사상리론적 업적을 쌓아올린 사상가나 지도자는 없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다시없는 영광이며 행운입니다.

이 시간 강의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기간에 벌리신 사상리론활동에 대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이 시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이께서 대학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를 정력적으로 보좌해 드리신 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보좌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어 벌리신 혁명활동을 학습해 왔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조적인 사색과 정력적인 탐구, 세심한 지도로 대학생들의 학습과 대학교육내용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신데 대해서 그리고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지도적 수완으로 대학생들을 참다운 공산주의 혁명가로 준비시켜 나가신 데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 학습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학시절은 단순히 대학에서의 과학탐구와 사상리론활동, 사회정치활동에만 머무른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대학시절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를 적극 보좌해 드리신 충성의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를 적극적으로 보좌하신 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 방학과 같은 유리한 기회를 리용하셔서 온 나라 방방곡곡을 쉬임없이 찾으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곤 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를 정력적으로 보좌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시에 수행하신 보좌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평안북도 창성과 삭주 일대에서 경제실태를 요해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 드리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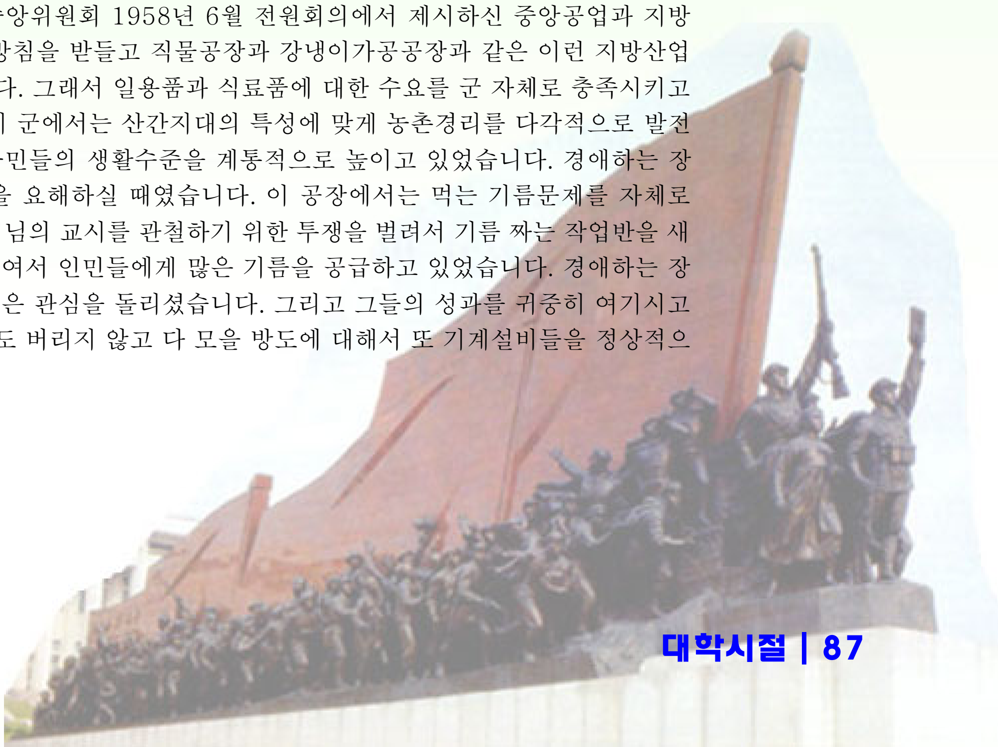
주체51(1962)년 8월7일부터 8일까지 평안북도 창성군 창성읍에서는 지방당및경제일꾼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를 간단히 ≪창성연석회의≫라고도 부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회의를 여신 목적은 창성군의 경험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성군의 경험이란 한 마디로 말해서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킨 것입니다. 창성군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급속한 전진을 이룩한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영도의 결과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장 궁벽한 산골의 하나인 창성 삭주지방을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이 꽃펴나는 지상낙원으로 꾸리시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이 지방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창성 벽동 삭주 이 일대로 말하면 예로부터 두메산골로 이름높은 고장이었습니다. 화전민들이 대대로 모지랑호미로 돌밭을 뚜지며 도토리죽으로 연명해오던 궁벽한 지대였습니다. 전쟁이 가열하던 때인 주체39(1950)년 10월에 창성을 찾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그곳 농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산골사람들이 잘 살자면 산을 잘 리용해야 한다고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전후에는 해마다 그곳을 찾으셔서 농산과 축산을 어떻게 배합하며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다각경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방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그 나날 어버이 수령님께서 바치신 로고는 참으로 끝이 없습니다. 그이께서 찾으신 이슬내린 밭머리며 축산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걷고 걸으신 험준한 산길은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산골의 찬 날씨 벼농사가 걱정되셔서 논사이로 흘러드는 도랑물에 손을 담그어 보기도 하시고 강냉이밭, 고추밭을 찾으시고는 풍작을 이룰 방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산업을 발전시켜나갈 구체적인 방도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창성땅에는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호미 한 자루 변변히 벼리지 못하던 이곳에 직물공장, 식료가공공장을 비롯한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서고 산간마을에는 궁궐 같은 유치원과 탁아소, 학교와 병원, 문화주택들이 늘어섰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온 군이 먹고 남을 알곡이 쏟아졌고 산은 산마다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됐고 그 기슭에는 집짐승 떼가 구름처럼 흘렀습니다.

산골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벌방사람들 못지 않게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모범을 창성에서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나라에 그를 일반화하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지방당및경제일꾼연석회의를 바로 여기 창성에서 여신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를 여시기 전인 1962년 7월 하순에 현지에 나가시어 회의준비를 하고 계시었습니다. 당시 어버이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수행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회의 참가자들의 견학대상으로 예정된 삭주군의 지방산업공장들과 협동농장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그것을 수령님께 보고 드리시기 위해서 삭주군에 나가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삼복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삭주직물공장과 강냉이가공공장, 읍농업협동조합들에 나가셔서 생산정형과 설비상태 그리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 또 그들의 생활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실태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셨습니다. 당시 삭주군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1958년 6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방침을 받들고 직물공장과 강냉이가공공장과 같은 이런 지방산업공장들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일용품과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군 자체로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군에서는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농업생산을 늘이고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계통적으로 높이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냉이가공공장을 요해하실 때였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먹는 기름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서 기름 짜는 작업반을 새로 꾸리고 기름실수율을 높여서 인민들에게 많은 기름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기에 매우 깊은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과를 귀중히 여기시고 주원료인 강냉이눈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을 방도에 대해서 또 기계설비들을 정상적으



로 보수하고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일 데 대해서, 이밖에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할 데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처럼 여러 날에 걸쳐서 삭주군의 경제실태를 세세히 요해분석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에 기초하셔서 ≪지방경제를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당 방침의 정당성≫이라는 론문을 쓰셔서 창성연석회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어버이 수령님께 보고 드리시었습니다.

그러면 그 론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론문의 서두에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밝히시면서 ≪나는 창성연석회의를 준비하시는 수령님의 사업을 돕기 위하여 삭주군을 비롯한 평안북도 안의 일부 지방의 경제실태를 요해하였다.≫ 라고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론문을 크게 두 체계로 구성하셨습니다.

1. 지방공업의 발전에 대하여
2. 농촌경리의 발전에 대하여

이렇게 크게 두 체계로 구성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론문의 첫째 체계에서 지방공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삭주군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구체적인 자료에 기초해서 깊이 있게 분석론증하셨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장군님께서는 군유치원 웃방에서 열 명의 가정부인들이 한 대의 베틀을 가지고 시작한 삭주직물공장이 4년이 지난 당시에는 연간 백만 메터 이상의 천을 짜내는 기계화된 직물공장으로 발전한 사료를 구체적으로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공장건물 확장공사에 쓰인 막돌만 해도 10여만 개가 수집된 자료로부터 시작해서 공장종업원들이 그동안 마흔 다섯 대의 재봉기, 백 아흔 여섯 개의 옷장, 백 마흔 개의 시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용품과 가구를 장만한 데 이르기까지 풍부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셔서 삭주군의 경험은 우선 대중을 발동하고 지방의 예비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생산을 늘일 데 대한 우리당의 지방공업건설방침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음으로 지방공업은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지역적 거점인 군을 단위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론문의 둘째 체계에서 삭주군에서의 농촌경리발전에서 이룩한 경험은 알곡생산을 늘이면서 축산, 남새, 공예작물생산을 지대적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주민들의 식량과 지방공업의 원료를 자체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대해서 자료적으로 분석론증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집필하신 론문은 지방경제를 빨리 발전시키시려고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 귀중한 도움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역사적인 창성연석회의에서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 이런 제목으로 결론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론문을 보신 데 근거하셔서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빨리 높이며 군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결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서 지역적 거점으로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해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 계시는 비범한 천품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의 사실이 보여주다시피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비범하신 안목으로 모든 사물의 본질을 순간에 그리고 가장 명철하게 판단해 내시는 걸출한 위인이십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산지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를 적극 보좌하신 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풍모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앞의 강의들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대학시절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경애하는 그분께서는 주체49(1960)년 9월1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어 4년 가까운 기간 학업에 열중하시는 한편 대학생들 속에서 빛나는 혁명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에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실천활동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 불멸의 기여를 하셨으며 주체의 영도예술, 고매한 풍모를 전면적으로 갖추시어 광범한 청년들과 인민들 속에서 탁월한 정치활동가, 영명한 지도자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김일성**종합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던 여러 나라 유학생들은 그이의 고매한 인간풍모와 원숙한 영도적 자질에 매혹돼서 그이를 ≪지도자동지≫라고 부르고 따르며 ≪**김정일**동지만세≫라는 송시까지 지어 읊었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대학시절의 혁명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마감지으면서 대학시절에 그분께서 지니고 계신 인민적 지도자의 자질과 풍모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이께서는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높은 헌신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높은 헌신성, 이것은 인민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풍모입니다. 인민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질과 풍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그 진로를 밝힐 수 있는 예지, 다시 말해서 사상리론적 예지도 있어야 하고 뛰어난 영도적 수완도 있어야 하며 인민이 따르게 하는 덕성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는 인민을 위

해 한 몸 바치는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풍모입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지혜도 영도력도 덕망도 모두 인민대중 속에서만 훌륭히 체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1(1992)년에 발표하신 고전적 노작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인민이 선생이며 인민을 떠난 탁월한 지도자란 있을 수 없다. 언제나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사를 듣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옳은 영도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런 인민적 영도풍모를 지닌 지도자가 인민의 참다운 지도자이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서 인민을 하늘같이 믿는 ≪이민위천≫의 사상을 체득하셨고 인민을 선생으로 대하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원래 인민의 지도자, 인민의 영도자라고 할 때 지도, 영도라는 그 개념 안에는 군중 위에 올라서서 호령하거나 군중을 얼려넘기는 것과 같은 착취사회의 통치방식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사를 듣고 인민의 힘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방식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이미 이러한 인민대중중심의 정치방식의 원리를 깊이 체득하시고 대학생들을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한 가지 사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체50(1961)년 8월 여름방학이 방금 끝난 뒤 있었던 일입니다. 그이께서는 방학기간에 자기 고향에 갔던 학생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를 알아보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평소에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왔던 것만큼 고향에 가서도 고향사람들의 생활형편과 상품공급정형, 탁아소와 유치원 운영정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당정책해설사업도 벌리고 평양소식과 새로 나온 당정책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사회정치활동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의 본분에 대해 깊이 자각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들을 만나 담화를 하시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은 사회주의대학의 본보기로 되어야 하는 것만큼 종합대학 학생들은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믿음직하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종합대학 학생들은 나라의 민족간부로 될 사람들이다, 간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심부름꾼이다,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는데 한 몸 바쳐 투쟁하는 사람이 우리당이 요구하는 간부이며 인민의 충복이다라고 간곡하게 일깨워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와 같이 대학생들을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준비되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한편 몸소 그 위대한 모범을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이께서는 어떻게 인민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겠습니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선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하는 인민대중 속으로 들어가셔서 근로하는 인민들의 수고와 열의를 실지로 체험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사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주체50(1961)년 4월21일부터 5월8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 진행된 생산실습기간에 학급동무들과 함께 평양방직기계제작소 여기에 나가셔서 26호선반을 맡아 선반공이 되시어 기계를 돌리시며 설비관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1961년 5월15일부터 6월4일까지의 사이에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와산동용성 사이의 도로확장공사에 참가했을 때에는 친히 대학생들의 앞장에 서시어 목고채를 어깨에 매시고 힘겨운 노동을 하셨습니다. 이때에도 그이께서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작업을 맡아 하셨습니다. 먼 화물역에 가서 급히 물동을 운반해와야 할 일이 제기되면 점심식사를 미루시고 남먼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서슴없이 오르셨고 굴착기가 고장이 나서 돌아가지 못할 때에는 그 육중한 부속품들을 기계공장에 손수 가지고 가셔서 수리해 오기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처럼 벅찬 노동생활을 통해서 근로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열의를 체험하셨으며 인민의 헌신적 복무자가 되시려는 견결한 의지를 더욱 굳히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실습기간이나 방학기간을 리용해서 공장과 농촌, 두메산골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곳곳을 찾으시어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행복하고 윤택하게 해 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1961년 9월에 그이께서는 황해제철소를 찾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 선물로 마련된 2호용광로 조업식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제철소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로수공들이 쇠장대를 가지고 출선구를 뚫는 것을 보신 그이께서는 장차 우리 나라를 자동화의 왕국으로 전변시켜야 하겠다는 결심을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황해제철소를 자동화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리실 구상을 무르익히셨던 것입니다. 그이의 이 구상은 그후 1970년대에 이르러 훌륭히 실현됐습니다. 주체51(1962)년 8월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추켜세우시려고 지방당및경제일꾼창성연석회의를 여시었습니다. 그때 두메산골군인 창성땅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고에 의해서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향상의 본보기가 창조됐었습니다. 식료공장 직물공장 가구공장 종이공장 등 지방공업이 그쯘히 꾸려져 이 고장 농민들은 벌방 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됐습니다. 이 본보기를 온 나라 산골군들에 일반화하기 위해서 유명한 창성연석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창성연석회의 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해마다 여름방학이 오면 창성의 본보기를 일반화하시기 위해서 산골군들을 찾으셨습니다. 주체52(1963)년 8월 평양에서 2천 리 길이 되는 후치령 넘어 풍산군 이곳에 가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셨습니다. 유치원에도 들리시고 상점에도 들리시고 학교에도 들리시고 포전에서 일하는 농민들 속에도 들어가 담화를 하시며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때로는 유치원 어린이들의 밥곽도 친히 열어보시고 때로는 상점에 들리시어 장맛까지 보아주시면서 산간지대 농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가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시었습니다.

사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대학시절은 단순한 학창시절이 아니라 주체위업의 계승자들을 키워내는데 바쳐진 영광의 시절이었고 동시에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 몸소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배양하시면서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겸비하는 데 바쳐진 참으로 의의 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그처럼 일찍부터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고귀한 풍모를 지니시게 된 그 요인이 무엇인가 ..는 문제입니다. 그 주되는 요인 가운데서 두 가지만을 이야기하면 첫째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깊이 체득하신 데 그 요인의 하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다음 둘째로는 위대한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신 혁명적 영향이 또한 그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52(1963)년 8월에 대학생들과 하신 담화 ≪일꾼이 되기 전에 인민의 충복이 되어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을 그려볼 때마다 어머님의 숭고한 염원과 뜻을 이어 한 생을 인민을 위하여 다 바칠 굳은 맹세를 다지곤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여사는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셨습니다. 농촌에 나가시면 농민들과 어울려 씨앗을 뿌리고 마당질도 하셨고 건설장에 나가시면 무릎까지 빠지는 감탕 속에 뛰어들어 삽질도 하셨습니다. 이런 분을 그 누가 항일대전의 나날에 그처럼 명성을 날리던 여장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기에 해방직후 애국미를 싣고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에 왔던 김재원농민이 무거운 볏가마니도 손수 부리워주시고 세숫물도 떠다주시는 김정숙여사를 미처 알아뵙지 못했다는 것이 결코 우연치 않습니다. 이런 어머님의 혁명적 영향은 경애하는 그이로 하여금 일찍부터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간직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갖추신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풍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상이론적 자질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 벌써 인민의 영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풍모를 원만하게 소유하셨습니다. 전 시간에는 인민에 대한 헌신성을 지니신 측면에서 그것을 말씀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자고 합니다.

인민의 지도자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도 있어야 하지만 시대와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사상리론적 예지도 있어야 합니다. 가령 배가 곡절 없이 항행을 하자면 나침판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인민대중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고 혁명위업을 영도하는 인민의 영도자는 향도리념이 투철하고 리론이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주의길에서 탈선해서 자본주의로 되돌아간 나라들의 교훈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갈 능력도 없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도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결국 인민의 운명은 파란곡절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말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인민처럼 행복한 인민은 없으며 반대로 지도자를 잘못 만난 인민처럼 불행한 인민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민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사상리론적 자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범한 예지입니다.

비범한 예지라고 하는 것은 밝고 뛰어난 슬기를 말합니다. 비범한 예지는 사상리론가에게 있어서나 혁명의 지도자에게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자질로 됩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상리론을 내놓고 인민대중의 투쟁을 이끄는 수령을 혁명의 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예지가 있다고 하는 위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지의 면에서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따를 그런 위인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를 천품으로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시절에 그러한 예지가 높이 발현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데서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남들이 감촉하지 못하는 자그마한 변화까지 예민하게 포착하시고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하나의 현상을 보시고도 열 백을 헤아리셨습니다. 특히 먼 앞날까지 예견하시는 선견지명은 대학시절에 벌써 높은 경지에서 발현됐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조선의 사회주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등대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년간에 외신들은 조선은 세계 자주위업의 중심이라고 자주 보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인 우리 조선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명실공히 으뜸가는 자리에 놓이게 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30여년 전에 이것을 예견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혁명의 경험은 오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혁명투쟁의 경험을 집대성하고 있고 세계혁명의 발전법칙과 전략전술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은 세계혁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지난 1960년대로 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선행고전가들의 리론을 우상화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우리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로 리해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야말로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의 지위에 있으며 조선은 세계혁명발전을 추동하는 영광스러운 조국으로 된다고 내다보셨습니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예지가 얼마나 비범한가를 잘 말해줍니다.

인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사상리론적 자질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비상한 탐구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비상한 탐구심을 지니고 계십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탐구심에 대해서 다음



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탐구심이 남달리 강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셔서

≪맑스레닌주의 고전을 보아도 그렇고 세계문학전집을 읽어도 그렇고 김정일동지의 파고드는 성미는 대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비교분석하고 추리종합해서 새 것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그의 능력은 뛰어났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교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창시절부터 어떤 문제이든지 완전히 체득할 때까지 계속 파고드는 깊은 탐구심을 천품으로 지니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그이께서는 리론문제에 있어서나 실천문제에 있어서 명백한 견해를 가지시게 될 때까지 연구를 끊임없이 심화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이에게 있어서는 일찍이 유년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석연치 못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란 없습니다.

주체52(1963)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철학강의에서는 모순법칙이 취급됐습니다. 그후 학과토론에서 학생들 속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모순에 관한 문제를 놓고 론쟁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철학강의에서도 그렇고 철학교과서에서도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에 대해서 해설하면서 모순이 운동발전의 원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사회주의사회에 적용해 볼 때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교원들과 학생들 속에서는 이러한 철학원리가 어딘가 석연치 않고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더구나 잘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선행고전가들이 내놓은 널리 알려진 법칙이기 때문에 론의할 여지없이 옳은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석연치 않은 문제를 그냥 두시지 않고 파고드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모순을 운동발전의 원천으로 보는 견해의 형성과정과 모순법칙의 정립의 역사적 과정을 전면적으로 해부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막스레닌주의철학에서 모순을 운동발전의 원천으로 보는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 모순이 자연과 사회발전의 원천으로 된다고 본 시대적 배경도 탐구하셨습니다. 한편 한때 종파분자들이 모순을 발전의 원천이라고 한 기성리론을 악용해 가지고 당이 발전하려면 당 안에 모순이 있어야 하며 당내 모순을 조장시키자면 종파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허황한 종파유익설까지 들고 나왔던 사실도 분석해 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탐구에 기초해서 모순을 사물발전의 원천으로 보는 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로부터 그이께서는 사회발전의 원인과 동력은 사회적 모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운동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새로운 법칙을 도출해 내셨습니다. 실로 운동의 주체를 사회발전의 원인과 동력으로 보시는 그이의 론단, 이것은 사회발전법칙에 대한 심오한 고찰이었고 하나의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 봐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탐구심이 얼마나 남달리 강하셨고 또 이러한 탐구의 결과로 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철학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서게 됐으며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는 또 얼마나 순조로운 전진을 가져오게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민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사상리론적 자질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창조적인 사색입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수단이 실험이라면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의 중요수단은 사색입니다. 사색이 없이는 사회현상에 대한 옳은 견해가 설 수 없고 사상리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색은 모든 것을 현실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거기에서 진리성을 가름하는 철저한 과학적 사색이고 또한 과학적으로 분석종합하고 추리하고 일반화하는 가장 론리정연한 사색이며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무르익히시는 진지한 사색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경애하는 그이의 이러한 창조적 사색의 특징적인 면모는 대학시절부터 벌써 깊이 발현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적인 사색에 기초해서 철학의 사명을 새롭게 밝혀내신 이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이께서 대학에 다니실 때에만 해도 철학교과서나 철학강의에서는 철학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철학의 사명이 과학적으로 규정되어야 철학리론을 전개하는 기본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철학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이 발생한 이후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발전돼 왔지만 오랫동안 철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리론적 탐구도 없었고 철학의 목적이 과학적으로 규정되지 못했습니다. 막스주의철학에 와서도 그저 실천에 이바지하는 것이 철학의 사명으로 된다고만 보아왔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사색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철학의 연구대상을 알려준 다음 기본강의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철학을 학습하는가를 똑똑히 모르고 철학을 배울 수 있다, 철학의 사명이 밝혀져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철학을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철학의 체계와 내용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이께서는 추리하시면서 철학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사색을 거듭하신 데 기초해서 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52(1963)년 1월 철학부강좌장을 만나신 자리에서 철학의 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인민대중은 자기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혁명적 실천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이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만큼 철학도 마땅히 인간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옳은 세계관을 줌으로써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데 철학의 사명이 있습니다. 철학의 사명을 이렇게 리해하여야 인간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의 있는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고 올바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이의 이 해박한 견해는 주체철학의 사명을 규정한 유일하게 옳은 지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특출한 높이의 사상리론적 자질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이 시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영도적 수완을 소유하신 이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영도적 수완



오늘은 주로 영도적 수완이 뛰어나신 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탁월한 정치가는 영도적 수완이 뛰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사상리론이 밝아도 영도적 수완이 높지 못하면 지도자로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앞의 강의들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 청년지도자로서 명성이 높으셨습니다. 대학생들 모두가 그이를 따랐고 교원 학자들도 그이의 학술적 권위에 탄복해서 존대해 마지않았습니다. 그이를 모신 학급 학생들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뭐든지 그이께 아뢰고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했고 그분의 지도 밑에 만페이지책읽기운동을 비롯한 대중적 운동들도 벌렸습니다.

그러면 대학기간 그이께서는 무슨 직책을 가지고 그처럼 지도적인 위치에서 활약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시는 전 기간 그저 평범한 학생이시였습니다. 그 어떤 직책을 가지고 활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 혁명사업은 나이나 직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청년지도자로서 활약하신 것은 그 어떤 직위를 가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이 누구보다도 고결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영도적 수완을 겸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겸비하신 영도적 수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술이였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권으로 움직이는 방법도 있고 행정적 권세를 가지고 움

직이는 방법도 있으며 또 금력과 재물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인민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움직이는 데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술을 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술에 대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술은 바로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알자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하며 그들의 마음을 알자면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술을 찾기 위한 기본열쇠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술은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자면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 사람 스스로가 마음의 대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괴로워하고 그들의 가슴에 맺힌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끝까지 풀어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감동시켜 마음의 문을 열어놓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술과 능력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고 계신 위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 계신 그 묘술과 능력을 그대로 체현하신 분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인민적 풍모를 그대로 체현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군중 속에 있기를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고락을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도와주는 미덕을 천품으로 지니고 계십니다. 그이께서는 그러한 천품적인 자질과 풍모를 대학시절에 이미 원숙하게 나타내시었습니다.

주체50(1961)년 4월 그이께서 학급 학생들과 함께 평양방직기계제작소 이곳에 나가시어 생산실습을 하실 때에 있은 일입니다. 이 공장은 전후에 새로 건설된 공장이어서 전쟁시기 혈육을 잃은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전쟁 때 헤어진 부모나 형님, 누나를 여태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돌봐주기 때문에 별다른 근심은 없었지만 얼굴에는 저도 모를 그늘이 늘 져있었습니다. 공장간부들은 이것을 무심히 대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가슴 아프게 여기신 분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어떻게 하나 그들의 혈육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몸소 선반기대를 돌리시며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하시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서도 저녁 퇴근후 댁으로 가셔서는 여러 기관에 전화를 걸어 그들의 혈육을 찾는 방법도 알아보셨고 또 밤마다 그들과 함께 편지를 써서 여러 지방에 띄우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 여섯 명의 노동자들 모두에게 혈육들을 찾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믿어주고 어려운 때에 진심으로 도와주면 거기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친혈육을 찾은 노동자들은 그 후부터 생활이 더욱 명랑해지고 일에서도 온 공장의 모범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답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목격하면서부터 공장의 간부들은 물론 모든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그이를 더욱더 경모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장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는 화목한 분위기가 서게 됐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벌써 고결한 인간미를 지니시고 그 누구이든 그이 앞에서는 마음의 대문을 열어놓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런 높은 영도적 수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겸비하신 영도적 수완에서 주요한 것은 다음

으로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혁명가의 첫째가는 실력은 대중을 알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능력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좌우명으로 삼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섭니다. 우선 대중에게 바른 길을 밝혀주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솔선수범하는 기질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시키는 능란한 정치사업방법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마디로 말해서 실력문제입니다. 주체사상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전지전능한 존재입니다. 전지전능한 대중을 이끌자면 대중을 지휘하는 지도자가 그만큼 실력이 높아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선생이라면 지도자는 그 선생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시절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박식가이시었고 다재다능한 분이시었으며 문무를 겸비한 분이시었고 겸손소박하고 다정다감하며 인정미가 흘러넘치는 위대한 인간이시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어느 모로 보나 막히는 데가 없는 위대한 실력가이시었습니다. 그이는 바로 이런 분이시었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학생의 몸이시었지만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대학교육에 남아있던 사대와 교조의 낡은 틀을 가셔내고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중대한 사업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이의 대학시절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그이께서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교육에서의 주체를 세우는 사업까지도 지도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의 강의들에서 해설을 했습니다만은 요컨대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 비결은 그분의 놀라운 실력과 한없이 겸손 소박하고 고결한 위대한 인간풍모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이께서 대학시절에 보여주신 령도적 수완에서의 로숙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겸비하신 령도적 수완에서 주요한 것은 또한 능숙한 지휘력과 전개력입니다. 능숙한 지휘력과 전개력은 혁명의 령도자, 인민의 지도자가 반드시 지녀야 하는 중요한 령도적 자질의 하나입니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어 수행하는 위업으로서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 동원됩니다. 이것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구체적으로 지도하려면 능숙한 지휘력이 있어야 하고 전개력을 가져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매우 광범한 범위에서 활약하시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세심히 보살피시고 전개력 있게 이끄셨습니다. 그분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보좌해 드리기 위해서 주로 방학기간 여러 지방들에 나가신 것을 비롯해서 대학생들 속에 수령관 조직관 군중관 도덕관을 세워주기 위한 활동 그리고 청년운동의 중심에 서시어 청년동맹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활동, 또 당세포의 한 성원이 되셔서 당사업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해 벌리신 활동만 봐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활동범위가 대단히 넓으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 전 기간 청년지도자로서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야영생활이나 생산실습 같은 데 빠짐없이 참가하셔서 몸소 물도 긷고 나무도 패시며 식당근무의 당번도 서시고 친히 선반도 돌리시었습니다. 그리고 4년 가까운 대학시기 론문 담화 연설 대답 결론 서한을 비롯한 고전적 문헌들을 1,500여 건이나 발표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대학시절이 뛰어난 정치가, 다재다능한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그대로 보여준 시기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무겸비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정치사에서 문무를 뛰어나게 겸비한 위대한 정치가로서 어느 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서슴없이 그분은 위대하신 **김일성**대원수님이시고 **김일성**대원수님의 풍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이시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하신 **김정일**장군님은 벌서 스무 살 안팎의 젊으신 시절에 문과 무에 대해서 막힘 없이 통달하신 위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문무를 어떤 높이에서 겸비하고 계셨겠습니까. 이 시간 강의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문무를 겸비한다고 할 때 문은 학문을 통해서 체득한 지식을 말하며 무는 군사적 예지와 담력, 군사를 통솔하는 영군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문과 무는 서로 판이한 분야로서 이 양자를 높은 경지에서 겸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학문에 통달하고 인류사상발전의 최상의 높이에 있는 사상리론에 정통하고 있으면서 뛰어난 영군술과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군사적 지략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진짜 위인은 문무를 겸비한 위인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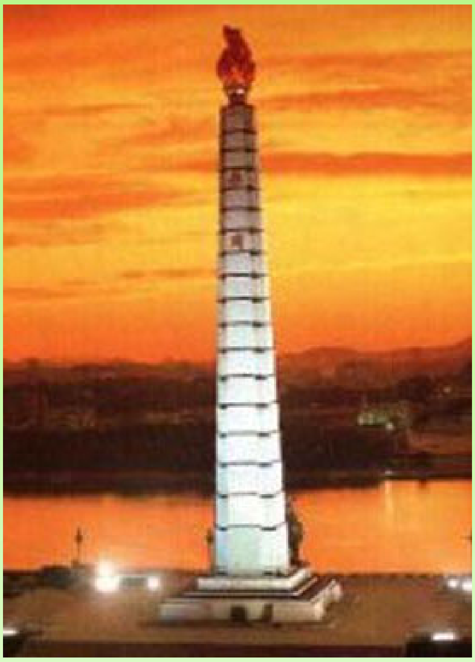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처럼 위인의 풍모를 특징짓는 문무겸비의 자질을 매우 일찍부터 소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앞서 진행한 강의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이께서는 인민학교시절에 벌써 기하와 대수, 외국어와 같은 중학교과정안을 떼셨을 뿐 아니라 시험로케트를 제작하셨고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작전지휘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대 곁에서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으로부터 작전술과 영군술을 체득하셨습니다. 그런 것만큼 중학교를 거쳐 대학에 이르셨을 때 도달한 문무겸비의 자질이 어느 높이에 올라섰겠는가 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도달하신 문무겸비의 자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시절 그이께서 체현하신 학식에 관해서 말할 때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왕성한 정력과 비상한 노력으로 인류가 수천 년 동안에 쌓아올린 사상문화의 재부들을 전면적으로 연구체득하신 데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궁궐을 짓는 대목도 문갑은 못 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능과 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러한 한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리셨습니다. 그이의 학문적인 식견과 리론은 그 어느 각도로 보아도 미흡한 데가 없었습니다. 전공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들, 철학, 역사학, 문예학, 교육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물론 건축공학, 기계공학을 비롯한 자연과학분야까지도 전공분야 못지 않게 박식하셨습니다. 역사학을 실례로 들어본다면 머리흰 노박사들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에 대한 재평가를 내리셔가지고 우리 나라 중세사를 새롭게 체계화하도록 하신 것이라든지 또 물리학에서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성이론을 해박하게 전개하신 사실들은 그이의 과학적 식견이야말로 정말 대단했음을 말해줍니다.

다음은 대학시절 그이께서 체현하고 계신 군사적 자질에 관해서 말할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의 군사사상과 리론, 탁월한 군사전법을 소유하셨고 군사행동에서 나





서는 모든 문제를 영활하게 푸신 데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군사적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쟁의 불구름 속에서 단련되였고 최고사령부에 나와 같이 있으면서 작전대결에서 군사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전법에 능한 전략전술가입니다.≫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소년시절에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가열한 전쟁의 불길 속에서 영활한 전략과 전술을 체득하셨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기발하게 창조하고 적용하려면 무엇보다도 해박한 군사적 식견을 가져야 하며 사람의 재주를 살려 쓸 줄 아는 정치적 수완이 있어야 합니다. 뛰어난 군사적 식견과 출중한 정치적 수완을 지니신 위인에 대해서 말할 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따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앞의 강의에서 언급한 사실이지만 그이께서는 뛰어난 영도적 수완을 지니셨고 대학시절에는 벌써 전략학과 전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서고금의 전쟁사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셨습니다.

주체51(1962)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대학에서는 군사야영이 조직됐었습니다. 야영생들은 그이께서 해박한 군사적 식견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이께 주체의 군사리론과 전법에 대해서 들려주실 것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이 요청에 응하셔서 야영의 나날 주체의 군사리론과 함께 동서고금의 이름난 작전들과 전법들 그리고 수많은 요새들을 비롯한 군사시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경험과 우단점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제2차세계대전시기 히틀러파쇼독일에게 섬멸적 타격을 가한 스딸린그라드격전이라든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그토록 성공적이었다고 선전하는 노르망디상륙작전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대소작전들 가운데서 가장 교묘하게 꾸며진 작전의 하나라고 떠드는 진주만기습작전 그리고 한때 세계최대규모의 요새선으로 불리우던 마지노선과 지구프리트선과 같은 이런 세계역사에 기록된 모든 군사작전들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분석해서 말씀해 주실 때면 야영생들은 그이의 해박한 군사적 식견에 진정 감탄을 금치 못하곤 했습니다. 야영기간에 들려주신 그이의 말씀들은 군사문제에 관한 특강들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군사문제를 단순히 지식으로서 체득하신 것이 아니라 실천면에서 통달하시었습니다. 대학시절에 그이께서는 벌써 땅크면 땅크, 어뢰정이면 어뢰정, 무선통신기재면 무선통신기재, 그 어느 분야에서나 그것을 전문가들 못지 않게 다루셨습니다.

주체51(1962)년 여름 그이께서 인민군대의 어느 한 통신구분대를 찾으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이께서 친히 무선기 앞 의자에 앉으셔서 전원절단기를 누르시고 머리수



화기를 쓰시자 옆에 있던 무전수는 신바람이 나서 기재동작을 그이께 설명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 여러 파장들을 손수 찾고 맞추시는 능란한 그이의 솜씨에 무전수는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선통신수단들의 성능과 그것을 다루는 통신병들의 동작법을 요해하시는 한편 우리 나라 통신방송망들의 기능 효과를 가늠해 보시기 위해서 전연에 있는 통신구분대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에 이처럼 해박한 군사적 식견을 행동으로 실천으로써 깊이 체득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한 생을 전쟁마당에서 보낸 로장군들도 미처 알지 못하는 전쟁의 새로운 원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군사전술의 새로운 원리들도 발견하셨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문무를 높은 경지에서 겸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이께서는 이처럼 매우 젊으신 시절에 위인이 가져야 할 징표인 문무겸비의 높은 자질을 소유하게 되셨겠습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말씀 드려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주체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근본적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애하는 그분께서는 문무를 겸비하는 것을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의 근본문제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로부터 그이께서는 누구보다도 일찍이 문무를 겸비하셨고 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상의 높이에서 문무를 겸비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나는 문무를 겸비한 전사가 되어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결심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결심을 안으시고 대학시절에 문무를 겸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셨을 뿐 아니라 주체위업의 계승자들인 청년대학생들을 문무를 겸비한 혁명전사로 키우시기 위해서 불타는 정력을 다 바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에 벌써 문무를 겸비한 정치가로서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훌륭히 갖추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겸비하신 인민의 지도자의 자질과 풍모 가운데서 고매한 덕성을 갖추신 이 측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고매한 덕성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에 갖추신 인민의 영도자의 자질과 풍모에 대한 강의 다섯 번째 분으로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데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고매한 덕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덕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끝없이 높은 덕을 지니고 인민들과 혁명동지들에게 더없이 귀중하고 은혜로운 사랑과 보살핌을 베풀어주는 품성을 말합니다.

인민의 지도자, 정치적 수령은 고매한 덕성을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 리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면 첫째로는 고매한 덕성을 지닌 지도자라야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의 리해관계를 가장 철저히 대표할 수 있고 인민을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고매한 덕성을 지닌 지도자가 아니고서는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발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민대중은 자기들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내세워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해서 한 생을 바치는 그러한 정치적 수령에게 자기들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그가 가리키는 길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셋째로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 한없이 겸허하고 소탈한 풍모와 작풍,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넓은 포용력과 같은 공산주의적 덕성을 지닌 정치적 수령만이 각계각층의 군중들, 각이한 취미와 감정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묶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지가 있고 정치적 수완이 있다 하더라도 덕망이 없으면 인민의 참다운 지도자로 정치적 수령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의 영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품격과 자질의 하나인 고매한 덕성을 벌써 20대초에 들어서실 때 훌륭히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품격과 자질을 어떻게 소유하고 계셨는가를 사료적으로 몇 가지만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체52(1963)년 8월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해 여름방학을 함경남북도와 양강도에서 보내셨습니다. 8월5일에는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우는 후치령..대 개마고원에 오르셨습니다. 이때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성연석회의를 여시고 산간지대인민들의 생활을 벌방 부럽지 않게 만들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신 때



입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시고저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개마고원일대에서 사는 인민들을 찾으신 것이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니다. 지금도 그이께서는 일꾼들에게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한 가마밥을 먹으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일본새로 일할 것을 가르치시지만 그때에 벌써 자신께서 그러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양강도 일대의 감자농사형편을 자세히 요해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찬이슬에 옷을 적시시며 감자밭에 들어가셔서 감자포기를 패서 소담하게 달린 감자알을 세어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산군읍 이 상점에 가셨을 때에는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간장 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친히 반키로그람쯤 되는 된장과 간장 한 병을 사 가지고 숙소로 돌아오셔서 장맛까지 보셨습니다. 어느 날에는 황수원목장 근처에 있는 유치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유치원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손풍금을 타는 교양원을 둘러싸고 ≪내가 입은 저고리 색동저고리≫ 하는 귀에 익은 선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교양원과 인사를 나누시고 나서 아이들을 손저어 부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아이들을 정겹게 굽어보시며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고 왔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제가끔 ≪밥≫ ≪떡≫ 하고 오돌차게 대답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오, 그래. 그럼 점심엔 뭘 싸가지고 왔는지 어디 좀 보자. 어서 들어가 밥곽가방들을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들은 일제히 방안에 들어가 가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이께서는 친히 아이들의 밥곽을 열어보시며 이 고장 인민들의 식생활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의 밥곽에는 흰쌀밥이 담겨져 있었지만 적지 않은 아이들의 밥곽에는 감자밥 감자떡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며칠 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군 안의 농업부문일꾼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산지대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인 교시가 계셨는데 그 가운데는 이 고장의 감자와 벌방의 흰쌀을 바꿔줄 데 대한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이 사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방학기간 같은 때를 이용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보좌해 드리시면서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 풍모를 몸소 체현하기 위해서 힘쓰셨고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바치셨으며 이 행정에 인민에 대한 헌신성,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숭고한 높이에서 소유하시게 됐습니다. 오늘날 세상사람들 모두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예지로 그렇고 영도풍모도 그렇고 덕망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시라고 말하는 것이 우연치 않습니다. 정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숭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3년전 8월30일경 신의주지구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큰물피해를 입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침수된 지역의 1만 수천 명 주민들 중 어느 한 사람도 희생된 사람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지에서 떨거나 굶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의 육해공군을 동원시켜 인민들을 빠짐없이 다 구원해 내도록 하셨고 수재민들에게 침구류며 식량이며 화식기재들을 제때에 보내주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민들, 특히 수재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더욱 뜨겁게 간직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어떤 난국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란 없다는 철석의 신념을 더욱 굳히게 됐던 것입니다. 이상의 사실은 우리당과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 계시는 덕망이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우리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 계시는 고매한 덕성을 이미 30여년 전부터 실생활로써 체험을 해왔습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지난날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했던 것처럼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운명도 미래도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대학시절에 보여주신 숭고한 덕성의 표현을 사료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너무도 뛰어나신 참다운 인간적 풍모는 대학시절부터 만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겼고 매혹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일찍부터 높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한 것을 그분이 위대한 수령님의 자제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우리 인민들은 우리 혁명이 개척되던 처음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 모셨고 수령님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해 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수령님의 자제분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일찍부터 경모해 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이께서 대학시절에 벌써 만사람들의 총애를 받으신 것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상리론적 예지와 뛰어난 영도적 수완, 문무겸비의 자질, 뛰어난 인정미와 인간성, 위대한 포옹력과 같은 인민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실력과 품격을 아주 높은 경지에서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 드려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누가 내세워주어서가 아니라 특출한 실력과 고매한 풍모를 지니신 것으로 해서 그분 스스로가 만민의 총애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시절에 벌써 인민의 영도자가 지녀야 할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소유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바로 이러한 품격과 자질을 지니시고 주체53(1964)년 3월 **김일성**종합대학 교문을 나서시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오시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서른 네 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도자로서의 역사가 10년 20년도 아니고 30년이 넘는다는 것은 대단히 오랜 역사입니다. 이 30여년간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시는 길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오늘날 세계인민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세계정치원로로 높이 칭송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입니다. 참말로 우리 인민은 수령복을 지닌 행복한 인민입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빛나는 대학시절 강의를 마치면서 질의응답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학시절 종합 - 질의응답

학사 김보영 선생이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 안녕하십니까.

질 문 : 안녕하십니까.
김보영 : 전 시간까지 근 50회에 걸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49(1960)년 9월부터 주체53(1964)년 3월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문에 대한 강의를 마감하면서 강의내용과 관련한 질의응답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종합대학시기는 그이의 영광스러운 혁명역사에서 찬란한 한 시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질 문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시기의 역사를 통털어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김보영 : 예,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시기의 역사는 우선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구현하셔서 종합대학을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으로 이끌어오신 끊임없는 지도의 역사입니다. 또한 심오한 탐구와 독창적인 발견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발전풍부화 시키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의 빛나는 역사입니다. 또한 뛰어난 영도력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신 탁월한 영도자의 자랑찬 역사이며 언제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 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진정한 인민의 영도자의 역사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학기간은 사상과 영도의 영재, 탁월한 인민적 영도자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전면적으로 완성하신 뜻깊은 역사적 시기입니다.

질 문 : 이제 방금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학시기는 위대한 사상리론가의 빛나는 역사라고 했는데 사상리론가의 위대성은 그가 이룩한 사상이론적 업적의 크기에 의해 평가되며 사상이론적 업적의 크기는 저서를 통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럼 그분께서 대학기간에 내놓으신 논문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 노작은 얼마나 됩니까.
김보영 : 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재학기간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은 1,500여 건에 달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방대한 양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노작을 몇 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 데 대하여≫ 또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 그리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 다음 ≪현대수정주의의 발생에 대하여≫ 다음 ≪인민주의문학과 섹스피어의 문학에 대하여≫ 다음 ≪미의 기준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이다≫ 다음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이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몇 개 제목만 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기간에 발표하신 노작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정치경제학을 전공하셨지만 이 전공과목은 물론 철학 역사학 법학과 같은



사회과학과 함께 자연과학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이상의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 능통한 인류역사가 낳은 위인들 중의 위인입니다. 한 인간이 모든 지성과 재능을 최고봉의 경지에서 겸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표하시는 노작을 거의 다 읽어보시고 그분의 뛰어난 저술능력에 탄복해 마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에는 인류의 사상리론발전에 공헌한 가치 있는 저서들을 많이 내놓은 철학자 이론가들이 많지만 그 사상리론적 내용의 심오성과 다면성, 원리적인 발견의 독창성과 풍부성 그리고 저서의 종류와 분량으로 볼 때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따를 위인은 없습니다.

질 문 : 참으로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기간에 학계를 놀라게 한 노작을 수많이 발표하셔서 사상이론가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보영 : 네, 이 짧은 시간에 그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범한 통찰력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놓으시는 노작을 내놓으셔서 사학계를 뒤흔들어 놓으신 데 대해서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49(1960)년 10월에 내놓으신 고전적 노작 ≪삼국통일문제를 다시 검토할 데 대하여≫에서 그때까지 역사학계에서 정설로 내려오던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의 부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셨습니다. 이래서 신라의 민족통일론이 사실상 역사왜곡이라는 것이 더 론박할 여지없이 증명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학계를 뒤흔든 엄청난 사변이었습니다. 그런 사변이 열 여덟 살 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 그분의 통찰력과 식견이 과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경애하는 그분께서는 이밖에도 우리 나라에 구석기시대가 존재했고 그때부터 우리 강토에는 우리 옛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고 밝히신 것이라든가 우리 나라의 고대국가들이 노예사회를 거치지 않고 원시사회로부터 직접 봉건사회로 넘어왔다고 보던 비과학적인 견해를 처음으로 바로잡아 주신 것과 같은 탁월한 사상리론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사상리론들은 그후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원인과 고인, 신인의 뼈화석과 함께 수많은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굴되고 고대노예사회의 순장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순장무덤이 새로 발굴돼서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사실로서 확증했습니다. 참말이지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 계시는 사상리론적 예지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말 그대로 비범하고 특출한 것입니다.

질 문 : 아까 위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시기 종합대학을 주체교육의 최고 전당으로 이끌어주셨다고 했는데 그분께서는 어떻게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까?

김보영 : 사실 경애하는 그이의 대학시절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에 오신 초기에만 해도 대학교육에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낡은 틀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교육내용도 그렇고 대학생들의 학습태도에서도 선행고전을 숭상하는 경향이 농후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바로잡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독창적이며 창조적인 학습의 모범으로 대학생들의 학습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도록 하셨고 대학교육내용에서도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실례를 든다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치경제학강의를 받으신 후 교원의 요청에 따라서 강의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곤 하셨는데 그 교원은 그이께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마다 붉은 연필로 밑줄을 긋곤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보니 교재의 매갈피에 온통 붉은 줄이 그어지게 됐고 정치경제학교재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 됐습니다. 아까 우에서 그분의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애하는 장군님은 사상리론의 영재이시고 다재다능한 분이시며 문무를 겸비하신 데다가 진솔소박하고 다정다감하며 인정미가 흘러넘치는 위대한 인간이십니다. 대학시절에 그분은 말 그대로 어느 모로 보나 막히는 데가 없는 위대한 실력가이시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었기에 그.. 평범한 학생의 몸이셨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대학교육에 남아있던 사대와 교조의 낡은 틀을 없애고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중대한 사업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질 문 :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인정미는 대학시절에도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보영 :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생산실습 때나 어버이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보좌하실 때나 만나시는 사람들 모두를 한 품에 안아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그분을 모신 학급에는 전쟁 전에 남반부에서 혁명투쟁을 하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한 혁명가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대학에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입학한 초기부터 그러다 보니 학급동무들도 관심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학급동무들의 안중에도 없는 그 학생을 심려하셔서 학급동무들과 함께 그를 찾아주셨고 다음날에는 귀중한 약까지 안겨주셨습니다. 그가 건강이 회복돼서 대학에 나온 후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여성혁명가가 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질 문 : 경애하는 그분께서 생산실습에 나가셨을 때에는 공장의 전쟁고아들에게 혈육까지 찾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김보영 :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생산실습에 나가셨던 평양방직기계제작소, 오늘의 평양방직기계공장입니다. 여기에는 전쟁 때 미제침략자들에게 부모를 빼앗긴 전쟁고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시고 공구직장의 한 기대공에게 이름만 알고 헤어진 형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위해





서 이름밖에 모르는 사람을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셨.. 형과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곳에 띄울 편지초안도 당사자와 함께 만들어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뒤에도 또다시 다섯 명의 사람들에게 잃었던 혈육을 찾아 주셨습니다. 하기에 공장의 노동자들은 그이가 누구이신지 잘 몰랐지만 모두가 그분을 끝없이 우러러 따르며 경모해 마지않았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일찍이 대학시절에 청년지도자로서 높은 명성을 지니시고 만사람의 총애를 받으신 것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사상리론적 예지와 뛰어난 영도적 수완, 문무겸비의 자질, 뛰어난 인정미와 위대한 포옹력과 같은 인민의 영도자가 가져야 할 실력과 품격을 최상의 경지에서 지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간 질의응답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일성종합대학에 령도의 자욱을 옮기신 4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

(평양 주체 89년 8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령도의 자욱을 옮기신 4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가 25일에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 내각 부총리 조창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강석숭소장, 변영립교육상,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 등 관계부문 일군들,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 혁명사적부문, 당간부양성기관 일군들, 청년동맹 일군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여러 부문 일군들이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령도의 자욱을 옮기신 시기에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의 위대성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해설하였다.

토론자들은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령도의 자욱을 옮기신것이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되는 근거들에 대하여 밝히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지금으로부터 40년전 룡남산마루에 오르신 **김정일**동지께서 대학시절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더 깊이 체득하며 조선혁명을 떠메고 나갈 준비를 갖추는 보람찬 시기로 만들려는 숭고한 맹세를 다지시고 대학의 전기간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이께서 이 시기에 정력적인 탐구와 사색으로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로동계급의 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라는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해명하시고 그 본성에 맞는 당건설의 근본원칙을 새롭게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령도의 자욱을 옮기신 시기에 보여주신 령장의 숭고한 풍모와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김정일**동지께서 일찌기 대학시기에 대학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원칙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 주심으로써 주체의 교육사상리론을 심화발전시키시였다고 지적하였다.

